

확정된 표지 면지 삽입 예정

본문차례

한국 제사문화의 현황과 과제

문화 다양성 시대의 한국의 제사문화	3
박 재 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Ⅰ.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한국의 제사문화	5
Ⅱ. 한국 제사문화	7
Ⅲ. 제사문화 부활을 위한 제언	11
Ⅳ. 맺음말	15
경기 불천위 제사의 특징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계승 방안	19
최 종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Ⅰ. 경기 불천위 제사의 연구 배경과 목적	21
Ⅱ.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 현황과 실태 분석	24
Ⅲ. 불천위 제사의 법고(法古) 논의와 창신(創新)의 정향	42
Ⅳ.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 과제와 공동체 문화 자원화 방안	47
제사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51
박 종 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Ⅰ. 세속화시대의 제사문화: ‘도리’[理]에서 ‘인정’[情]으로	53
Ⅱ. 제사의 의미와 기능	55
Ⅲ. 제사의 형식과 구조	63
Ⅳ. 근현대 제사문화의 변용과 세속화 양상	77
Ⅴ. 맺음말: 신종추원(慎終追遠), 죽음을 기억하는 제사문화	87
여성의 입장에서 본 제사	91
윤 유 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Ⅰ. 들어가는 말	93
Ⅱ.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94
Ⅲ. 제사문화와 여성참여 특징	97
Ⅳ. 여성들이 전승하는 제사문화의 경험과 지식	101
Ⅴ. 맺는 말	106



문화 다양성 시대의 한국의 제사문화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 I.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한국의 제사문화
- II. 한국 제사문화
- III. 제사문화 부활을 위한 제언
- IV. 맺음말

문화 다양성 시대의 한국의 제사문화

박재희*

I.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과 한국의 제사문화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며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¹⁾ 세계 언어 목록인 에스놀로그(ethnologue) 2009년 판에는 전 세계 살아 있는 언어 6909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389개로 등록되어 있다. 사람들 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고개 넘어 동네 사람들과의 언어가 다르기도 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입는 의상은 사람 수 만큼 다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개고기가 여름을 나는 중요한 영양 보충 수단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개가 인간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가족 구성원이기도 하다. 세계 종교의 숫자와 믿음의 다양성, 사회적 가치의 차이는 지역이나 세계 인구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런 문화 다양성은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에 대하여 절대적 선(善)이거나 우위라고 단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문화는 사회나 어떤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들의 집합이며 예술과 문학 이외에도 생활양식들, 함께 사는 방식들, 가치 체계, 전통, 신념 등을 포괄한다. 문화는 계급·성별·연령·직업 등을 초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과 집단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삶의 양식 전체를 포괄한다. 이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2001년 세계 유네스코 31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33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런 전제하에 내가 믿고 경험하고 실행하는 문화가 정통이고 나와 다른 문화는 이단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집 제사에 감 뇌라 대추 뇌라 하지마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

*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1)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은 제사의 절차나 의례는 집집마다 풍속이 다른 문화다양성을 기반하고 있으니 남의 문화 선택에 대하여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란 의미다.²⁾ 세상의 모든 존재나 존재물의 집단은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문양, 향기와 모양을 갖고 있으며, 그 다양성은 생존의 방식이기도 하다.³⁾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문화를 선택하고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하여 그가 사는 사회에서 금지한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얼마든지 존중받아야 한다.

2. 문화 다양성 시대의 제사 문화의 충돌

현재 제주도 도지사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는 매년 열리는 산신제 초헌관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제주도 조례로 제정된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한라산 산신제 초헌관을 참가해야 한다는 조목이 있다. 이에 대해 원지사가 조례를 어기고 공직자로서 자신을 선출한 지역의 문화적 공감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고, 반대로 아무리 선출직 공직자라도 자신의 종교적 선택과 문화 다양성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⁴⁾ 어떤 집안에서는 제사에 의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가족의 붕괴까지 겪는 경우도 있다.⁵⁾ 한국식 남성우월의식의 측면에서 제사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허례

2)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화에 대하여 개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입장에서 첨예한 비판과 억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 정치인이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3)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청나라 건륭황제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사절단에 끼어 도착한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장 열하(熱河), 그 곳에서 북쪽으로 400키로 정도 가면 내몽고 초원이 펼쳐진다. 그 초원에 피어 있는 수백 만, 수 천만 송이의 꽃들, 그 꽃들을 보며 화엄의 세계를 떠올린다. 모든 존재는 화려(華麗)하고 엄숙(嚴肅)하게 피어 있으며,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세상이 화엄의 세상이다. 화엄은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더욱 단단하게 해 주는 기초 철학이다.

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라산 산신제 초헌관 집전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17일 속개된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홍기철 의원(화북동, 새정치민주연합)의 “화북 해신제는 한라산신제와 더불어 조선시대 목사가 주관한 제사 중 하나다. 해신제에도 불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인 한라산 산신제 불참에 대해 참 난감하다. 기독교적 가치관 때문인데 ‘나이롱’이라고 표현하면 섭섭하고, 신앙 서열로 따지면 꼬트머리에 있는 기독교 집안”이라고 운을 뚫다. 이어 “저희 집안, 아버지가 17세 때 죽을 병을 앓다가 당시 선교사에 의해 목숨을 건진 바 있다. 그 때부터 평생 기독교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해서 현재까지도 은퇴 장로로 기독교를 신조로 삼고 있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원 지사는 특히 “신앙만은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때문에 집안 할아버지 제사 역시 작은 아버지에게 넘긴 상태”라고 집안 내력까지 꼬집어냈다. 그러면서 그는 “집안의 전통을 지키고자 그랬던 것”이라며 “제주의 전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잣대로 접근하지 않고 전통문화로 도지사가 집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불편해하고 껄뻐하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원 지사는 “종교에 정치를 얹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신념 문제”라며 “이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면 문화 관용성의 하나로, 지사도 인간인데 적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양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가하거나 비판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문제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많이 돌아보겠다. 너그러운 선처를 바란다.”고 거듭 선처(?)를 당부했다. 화북동 해신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안스러운 마음을 감안해 더 정성을 기울이겠다.”며 “절은 않겠지만 참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2016. 8. 11자>

5) 정확히 5년 전에 저희 집은 제사를 완전히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장손이었고, 챙기는 기일만 그나마 합친 게 8개라 명

허식의 문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교조적 제사 진행, 제사를 옹호하는 노년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과 동떨어진 제수 준비, 제사의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의 의견충돌 등이 제사에 대한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본인은 이 발표에서 문화다양성 시대에 한국의 제사문화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와 충돌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시대 제사문화가 어떻게 전통과 화해하고, 제사에 대한 이질적 신앙과 신념이 공존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래의 제사문화를 발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 제사문화

1. 조상제사의 기원

한국의 제사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제사의 종류도 다양해서 지금의 조상제사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 왔다. 조선시대 제사문화의 근간이 되었던 <주자가례>에서는 사시제(四時祭) · 초조제(初祖祭) · 선조제(先祖祭) · 네제(禰祭) · 기일제(忌日祭) · 묘제(墓祭) 여섯 가지 제사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조상 제사만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기

절 포함하면 달마다 제사 챙겨야 했죠. 제사 때마다 흠어져 사는 가족들 꾸역꾸역 올라와서 음식장만하고 손님 받고.. 가족끼리 자주 봐서 좋았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서로 힘들어서 핵핵대고 그러다가 사소한 트러블이라도 발생하면, 그게 도화선이 되서 확 터지고.. 오로지 좋았던 건, 제사 안지내면 뭘 일 나는 줄 아셨던 할머니 할아버님과 본인들 원할 때마다 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며 모든 제사 저희 집으로 몰아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던 작은할아버님 쪽 뿐. 그래도 남자들은 편하지 않았냐고요? 아예 둔맹이들만 모여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은 제사 빼면 정말 각 가족들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랬던 게 제사 때만 되면 빼걱빼걱 대다가 부부싸움 나고 심지어는 이혼이야기도 나오고. 진짜 제사가 만약의 근원이었습니다. 뒤 처리 라도 도와줄라 치면 할머니 불호령에 작은할아버님들의 그놈의 남자 위신소리 _-;; 결국 5년 전에 아주 크게 한번 제사가 뭘 필요 있나가 터지고, 교회 일 년에 두 세 번만 가는데 무슨 예수쟁이가 집안 망쳐서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아버님과 작은아버님께서 그냥 제사상을 얹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상채로 들어서 내다 꽃아버렸어요. 노발대발하는 어르신들.. 특히 더욱 더 열을 내시던 둘째 작은할아버님에겐 그렇게 제사 좋고 조상들 모시고 싶어 하면 그쪽에서 제사 가져가서 모시라 대신 각종 비용 십 원 하나까지 전부 우리 쪽에서 대겠으니 가져가라 했더니 암말도 못 하시더군요 꺾 그렇게 제사상 얹어버리고, 다음 기일에 또 스멀스멀 그래도 제사는 해야... 어찌고저찌고 이야기 나오길래 아버님, 저, 작은아버님 3분이 모여서 각종 제기, 때마다 꺼내 썼던 수많은 병풍들,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있던 각종 지방 및 물품들 한데 모아서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조상님들 제사 밥 대신에 화목한 가정으로 덕에 보답하겠으니 편히 쉬시라고 하면서요. 물론 난리 났었죠. 하지만 과장 좀 해서 그깟 제사보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모든 걸 한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제사 대신에 딱 가족들만 먹을 음식해서 나눠먹고,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 하기에 음식은 여자가 각종 뒤처리 및 설거지는 남자가 하게 됐죠. 처음에는 싫어하시던 할머니 할아버님도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니 순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일 년에 딱 명절 두 번 만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생기면 서로서로 모여서 끼리끼리 여행도 가고 합니다. 제사가 있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좋아졌죠. 제사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한국식 남성주의, 허례허식과 결합해 시대에 맞지 않는 악습으로 변했다면 없애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유교식 제사문화를 따르지 않아도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가족 간의 화합, 그리고 고질적인 며느리 스트레스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은 최소한 얼굴 붉히는 명절은 보내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블로그에서 인용>

제사와 명절제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이외 다른 제사들은 이미 없어진 제사이거나 일부 특수한 사회나 계층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문화이기에 논외로 한다. 조상제사에 대해서는 나를 나아 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분의 기일이나, 명절에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라는 기본 정신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 의미 이외에 직계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가 혁명의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논도 있고⁶⁾, 조선왕조에서는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⁷⁾ 그러나 이런 통치자의 통치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의 제사의 의미가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상에 대한 제사는 자손으로서 나를 나아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순수한 자손으로서의 마음을 의식화(ritualize)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조상 제사는 그가 처한 위치와 위계에 따라 그 회수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대부이상 관원은 고조까지 4대를 제사지내고, 6품 이하는 3대 제사를, 7품 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은 부모제사만 지내는 것이 원래 규정이었다.⁸⁾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효도하는 데도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풍조가 일어 누구든지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四代奉祀)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수명으로 보아 고조부모의 생전에 사랑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이유와 함께 나도 이제 지체 높은 양반이라는 과시적 문벌 자랑의 한 도구로서 제사를 차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조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권장하고 있으나 4대봉사의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합사를 통해 부부 제사를 1회로 합하거나, 명절에 모든 조상들을 모아서

6)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제사, 곧 직계 혈족에 대한 제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1400년께인 은나라 시절, 조갑이라는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형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면서부터이다. 갑골문 기록을 살펴보면 이전까지만 해도 은나라는 황하신·천신을 포함해 천지만물에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조갑은 이들 제사를 모두 폐하고 조상신 하나만을 숭배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기 조상의 족보도 수정했다. 김교수는 이것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평가한다. 곧 자기 조상이야말로 모든 토벌과 샤머니즘적인 숭배 대상을 초월한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주변 부족에게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유교 문화 특유의 족보 만들기·족보 캐기·씨족 혈통 우월 의식 따위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자의 기원을 살펴보면 조상의 조(祖)라는 글씨는 제단을 상형화한 시(示)와 남성 성기를 상형화한 차(且)가 합쳐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성 우월의 가부장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전반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이 같은 발생론적인 이유로 여성은 제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제사는 남성만의 축제이며, 남성이 사회의 모든 가치와 권력을 계승해 가고 있다는 그들만의 은밀한 축제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중에서. 김경일 저

7)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한 조선은 민간신앙을 일소할 방법을 주자학에서 찾았다. 제천(祭天)과 제사(祭祀)가 그것이다. 경복궁 우측에 사직단을 지어 하늘신과 토지신에게 제례를 올리고, 좌측에 종묘를 지어 제사의 기원을 마련했다. 15세기 말 성종은 아예 『경국대전』을 편찬해 국법으로 반포했다. 예제(禮制)에 이런 조항이 있다. ‘6품 이상 문관이나 무관은 3대까지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일반 서민은 부모에게만 제사 지낸다.’ 잡신을 섬기는 자는 처벌되었다. 빈곤한 서민은 위패를 모시고, 명절 땀 두어 가지 음식으로 족했다. 굶는 판에 더 차릴 것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양반이 향촌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봉제사는 충군효친의 규율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격식과 요란한 상차림이 강제됐다. 조상숭배가 통치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놓이자 봉제사는 곧 가문의 위세경쟁으로 변했다.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2010. 9. 27

8) 공민왕 2년 포은 정몽주 제례규정

제사지내는 문화가 많은 가정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제 제사는 자신의 집안의 지체 높음을 자랑하는 수단도 아니고, 양반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의례도 아니다. 오로지 조상에 대한 공경과 그 제사문화의 허례와의 충돌만 남은 사라져 가는 문화이다.

2. 제사문화의 논의

2011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 주최로 ‘한국 제사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그곳에 모인 400여명의 방청객들은 각자 자신이 고민하는 제사에 대하여 고민을 토로하였고, 활발한 제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제사문화의 논의는 역사를 통해 변천해 왔다. 과거에는 우상 숭배라는 종교논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현재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축이 바뀌고 있다. 배타적 종교는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정의하며 숭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상 제사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제사가 남자 중심의 의례로서 여성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의 소통을 목표로 하면서 일방적인 부모의 자식에 대한 명령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일신을 인정하여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로 바라보는 신앙적 선택의 문제에 따른 갈등, 상당수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지나치게 많은 제사 회수에 따른 피로감, 가부장주의 문화와 각종 상속문제 등으로 장남 집안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 각종 허례허식, 구시대의 규범과 섞여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와 동떨어진 특성을 가졌다는 점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제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표출하고 있다. 반면 제사의 긍정적 관점에서는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의 덕을 기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목의 의식, 가족사를 후손에게 전달하고 전파하며, 나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의식으로서의 긍정적 의견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런 제사문화를 중심으로 충돌하는 서로 다른 의견의 입장을 고찰해 보면서 제사문화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제사의 의미

제사(祭祀)의 기원과 의미는 다양한 견해가 있기에 본 논고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祭祀)는 축제(祝祭)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하여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아름다운 복식을 착용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음식을 올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은 제사와 축제의 공통점이다. 중국철학자 풍우란(馮友蘭) 선생은 그의 저서 <중국철학사>에서 제사는 예술적 행위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정의한 바 있다. 추수가 끝나

는 시절, 또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풍요로운 음식과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씨족이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한바탕 춤추고, 술 마시고, 음식을 먹는 축제가 제사이다. 그래서 축제(祝祭)의 제(祭)와 제사(祭祀)의 제(祭)는 같은 것이다. 조선왕조 의례의 결정판인 <국조오례의>에서도 제례는 길례(吉禮)의 카테고리에 두어 제사가 행복하고(happy) 기쁜 의식(ritual)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어린 시절 제사의 기억은 늘 먹을 것이 많았다는 것이다. 평소에 먹기 힘든 빨갱고 하얀 사탕 과자도 있었고, 고기와 흰 쌀밥도 제사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제사는 안 중에 없었으면 오로지 끝나고 내 입으로 가져 갈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다. 제삿날은 늘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먹는 날이었으며, 과식하는 날이었으며, 배탈 나는 날이었다. 그래도 제삿날은 늘 고대하고 기다리던 축제일이었다. 이런 기억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제삿날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음식 냄새가 동네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은 이웃에게 전달되었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장되어 각자의 집으로 테이크 아웃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사는 축제가 아닌 고통의 의례로 변했다. 남자들은 바쁜 일과 속에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여자들은 제수 준비에 며칠 전부터 시장을 들락거려야 했다. 먹을 것이 늘 풍족하게 집에 쌓여 있는 아이들에게는 제사는 더 이상 음식을 기다리는 의식이 되지 못했다. 성공한 자손과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손은 제삿날에 모여 서로의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다. 시집 장가 못 간 젊은이들과 취직 못한 구직자들에게 제사는 친족에게 편잔을 듣는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었다. 남은 제사 음식은 어느 누구도 집으로 가지고 가려 하지 않았고, 양념도 안 되어 맛이 없는 제수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버려지게 되었다.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축제(祝祭)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제(宿祭)가 된 것이다. 제사가 축제가 아니고 숙제라면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문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제사를 축제로 만들어야 비로소 제사가 이 시대에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2018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아울러 남녀 간의 양성평등은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가족문화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어 핵가족화의 시대를 거쳐 가족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원은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편모 편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일상은 소유의 개념에서 존재의 개념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으며, 삶에 있어서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주 5일제 시행, 선택적 노동 시간 조정 등으로 인해 노동중심 사회에서 여가중심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혼밥족’, ‘혼술족’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사문화는 존속할 이유가 있는가?

Ⅲ. 제사문화 부활을 위한 제언

모든 문화는 탄생과 성장, 변화와 쇠퇴, 때로는 종말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것은 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며 한국의 제사 문화 역시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형이나 종말이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것은 제사를 옹호하던 비판하던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법적으로 제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가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례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 가족의 해체로 형제들끼리 일 년에 한두 번 모이기도 힘든 현실이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신 집에서는 더욱 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사촌끼리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고, 큰 경조사에 잠깐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의 유대감을 갖는 정도이다. 물론 핵가족화 시대에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친족을 통해 얻는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의 미숙마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문화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로 존립해 온 제사문화에 대하여 집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만남, 서로 갈등하지 않는 만남, 유대감을 통한 안정감, 강요하지 않는 관계, 서로 협동하여 치루는 의식이라면 제사는 가족의 축제가 될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의례(ritual)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문화이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같이하는 식탁의 의례도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고, 약수터에 일요일 아침 가족이 함께 가는 의례도 행복의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위한 의례라면 차라리 폐지되는 것이 낫다. 이제 제례 문화의 몇 가지 요소의 변화를 통해 제사 의례가 모두가 행복한 의례로 남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제사의 의미

제사는 더 이상 죽은 자의 혼령에게 음식을 올리고 혼령은 그 대가로 복을 주는 의식이 아니다. 제사문화 속에서 '영혼'이라는 관념이 탈락되어야 한다. 물론 제사를 통해 조상이 복을 줄 것이라는 종교적인 믿음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혼령과 산 자의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제사문화가 유지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제사는 산 자들의 축제이며, 조상에 대한 기억과 추모이며, 세대 간의 화합과 형제간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제사의 결과는 아무 탈 없이 가정이 잘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기>에도 제사의 목표는 순조로운 집안의 운영이라고 말하고 있다.⁹⁾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의례에서 보여 지는 수많은 미신들, 젓가락을 두들겨 음식에 올리는 행위¹⁰⁾, 조상님 오시기 편하라고 문을 열어 놓은 의식, 오시다가 걸려 넘

어지지 마시라고 빨래 줄을 치우거나, 귀신은 마늘이나 양념을 싫어하니 간을 세게 하지 않는다는 습관, ‘치’자는 ‘어리다’, ‘유치하다’는 뜻의 ‘치(稚)’와 같으니 콩치, 갈치 같은 ‘치’자 들어가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금기 등 미신적 요소를 모두 벗어던져야 비로소 제사는 산자들의 모여 죽은 자를 기억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모와 기억의 의례가 될 것이다.¹¹⁾ 제삿날 엄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여 어린 아이들의 웃음조차도 주의를 주는 행위 역시 제사문화를 빨리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제는 시끌벅적한 것이다. 향냄새에 어두운 조명에 엄숙한 분위기까지 더하면 제사는 숨 막히는 의례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축제가 형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형식이 본질을 이겼을 때 의례는 본말이 전도되어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제삿날에는 제발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취직이 힘들어 고전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취직을 빨리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미혼 조카에게 결혼을 강조하고 강요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제사는 더 이상 축제가 되지 못한다.

9) 현명한 자의 제사는 반드시 그 보답으로 복을 받지만 그 복은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다. 복이라는 것은 ‘갖추었다는 것[備]’이다. 갖추는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順]’을 말한다. 순조롭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갖추어 졌다[備]라고 말한다. 현자는 안으로는 자기의 성의를 다하고 밖으로는 도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충신은 그것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효자는 그것으로써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 근본은 하나이다. 위로는 귀신에게 순종하고 밖으로는 임금과 어른에게 순종하며 안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니 이와 같으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한다. 오직 현자라야 모든 것을 갖출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갖춘 뒤에야 비로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이런 까닭에 현자가 제사 지낼 때 예는 정성[誠]과 믿음[信]을 다하고 충성[忠]과 공경[敬]을 다하여 제물로써 받들고 예로써 진행하고 음식으로써 편안하게 위로 하고 때맞추어 참여하여 정결하게 제수를 올릴 뿐이요,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으니 이것이 효자의 마음이다. 賢者之祭也 必受其福 非世所謂福也 福者備也 備者百順之名也 無所不順者之謂備言 內盡於己而外順於道也 忠臣以事其君 孝子以事其親 其本一也 上則順於鬼神 外則順於君長 內則以孝於親 如此之謂備 唯賢者能備 能備然後能祭 是故賢者之祭也 致其誠信與其忠敬 奉之以物 道之以禮 安之以樂 參之以時 明薦之而已矣 不求其爲 此孝子之心也. <禮記> 「祭統」

- 10) 돌아가신 조상은 귀신이 되어 귀가 안 들릴 것이니 젓가락을 상에 두들겨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11) 조상제사를 조상에 대한 기억의 의례화는 결국 나의 출생에 대한 긍정과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 인간의 출생은 지극히 생물학적인 행위에서 비롯하지만 가족과 사랑이란 테두리 내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기억 된다. 제사는 이러한 의미를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사는 치유의 공간이다. 제사는 세대 간의 대화이다. 그런데 그 대화는 일방적이다.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성장하고 성장한 아들과 노년의 아버지 사이에 대화는 서늘하고 돌아가신 부모는 말이 없는데 자식들은 분주히 제사를 지낸다. 흔히들 ‘살아계실 때 잘 봉양하는 것’이 효의 지름길 일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에는 늘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은 불행한 가정사에서 비롯하기도 하고 미처 알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 잘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사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의례적 공간에서 회복하여 다하지 못한 감사를 표출하는 시간이 된다. 이러한 감사는 내 삶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제사는 산자를 위한 공간이다. 이는 제사가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가족의 경험을 형성하고 전승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제사가 보여주는 보본반시의 이념은 현실이 아니다. 가족이란 공간이 행복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희망일 뿐인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제사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이를 실현시키려는 공간이다. 현재 같이 있음이 내일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남의 순간을 불통과 불화의 시간이 아니라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는 유지되면서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감정은 기쁨이고 아쉬움이며 혹은 원망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는 기쁨의 재연이고 원망을 닦아내고 아쉬움을 채우는 시간인 것이다. 이 기억과 추모의 장이, 내 가족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사는 내가 태어난 곳을 바라보는 곳이면서 동시에 내가 나아갈 곳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상 제사의 의미와 기억의 의례화> 이육, 한국국학연구 19, 2011년

제사는 누가 누구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는 든든한 화합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정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평소에 조카들을 만나서 카운슬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낫다. 평소에 있던 불만은 제사라는 공간에서 털어놓아서 안 된다. 축제 때에 서운함을 이야기 한다면 그 축제는 더 이상 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제사의 대상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사람 중에 우리 집은 4대 봉사를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하면 모두 8분이다. 그러나 어디 8분뿐이랴? 고조할머니는 늘 두 분 정도이고, 증조할머니도 두 분이다. 그러니 모두 합치면 10분 정도 된다. 거기에 추석과 설날을 합치면 일 년에 12번 정도의 제사를 지내야 4대 봉사가 가능한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정말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정말 의무감과 자공심에 12번의 제사를 묵묵히 도맡아 해 내는 맏며느리라면 훌륭한 가문이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가 맏며느리와 생각이 같다는 법이 없다. 결국 며느리끼리 비교가 이루어지고, 가족의 화합은 물 건너간다. 직장 다니며 열심히 사는 며느리에게 제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한 마디 하면 이미 제사의 축제는 끝난 것이다. 제사의 대상은 당연 줄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사를 하늘처럼 여기고 국법으로 정하던 조선 시대에도 평민들의 제사 대상은 부모, 두 분 뿐이다. 그 이상 지내면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고 엄청난 인력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물론 물질적 재정이 확보된 상류층은 더 많은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기반으로 한 허용이었다.

갑오경장 이후 제사의 대상이 더 이상 법으로 규제되지 않으면서 양반에 대한 콤플렉스로 4대 봉사(奉祀)라는 제사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4대 봉사를 하되 회수를 줄이는 것을 제안한다. 기제사는 부모를 합사하여 한 번 지내고, 고조부모 포함한 나머지 조상들은 명절에 함께 지낸다면 일 년에 3번 정도의 제사 의례가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 역시 가족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한다. 부모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부모에게서 함께 자란 형제들은 혈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부모의 기억을 공유한 축제를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가능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일을 분리하여 일 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내고, 명절 날 합사하여 공동 제사를 지낸다면 분기에 한 번, 일 년에 총 4번의 가족 모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3. 제사의 공간

조상의 제사를 가정에서 지내게 된 것은 조선왕조에 들어서이다.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의 조상 제사는 불교 사원에서 대행하였으며 조선시대 들어서 가정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요즘 가정의 제사는 거실이나 방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절의 제사는 많은 가정이 휴일을 이용하여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떠냐고 묻기도 한다. 과연 제사는 반드시 큰 아들의 집 마루에서 지내야 하는가? 그 곳이 휴가지이든, 산소이든, 납골당이든 조상을 추모하는 대상들이 모여서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제사는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결정 역시 제사를 지내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옳은 공간은 없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가정에서 지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명절 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축제하듯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한다면 그것이 전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제사의 주체

제사는 맏아들이 반드시 주관하여 지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은 명확하다. 고려시대에는 딸이 부모의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고, 조선 시대 형제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율곡 선생은 외조모의 제사를 직접 주관하여 지내기도 하였다.¹²⁾ 맏아들이 반드시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속과 관련이 있다. 부모의 제사를 전담하고, 가족 구성원의 경제력을 평준화하라는 임무를 띠고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제가(齊家)’의 목표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속법은 자녀들이 똑같이 공유한다. 그러니 상속을 이유로 맏아들이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명분도 없는 것이다. 다만 맏아들이 수궁하고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조상제사를 주관한다면, 나아가 맡겨드리 역시 제사의 주관에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윤희봉사도 제사의 전통 중에 하나이다. 제사를 지내는 주체의 재정적 문제와 노동의 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희(輪廻)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자녀들이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제사를 주관한다면 제사를 주관하는 피해의식이 줄어들 수 있다. 요즘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가정도 많이 있다. 시집 부모의 제사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의 제사도 공평하게 지내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 고려 시대에만 해도 딸이 친정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윤희 봉사’라 하여 형제자매가 돌아가며 제사를 주관하는 것도 가능했다. 당시에는 집이 아닌 절에서 제사를 지냈으므로, 승려가 의식을 주관하고 자식들은 불공을 드리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었다. 이같은 제사 풍속에서는 아들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딸이 죽은 뒤에는 외손주가 제사를 계승했다(〈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5. 제사의 음식

제사를 준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수(祭需)이다.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처리하는 과정이 제사에서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성은 늘 제수를 장만하는 주체였다. 술을 담그고,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모든 과정에 여성들은 강도 높은 노동을 전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만 그 노동을 감당하게 한다면 더 이상 제사는 축제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남자들이 나서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평소에 요리에 단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제수 준비에 대하여 소탈하게 논의해야 한다. 여성 참여자들이 서로 분담하여 제수를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터부시 되었던 기성 제수음식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다. 제수 음식은 조상의 영혼을 전제로 만들 이유는 없다는 것을 위에서 밝혔다. 살아 있는 자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면 조상들도 기뻐하실 것이다. 제수는 지역과 가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어느 지역에서는 상어를 요리하여 올리기도 하고, 굴비나 문어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한다. 모두 조상들이 잘 드시고 익숙하던 음식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제수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상 가장 앞줄에 놓이는 음식이다. 일명 디저트 라인이다. 홍동백서(紅東白西), 해가 뜨는 동쪽에 붉은 디저트를 놓고, 해가 지는 서쪽에 하얀 색 디저트를 놓자는 논리다. 대추, 밤, 배, 감 등의 순서로 놓는 조율이시(棗栗梨柿), 동쪽은 대추 서쪽은 밤을 놓자는 동조서율(東棗西栗)에 이르기 까지 집집마다 제각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옳다. 그 시절 가장 맛있고 많이 나는 과일을 올리면 된다. 그것을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이렇게 놓아야 한다는 것은 제사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동바나나 서파인애플이든, 조상이 좋아하고 자손들도 좋아하는 디저트를 놓으면 된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놓음으로써 아이들이 제사에 대한 축제 분위기를 고무시키기도 한다하니 음식 때문에 즐거운 축제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한국의 제사 문화는 시대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양성 평등의 가치관에 갈등을 유발하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제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제사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사 보다는 가족 모임으로 그 정신을 대체하는 가정도 있다. 전통은 한계에 다다르면 변해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문화다양성 시대에 제사문화를 고민하면서 제사문화 변화의 방향을 고민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제사는 가정의례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祭祀)의 본래 의미인 축제(祝祭)로서의 의례로 변통해야 할 것이다. <논어>에 제례에 관한 공자의 이야기 중에 ‘제여재(祭如在)’란 말이 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마치 앞에 계신 듯이 지내라는 것이다. ‘계신 듯이’ 라는 것은 ‘안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비록 죽음 통해 존재하지 않지만 조상을 추모할 때는 그 분들이 앞에 계시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상상해 보라! 그 앞에서 어떻게 가족 간에 싸울 수 있을 것이며,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전담하게 할 수 있겠는가?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함께 먹고, 서로 술 한 잔 주고받으면서 가족모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사가 아름다운 축제가 된다.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 함께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이번에는 시집 간 딸이 부모님을 기억하는 축제를 여는 것도 아름다운 의식이다. 이제 제사는 근거도 없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혼령을 모셔놓고, 복을 달라고 구걸하고, 각종 터부에 근거 없는 미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가족 간에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제삿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설레던 기억, 그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고,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축제는 오래도록 이어졌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애잔함이 있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인간의 시대이다. 미신의 철학은 가고 합리적인 철학의 시대이다. 소유의 시대는 가고 경험의 시대이다. 일 년에 몇 번 열리는 가족의 축제, 그곳에 세대 간에 문화가 흐르고, 소통과 화합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이해와 용서의 관용이 있어야 한다. 조상을 통해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의 내면에 세상에 나 홀로 외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쁨의 희열이 느껴져야 한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공자의 이 한 마디는 제사가 결국 망자를 핑계로 한 산 잔의 축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준다. 살아 있는 사람을 서로 섬기게 만드는 부모님의 마지막 배려가 바로 제사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복승, 「中韓 유교식 조상제사의 비교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2001.
- 박병구,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송호근, 「조상숭배의 나라」, 중앙일보 칼럼, 2010. 09. 27.
- 이배용,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9.
- 이 욱,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16, 2002.
- 이 욱, 「조상 제사의 의미와 기억의 의례화」, 『국학연구』 19, 2011, 한국국학진흥원.
- 장정호, 「유가 예교의 기원 : 제사와 예속」, 『교육사학연구』 14, 2004.
- 제주의소리, 2016. 8. 11. 기사.
- 최규홍, 「유교(儒敎) 제례(祭禮)의 본질적(本質的) 의미(意味)와 현대적(現代的) 의의(意義) -조상제사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85, 2016.

경기 불천위 제사의 특징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계승 방안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I. 경기 불천위 제사의 연구 배경과 목적
- II.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 현황과 실태 분석
- III. 불천위 제사의 법고(法古) 논의와 창신(創新)의 정향
- IV.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 과제와 공동체 문화 자원화 방안

경기 불천위 제사의 특징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계승 방안

최종호*

I. 경기 불천위 제사의 연구 배경과 목적

이 글은 경기 불천위 제사의 특징을 밝히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계승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경기 불천위 제사의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불천위 제사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경기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권을 조사하여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불천위 제사의 법고(法古)에 대한 논의와 창신(創新)의 방향을 탐구하고,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 과제와 공동체 문화 자원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09년~2015년까지 경기도내 300여 불천위(不遷位) 문중 중 144위 선현 종가를 방문 조사하여 그 내용을 시·군별 가나다순으로 수록한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권을 1질로 발간하여 불천위 문중과 종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¹⁾ 이를 통해 우리나라 불천위 문중이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도시화, 현대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불천위 제사 등의 전통문화 전승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894년 7월부터 이루어진 갑오경장 이전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정해진 4대 봉사(奉祀)는 현재 전통 관념의 약화, 도시화, 종교식 제사의 보편화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기제(忌祭)를 모아서 지내는 합사(合祀)가 보편화 되고 있고, 가족해체, 경제적인 형편 등으로 제례(祭禮)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경기 불천위 종가의 제사문화 실태를 분석하고, 불천위 제사의 지속 가능한 전수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제사의식의 정착과 현대인의 삶에 어울리는 창의적 제사문화의 수용, 이와 관련된 불천위 제사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5, 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3쪽

불천위 제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논저와 조사보고서를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불천위 제사(제례)의 규범과 인식,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논저와 조사보고서를 정리하면, 이경아(1981)²⁾의 「제례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의 의미 분석 - 진성이씨 불천위 제례의 경우」와 김영순(1999)³⁾의 「불천위 제사의 집사분정에 나타나는 종법체계와 연령의식」, 강희정(1999)⁴⁾의 「불천위 제사집단의 인식변화와 제일(祭日)의 양력화」, 김영순(2003)⁵⁾의 「안동지역 불천위 제사의 규범과 종가의 관행적 제사」, 이연숙(2007)⁶⁾의 양반마을의 문중의례와 종족의식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예안이씨의 사례」, 김미영(2007)⁷⁾의 「조상제례의 변화와 정체성 지속에 관한 연구 - 안동지역 불천위 종가를 중심으로」, 김미영(2008)⁸⁾의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밀상성」, 류춘규(2009)⁹⁾의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 - 경북지역 종가를 중심으로」, 안동대 민속학연구소(1999)¹⁰⁾의 『제사와 문화』, 안동민속박물관(2001)¹¹⁾의 『안동의 제사』, 국립민속박물관(2003)¹²⁾의 『한국의 제사』, 경기학연구센터(2015)¹³⁾의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불천위 제사(제례)의 제물과 진설, 제수문화에 대한 연구논저와 조사보고서를 정리하면, 김미영(2006)¹⁴⁾의 「조상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 - 안동지역 불천위제사의 제물과 진설을 중심으로」, 주영하(2008)¹⁵⁾의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종가음식의 가치」, 김귀영 외(2015)¹⁶⁾의 「상주지역의 불천위제사 제수문화에 관한 연구」, 이현진 외(2016)¹⁷⁾의 호남지역 종가 불

- 2) 이경아, 1981, 「제례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의 의미 분석 - 진성이씨 불천위제례의 경우」(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1~42쪽
- 3) 김영순, 1999, 「불천위 제사의 집사분정에 나타나는 종법체계와 연령의식」, 『제사와 문화』(민속학연구소 논문집 9), 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43~298쪽
- 4) 강희정, 1999, 「불천위 제사집단의 인식변화와 제일(祭日)의 양력화」, 『제사와 문화』(민속학연구소 논문집 9), 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99~327쪽
- 5) 김영순, 2003, 「안동지역 불천위 제사의 규범과 종가의 관행적 제사」, 『실천민속학연구』 5, 323~358쪽
- 6) 이연숙, 2011, 「양반마을의 문중의례와 종족의식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예안이씨의 사례」, 『사회와 역사』 75, 5~38쪽
- 7) 김미영, 2007, 「조상제례의 변화와 정체성 지속에 관한 연구 - 안동지역 불천위 종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 271~301쪽
- 8) 김미영, 2008,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밀상성」, 『비교민속학』 35, 서울: 비교민속학회, 509~540쪽
- 9) 류춘규, 2009,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 - 경북지역 종가를 중심으로」(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33쪽
- 10)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제사와 문화』(민속학연구소 논문집 9), 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344쪽
- 11) 안동민속박물관, 2001, 『안동의 제사』,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259~373쪽
- 12)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88~251쪽
- 13)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 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 14) 김미영, 2006, 「조상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 - 안동지역 불천위제사의 제물과 진설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 문화』 9(1), 319~379쪽
- 15) 주영하, 2011,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종가음식의 가치」,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2쪽
- 16) 김귀영, 김보람, 박보라, 2015, 「상주지역의 불천위제사 제수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5(5), 739~751쪽

천위 제례 상차림 연구, 김미영(2008)¹⁸의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류춘규(2009)¹⁹의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 - 경북지역 종가를 중심으로」, 안동대 민속학연구소(1999)²⁰의 『제사와 문화』, 안동민속박물관(2001)²¹의 『안동의 제사』, 국립민속박물관(2003)²²의 『한국의 제사』, 경기학연구센터(2015)²³의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 등이 있다.

불천위 제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논저와 조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상의 삶에서 공동체보다 공동체 성원 중심의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중심 사회에서 여가소비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로 인터넷의 발달과 IMF 경제위기 등으로 사회문화가 바뀔으로써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중심의 새로운 사회관계망(SNS)이 형성되고 있어 개인주의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 인식과 의미 부여, 중요성 공감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제사문화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제사의 의례적 성격보다 가족모임 성격이 짙어지고 있고, 의례를 위한 제사음식이 문화상품화를 통해 일상음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의 신앙과 연계해서 제사를 종교의례로 대체하거나 제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의례와 지역축제가 결합되어 역사인물을 숭상하는 축제가 많아지고 있고, 제사 전통을 유지하려는 구세대(1960년대 베이비 부머 이전)와 제사문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신세대간(1990년대 출생 이후)의 갈등이 명절증후군 발생과 제사의 간소화 또는 가족 해체주의 양상의 제례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직시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성원 중심의 제사문화를 탐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17) 이현진, 서혜숙, 송은숙, 이윤희, 정혜정, 2016, 「호남지역 종가 불천위 제례 상차림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6~166쪽

18) 김미영, 2008,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비교민속학』35, 서울: 비교민속학회, 509~540쪽

19) 류춘규, 2009,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 - 경북지역 종가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33쪽

20)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제사와 문화』 (민속학연구소 논문집 9), 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344쪽

21) 안동민속박물관, 2001, 『안동의 제사』,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259~373쪽

22)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88~251쪽

23)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 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II.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 현황과 실태 분석

1. 오리 이원의 선생 불천위 제사 전승 사례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권을 1질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주관하여 2009년에 전 경기도박물관장 강대욱 선생과 광주시향토연구소 박광운 소장이 기틀을 놓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동양문화연구소 이상만 선생이 담당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상대영 선생이 담당하여 경기도내 300여 불천위(不遷位) 문중 중 144위 선현 종가를 방문 조사하여 기록한 조사보고서를 울곡연구원 최호 부원장이 감수하였으며, 성남시 세거문중협의회 한동익 선생과 고양향교 선호술 선생의 조언과 협력으로 2015년 발간하였다.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의 일러두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 “- 『경기도 불천위』는 5권 1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는 시·군별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음.
- 흘기와 축식은 종가와 문중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내용은 문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수록함. 번역되지 않은 흘기와 축식은 별도 해석함.
- 제향의 진설도는 종가와 문중에서 제공한 자료를 도면화하거나 현장답사에서 기록 후 진설사진과의 대조를 통해 작성함.
- 제수의 준비와 음복절차, 제사 참석자, 종가, 입향 유래, 집성현황에 대한 내용은 종손과 문중 후손들을 면담하여 수록함.
- 게재된 사진은 행례, 위패, 사당, 종가, 묘역, 후손 등 중요 부분을 수록하여 해당 불천위 종가와 문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국한문 혼용을 기본으로 하여 고유명사나 전문용어, 인명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한글을 사용함”²⁴⁾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의 편집후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성씨를 대표하는 대종회와 종손·종부님, 문중 후손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종가 방문을 통해 불천위 성립의 배경, 종가의 현황, 입향(入鄕)유래, 현재의 씨족 현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사 참관을 통하여 제사의 시일(時日), 흘기(笏記), 축식(祝式), 진설, 헌례(獻禮)의 담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²⁵⁾

24)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5, 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3쪽

25)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68쪽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경기도 불천위』 발간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한반도 역사 천년의 중심처로 국학이 태동하고 발전한 곳이며, 국가의 근본지지(根本之地)입니다. 또한 사림의 거점으로 성리학과 양명학, 실학을 비롯한 한국유교문화의 본산이었으며, 당대의 명현(名賢)과 석유(碩儒)를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이 배출되어 활동한 지역입니다.”²⁶⁾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편집후기에 경기학연구센터 윤여빈 선생은 “불천위(不遷位)는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입니다. ... 불천위가 모셔진 사당인 부조묘는 문중의 의례공간이자 상징적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불천위 제사는 가문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통 사회의 구조와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원천자료입니다.”²⁷⁾라고 하였다.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권 중에 발표자가 경기 불천위 제사의 특징과 법고창신의 계승 방안에 사례로 선정한 보고서 자료는 각권에서 영남, 호서, 호남 지역의 불천위 제사 논저와 비교 연구에 좋은 사례를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권에 기록된 문충공 이원익 선생은 “영의정 때 대동법 시행제목을 작성하여 대동법 실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결국 이 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으며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선조조에 류성룡과 함께 청백리로 녹선되었으며 문장에 뛰어났고 남인(南人) 계열에 속하였지만 원만한 성품으로 정적(政敵)들로부터도 호감을 받았다고 한다.”²⁸⁾ 1651년(효종 2) 6월 인조의 묘정에 이원익을 배향한다는 교서가 내려졌다. 오리 이원익 선생이 세상을 뜬 지 10년 후인 1644년(인조 22)에 윤휘(尹暉)의 발의로 1651년 6월에 문충공 시호를 받으면서 부조묘가 되었다.

문충공 이원익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다음과 같이 전승되고 있다.

“1693년(숙종 19) 건립된 종가의 사당에서 선생의 영정을 모신다. 보통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일반적인 사당과 달리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영당제(影堂祭)의 공간이다.

이원익 선생 종가의 제사는 음력 10월 24일인데 계절에 따라 음식 맛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백자와 유기, 목제기를 사용하고, 손돌추위(음력 10월 20일)에 우물물을 떠서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또한 비가 오면 관감당(觀感堂)에서 영우를 향해 제물을 차려놓고 묘제를 대신했다고 한다.

26)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쪽

27)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68쪽

28)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218쪽

보통제사에도 제물의 고임새는 관감당에서 준비해 새벽에 영우로 옮겨 진설하였다.

지금의 종사는 복잡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제사 절차는 생략하고 간소화 하였으며 대신 매년 5월 광명시와 함께 한식날 헌다식(獻茶式)을 개최하고 있다.”²⁹⁾

2. 율곡 이이 선생 불천위 제사 전승 사례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4권에 기록된 문성공 이이 선생은 “정치만 일삼지 않고 늘 사색하고 연구실천하는 학자적 양심의 표본이었다.”³⁰⁾ 1615년(광해군 7년)에 율곡 선생의 문하생 사계 김장생 등의 공의로 고향 파주 동문리에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1624년(인조 2)에 문성(文成)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문성사(文成祠)에서 불천위 제례를 명하였다. 인조 때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배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1649년(효종 즉위년)에 효종이 사액을 내려 자운서원(慈雲書院)이라 하였다. 1682년(숙종 8)에 우계 성혼과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가 기사환국으로 출향되었고, 갑술환국으로 문묘에 다시 종향되었다.

문성공 이이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다음과 같이 전승되고 있다.

“원래 종갓집인 황해도 벽성군 고산면 석담리에서 기제사를 지내왔으나, 광복 후에 당시의 종손인 이재능이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이이 선생의 신주만을 모시고 왔다.

현재는 아들 이천용 종손 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아파트에서 매년 음력 정월 16일 저녁 7시에 문중인사와 사회저명 인사, 유림 대표들이 모여 기제사를 지낸다.”³¹⁾

〈율곡 선생 기제사 출기〉

“○ 지금부터 율곡 선생님의 제○○○주기 불천지위 추모제를 봉행하겠습니다.

- 獻官 以下 各就位 (헌관 이하 각취위)

헌관 이하 각기 자리로 가시오.

- 諸執事 詣盥洗位 盥手 帨手 (제집사 예관세위 관수세수)

집사들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初獻官 詣盥洗位 盥手 帨手 (초헌관 예관세위 관수세수)

초헌관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初獻官 詣祠堂 紼立 (초헌관 예사당서립)

초헌관은 사당에 가서 서시오.

29)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224쪽

30)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4, 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454쪽

31)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54쪽

- 焚香 (분향)
분향하시오.
- 再拜 (재배)
재배하시오
- 讀祝 (독축)
축문을 읽으시오.
- 再拜 (재배)
재배하시오.
- 奉神主出 就廳事 (봉신주출 취청사)
신주를 받들고 나와 청사로 가시오.
- 奉主就位 (봉주취위)
신주를 받들어 제자리에 두시오.
- 初獻啓櫝(초헌 계독)
초헌관은 함을 여시오.
- 初獻 以下 皆參神 再拜
(초헌 이하 개참신 재배)
초헌관 이하 모두 참신하고 재배하시오.
- 焚香 (분향)
분향하시오.
- 再拜 (재배)
재배하시오.
- 降神 (강신)
강신하시오.
- 再拜 (재배)
재배하시오.
- 奠肉魚 (진육어)
육적과 어적을 올리시오.
- 麵餅 (면병)
면과 떡을 올리시오.
- 飯羹湯 (반갱탕)
밥, 국, 탕을 올리시오.
- ◎ 行初獻禮 (행초헌례) :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初獻 詣香案前跪 (초헌 예향안전궤)
초헌은 향안 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 去羃酌酒 (거떡작주)

덮개를 벗기고 술을 따르시오.

○ 奠爵 (전작)

술을 올리시오.

○ 祭酒 三祭茅上 (제주 삼제모상)

제주를 세 번 모사 위에 부으시오.

○ 俯伏 (부복)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오.

○ 奠炙 (전적)

적을 올리시오.

○ 啓飯盖 (계반개)

밥뚜껑을 여시오.

○ 諸執事 以下 皆俯伏 (제집사 이하 개부복)

집사 이하는 모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오.

○ 祝跪 初獻之左 讀祝 (축귀 초헌지좌 독축)

축관은 초헌관의 왼쪽에 무릎 꿇고 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初獻 再拜 (초헌 재배)

초헌관은 재배하시오.

○ 因降復位 (인강복위)

그러고 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撤酒 撤炙 置盞故處 (철주 철적 치잔고처)

술과 구이를 거두고서 술잔을 원래 있던 곳에 놓아두시오.

◎ 行亞獻禮 (행아헌례) :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亞獻官 詣盥洗位 盥手 帨手 (아헌관 예관세위 관수세수)

아헌관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因詣香案前跪 (인예향안전귀)

그러고 나서 향안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 去罍酌酒 (거맥작주)

덮개를 벗기고 술을 따르시오.

○ 奠爵 (전작)

술을 올리시오.

○ 俯伏 (부복)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오.

○ 奠炙 (전적)

적을 올리시오.

○ 亞獻 再拜 (아헌 재배)

- 아헌관은 재배하시오.
- 因降復位 (인강복위)
그리고 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撤酒 撤爇 置盞故處 (철주 철적 치잔고처)
술과 구이를 거두고서 술잔을 원래 있던 곳에 놓아두시오.
 - ◎ 行終獻禮 (행종헌례) :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終獻官 詣盥洗位 盥手 帨手 (종헌관 예관세위 관수세수)
종헌관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因詣香案前跪 (인예향안전궐)
그리고 나서 향안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 去冪酌酒 (거막작주)
덮개를 벗기고 술을 따르시오.
 - 奠爵 (전작)
술을 올리시오.
 - 俯伏 (부복)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오.
 - 奠爇 (전적)
적을 올리시오.
 - 終獻 再拜 (종헌 재배)
종헌관은 재배하시오.
 - 因降復位 (인강복위)
그리고 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侑食 (유식)
음식을 권하시오.
 - 初獻官 香案前跪 (초헌관 향안전궐)
초헌관은 향안 전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 添酒 (침주)
첨작하시오.
 - 挿匙 正箸 (삽시 정저)
손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시오.
 - 再拜 (재배)
재배하시오.
 - 闔門 (합문)
문을 닫으시오.
 - 肅俟 小頃 (숙사 소경)

- 잠시동안 조용히 기다리시오.
- 啓門 (계문)
문을 여시오.
 - 撤羹 進茶 (철갱 진다)
국을 물리고 차를 올리시오.
 - 下匙筋(하시저)
수저를 내려놓으시오.
 - 闔飯盖 (합반개)
밥뚜껑을 닫으시오.
 - 初獻 以下 皆辭神 再拜 (초헌 이하 개사신 재배)
초헌관 이하 모두 신을 보내며 재배하시오.
 - 祝 焚祝 (축 분축)
축관은 축문을 태우시오.
 - 初獻 奉神主 (초헌 봉신주)
초헌관은 신주를 받드시오.
 - 奉歸 祠堂 納主 (봉귀 사당 납주)
신주를 받들어 사당으로 가서 안으로 들이시오.
 - 撤饌 (철찬)
음식을 거두시오.
 - 諸執事 以次退 (제집사 이차퇴)
집사들은 차례로 나가시오.
 - 禮畢 (예필)
의례를 마칩니다.
 - ◎ 行飲福禮 (행음복례) : 음복례를 행하겠습니다.
 - 祀社既成 (사사기성)
제사를 마쳤으니
 - 祖考嘉饗 (조고가향)
조고께서 즐거이 흠향하셨으리.
 - 伏願僉親 (복원첨친)
바라건대 모든 친척이
 - 備膺五福 (비응오복)
오복을 받아서
 - 保族宜家 (보족의가)
가족을 지키고 화목하여
 - 永世承孫 (영세승손)

영원히 자손을 이어가리.”³²⁾

율곡 선생 기제사 진설법은 단설(單設)로 선조고(先祖考)와 선조비(先祖妣) 신위 두 분 앞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나란히 두 번 진설한다. 율곡 선생 기제사 제물 진설은 집안 어른들이 하던 대로 5열은 왼편부터 조율이시(棗栗梨柿), 4열은 좌포우혜(左脯右醢), 3열은 우돈계어소(牛豚鷄魚蔬) 5탕(湯), 2열은 좌면우적(左麵右炙), 1열은 좌반우羹(左飯右羹)으로 진설한다. 율곡 선생 기제사 진설법은 단설로 선조고와 선조비 신위 앞에 똑같이 진설한다.

〈그림 1〉 율곡 선생 기제사 진설도(陳設圖)³³⁾



〈율곡 선생 기제사 축문(祝文)〉

“維 歲次 (干支) 正月 (干支)朔 十六日 (干支) 孝玄孫 天鏞 敢昭告于
 유 세차 (간지) 정월 (간지)삭 십육일 (간지) 효현손 천용 감소고우

32)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55~461쪽

33)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61쪽 - 발표자 주석: 신위의 조고(祖考) 신위(神位)는 단설(單設)이고, 제사상 5열 좌측 포(脯)는 조(棗)의 오자(誤字) 표기임을 밝힌다.

顯先祖考 贈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行 崇政大夫 議政府右贊成 兼 知經筵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總府都總管 諡 文成公 府君

현선조고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행 승정대부 의정부우찬성 겸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시 문성공 부군

顯先祖妣 貞敬夫人 盧氏

현선조비 정경부인 노씨

歲序遷易 顯先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세서천역 현선조고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현 상 향

<풀이>

이제 ○○년 음력 정월 16일 효현손 천용이 삼가 아뢰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예문 관춘추관 관상감사 세자 사 행 승정대부 의정부우찬성 겸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 총관 시호 문성공 부군

돌아가신 정경부인 노씨 할머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계절이 변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왔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크고 넓으신 은덕을 잊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공경히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³⁴⁾

율곡 선생 불천위 제사는 다음과 같이 전승되고 있다.³⁵⁾

2015년 현재 덕수 이씨 대종회는 이종석 회장이 맡아 종인과 함께 종중의 대소사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매년 문성공 기제사 때가 오면 3일 전부터 주로 종손과 종부가 주관해서 종인들과 함께 감실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 뒤 제수를 정성들여 준비한다.

제수 구입은 이천용 종손과 종부가 일괄 구입하여 장만한다. 제수는 보통 1~2명의 종친이 함께 도와서 준비하고 당일 참석자가 함께 음복할 수 있도록 장만한다.

종손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병풍을 치고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준비한다.

예로부터 문성공 종손이 초헌관을 맡아 왔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대종중 회장과 소종중 회장에 게 맡기고 첨잔은 초헌관이 올린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율곡 이이 선생의 불천위 제사를 마치면 음복을 하는 데 초헌관부

34)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62쪽

35)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64쪽

터 차례로 제주를 맞보고 제관들은 종손 아파트의 내실에서 참례자 전원이 함께 음복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의 생애와 공덕을 기린다.

율곡 선생 불천위 제사의 참석인원은 각 지역에서 오는 데 대개 60명 내외이다.

덕수 이씨 문성공 후손들은 이북에서 월남한 이래 2015년 현재 경기도 내에 약 50가구가 살고 있다. 자운서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를 중심으로 종친들이 세거하고 있다.

자운서원의 기념관에는 율곡 선생과 어머니 신사임당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인근에 율곡교 원연수원도 있다. 자운서원이 있는 감악산·자운산 자락에 율곡 선생 묘와 신사임당 묘 등이 위치해 있다.

이곳 율곡 이씨 유적에서 매년 9월에 율곡문화제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3. 문정공 김육 선생 불천위 제사 전승 사례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2권에 기록된 “(문정공) 김육 선생은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필생의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부친의 유명을 받아 가문을 일으킴으로써 실제로 그의 집안은 조선후기 명문 반열에 올랐다. (김육 선생의 아들) 김좌명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1676년(숙종 2)에 조정에서 충숙(忠肅)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과 청릉부원군(淸陵府院君)에 추증하였으며, 현종 묘정에 배향함으로써 불천위 제향을 받들어 왔다. (김육 선생의 손자) 문충공 김석주 선생은 조부 김육 선생과 부친 김좌명 선생의 유덕을 계승하여 3대가 불천위 제향을 받드는 전무후무한 대업을 이루었다.”³⁶⁾

문정공 김육 선생과 충숙공 김좌명 선생, 문충공 김석주 선생의 3대가 불천위 제향을 받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³⁷⁾

1658년(효종 9)에 잠곡 김육 선생이 자택에서 운명하자 임금은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불천지위(不遷之位)를 명하여 애도를 표하였다. 문정공 김육의 위패는 양근의 미원서원(迷原書院)과 청풍의 봉강서원(鳳岡書院), 강동의 계몽서원(啓蒙書院), 개성의 송양서원(崧陽書院) 등에 배향되었고, 1704년(숙종 30)에는 가평의 선비들이 건립한 잠곡서원(潛谷書院)에 단독으로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받들어 왔다. 잠곡(潛谷)은 김육 선생의 아호이다.

귀계(귀천) 김좌명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1676년(숙종 2)에 조정에서 충숙(忠肅)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과 청릉부원군(淸陵府院君)에 추증하였으며, 현종 묘정에 배향함으로써 불천위 제향을 받들어 왔다.

36)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2, 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38쪽

37)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3~45쪽

식암 김석주 선생이 돌아간 지 6년 뒤 1689년(숙종 15)에는 생전에 받은 보사공신의 훈공을 삭제당하고 부원군의 작호도 빼앗겼으나, 1694년(숙종 20)에 임금의 특명으로 모든 작호가 복권되었다. 1694년에 숙종이 제사상을 하사하여 선생의 혼백을 위로한 이래 후손들과 선비들이 참여하는 불천위 제향을 대대로 받들어 오고 있다.

〈문정공 김육 선생, 충숙공 김좌명 선생, 문충공 김석주 선생 기제사 홀기〉

“지금부터 문정공(충숙공, 문충공) 선생의 제○○○주기 불천지위 추모제를 홀기에 따라 봉행하겠습니다.

- 獻官 以下 皆 序立 拜位 (헌관 이하 개 서립 배위)
헌관 이하 모두 배위에 나란히 서시오.
- 諸執事 盥洗位 盥手 帨手 (제집사 관세위 관수 세수)
제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닦으시오.
- ◎ 분향(焚香)
- 初獻官 詣 盥洗位 盥手 帨手 (초헌관 예 관세위 관수 세수)
초헌관은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고 닦으시오.
- 神位前 北向跪 三上香 (신위전 북향궐 삼상향)
신위전에서 북향해 무릎 꿇고 앉아 세 번 향을 사르시오.
- 初獻官 俯伏再拜 少退跪 (초헌관 부복재배 소퇴궐)
초헌관은 엎드려 재배하고 조금 물러나 무릎 꿇으시오.
- ◎ 참신(參神)
- 獻官以下 在位者 皆俯伏再拜 平身 (헌관 이하 재위자 개부복재배 평신)
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부복 재배하고 서시오.
- ◎ 강신(降神)
- 初獻官 進跪 跪執事 斟酒于降神盞盤 (초헌관 진궐 궐집사 짐주우강신잔반)
초헌관은 무릎을 꿇고 집사는 강신잔반에 술을 따르시오.
- 初獻官 茅沙上 三傾至盡 (초헌관 모사상 삼경지진)
초헌관은 모사 위에 세 번에 나누어 부으시오.
- 盞飯 還授 執事 置盞故處 (잔반 환수 집사 치잔고처)
집사는 빈 강신잔을 받아 제자리에 놓으시오.
- 獻官 俯伏再拜 平身 退降復位 (헌관 부복재배 평신 퇴강복위)
헌관은 엎드려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가시오.
- ◎ 행초헌례(行初獻禮) :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初獻官 詣 神位前 北向跪 (초헌관 예 신위전 북향궐)
초헌관은 신위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으시오.
- 左執事 進奉 考位前 盞盤 斟酒 (좌집사 진봉 고위전 잔반 짐주)

- 좌집사는 고위전 잔반을 받들어 술을 따르시오.
- 跪授獻官 以受執事 奉奠于故處 (궤수헌관 이수집사 봉전우고처)
헌관에 주어 올린 뒤 집사가 받아 놓으시오.
 - 右執事 次奉 配位前 盞盤 斟酒 (우집사 차봉 배위전 잔반 짐주)
우집사는 고위전 잔반을 받들어 술을 따르시오.
 - 跪授獻官 以受執事 奉奠于故處 (궤수헌관 이수집사 봉전우 고처)
헌관에 주어 올린 뒤 집사가 받아 놓으시오.
 - 左執事 考位前 盞盤 跪授獻官 (좌집사 고위전 잔반 궤수헌관)
좌집사는 고위전 잔반을 헌관에 주시오.
 - 三祭于茅沙上 以受執事 反奠于 考位前
(삼제우모사상 이수집사 반전우 고위전)
모사에 세 번 기울이고 집사에 주어 고위전에 올리시오.
 - 右執事 配位前 盞盤 跪授獻官 (우집사 배위전 잔반 궤수헌관)
우집사는 배위전 잔반을 헌관에 주시오.
 - 三祭于茅沙上 以受執事 反奠于 配位前
(삼제우 모사상 이수집사 반전우 배위전)
모사에 세 번 기울이고 집사에 주어 고위전에 올리시오.
 - 奠于進炙 (전우진적)
적을 올리시오.
 - 西柄正著 諸執事 仍降復位 (서병정저 제집사 잉강복위)
젓가락을 간추려 놓고 좌우집사는 내려오시오.
 - 祝禮初獻官之左 東向跪 讀祝 (축례 초헌관지좌 동향궤 독축)
축관은 초헌관 좌측에 나아가 동향하여 무릎 꿇고 축문을 읽으시오.
 - 獻官以下 在位者 皆 俯伏 訖祝 皆 平身
(헌관 이하 재위자 개 부복 흘축 개 평신)
초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엎드렸다가 독축이 끝나면 일어서시오.
 - 初獻官 大祝 俯伏再拜 平身 退降復位
(초헌관 대축 부복재배 평신 퇴강복위)
초헌관 대축은 엎드렸다가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가시오.
 - 執事 奉爵 他器撤酒 置盞故處 (집사 봉작 타기철주 치잔고처)
집사는 올린 술잔을 퇴주 그릇에 쏟고 제자리에 놓으시오.
 - ◎ 행아헌례(行亞獻禮) :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亞獻官 詣盥洗位 盥手 帨手 (아헌관 예관세위 관수 세수)
아헌관은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닦으시오.
 - 神位前 北向跪 (신위전 북향궤)

신위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으시오.

- 左執事 進奉 考位前 盞盤 斟酒 (좌집사 진봉 고위전 잔반 짐주)
좌집사는 고위전 잔반을 받들어 술을 따르시오.
- 跪授獻官 以受執事 奉奠于故處 (궐수헌관 이수집사 봉전우고처)
헌관에 주어 올린 뒤 집사가 받아 놓으시오.
- 右執事 次奉 配位前 盞盤 斟酒 (우집사 차봉 배위전 잔반 짐주)
우집사는 배위전 잔반을 받들어 술을 따르시오.
- 跪授獻官 以受執事 奉奠于故處 (궐수헌관 이수집사 봉전우고처)
헌관에 주어 올린 뒤 집사가 받아 놓으시오.
- 左執事 考位前 盞盤 跪授獻官 (좌집사 고위전 잔반 궐수헌관)
좌집사는 고위전 잔반을 헌관에 주시오.
- 三祭于茅沙上 以受執事 反奠于 考位前 (삼제우모사상 이수집사 반전우 고위전)
모사에 세 번 기울이고 집사에 주어 고위전에 올리시오.
- 右執事 配位前 盞盤 跪授獻官 (우집사 배위전 잔반 궐수헌관)
우집사는 배위전 잔반을 헌관에 주시오.
- 三祭于茅沙上 以受執事 反奠于 配位前
(삼제우모사상 이수집사 반전우 배위전)
모사에 세 번 기울이고 집사에 주어 고위전에 올리시오.
- 次進加炙 (차진가적)
다음 적을 올리시오.
- 獻官 俯伏再拜 平身 退降復位 (헌관 부복재배 평신 퇴강복위)
헌관은 엎드려 재배하고 물러나 복위하시오.
- 執事 奉爵 他器撤酒 置盞故處 (집사 봉작 타기철주 치잔고처)
집사는 올린 술잔을 퇴주 그릇에 쏟고 제자리에 놓으시오.
- ◎ 행종헌례(行終獻禮) :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終獻官 詣 盥洗位 盥手 帨手 (종헌관 예 관세위 관수 세수)
종헌관은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닦으시오.
- 神位前 北向跪 (신위전 북향궐)
신위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으시오.
- 左執事 進奉 考位前 盞盤 斟酒 (좌집사 진봉 고위전 잔반 짐주)
좌집사는 고위전 잔반을 받들어 술을 따르시오.
- 跪授獻官 以受執事 奉奠于故處 (궐수헌관 이수집사 봉전우고처)
헌관에 주어 올린 뒤 집사가 받아 놓으시오.
- 右執事 次奉 配位前 盞盤 斟酒 (우집사 차봉 배위전 잔반 짐주)
우집사는 배위전 잔반을 받들어 술을 따르시오.
- 跪授獻官 以受執事 奉奠于故處 (궐수헌관 이수집사 봉전우고처)

헌관에 주어 올린 뒤 집사가 받아 놓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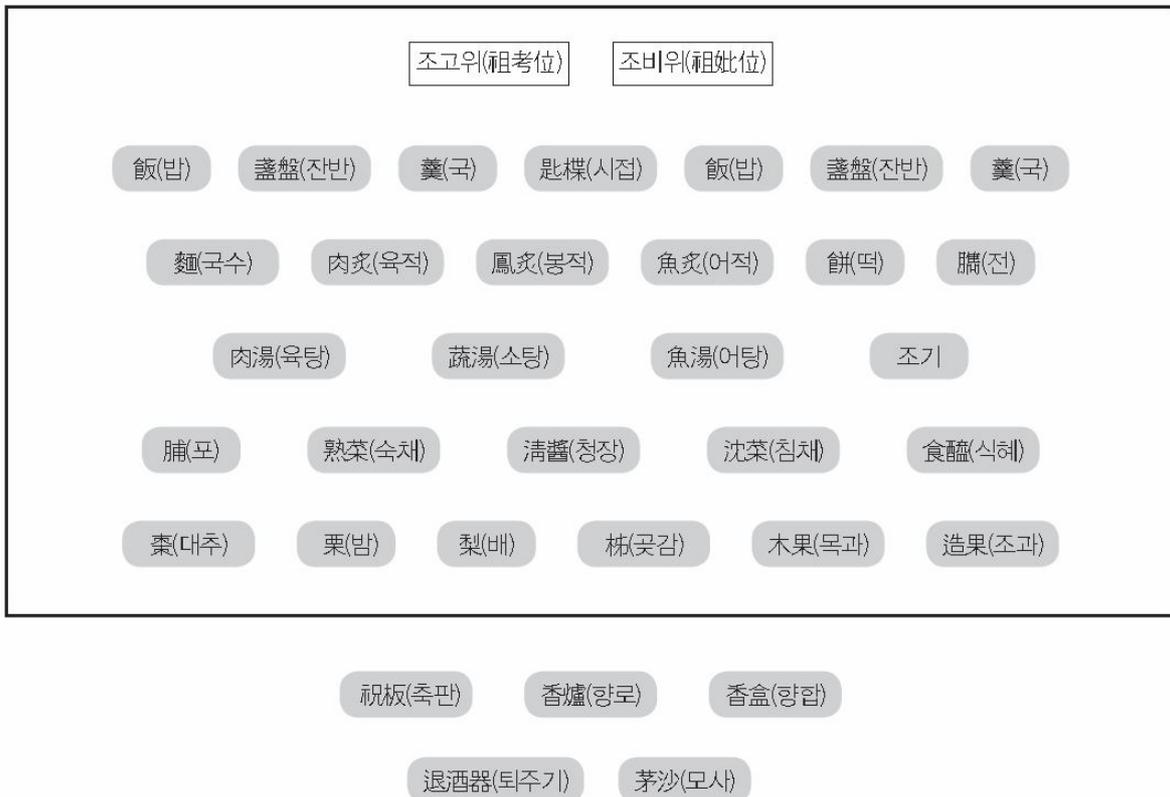
- 左執事 考位前 盞盤 跪授獻官 (좌집사 고위전 잔반 궤수헌관)
좌집사는 고위전 잔반을 헌관에 주시오.
- 三祭于茅沙上 以受執事 反奠于 考位前
(삼제우 모사상 이수집사 반전우 고위전)
모사에 세 번 기울이고 집사에 주어 고위전에 올리시오.
- 右執事 配位前 盞盤 跪授獻官 (우집사 배위전 잔반 궤수헌관)
우집사는 배위전 잔반을 헌관에 주시오.
- 三祭于茅沙上 以受執事 反奠于 配位前
(삼제우 모사상 이수집사 반전우 배위전)
모사에 세 번 기울이고 집사에 주어 고위전에 올리시오.
- 又進加炙 (우진가적)
또 적을 올리시오.
- 獻官 俯伏再拜 平身 退降復位 (헌관 부복재배 평신 퇴강복위)
헌관은 엎드려 재배하고 물러나 복위하시오.
- ◎ 行유식례(行侑食禮) : 유식례를 행하겠습니다.
- 初獻官 詣 神位前 北向跪 (초헌관 예 신위전 북향궤)
초헌관은 신위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으시오.
- 執事進奉 降神盞盤 斟酒 跪授獻官 (집사진봉 강신잔반 짐주 궤수헌관)
집사는 강신 잔반을 받들어 술을 따라 헌관에게 주시오.
- 以受執事 各 神位前 盞盤 添酌三傾 置盞故處
(이수집사 각 신위전 잔반 첨작삼경 치잔고처)
집사는 각 신위전 잔반에 세 번 첨작하고 제자리에 놓으시오.
- 啓飯蓋 插匙飯中 (계반개 삼시반중)
메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한가운데 꽂으시오.
- 獻官 俯伏再拜 平身 (헌관 부복재배 평신)
헌관은 엎드려 재배하고 일어서시오.
- 退羹奠水 三抄 飯立匙 (퇴갱전수 삼초 반입시)
국을 물리고 물을 올리고 밥을 세 번 떠 말고 놓으시오.
- 獻官以下 在位者 皆 俯伏 肅俟少頃 平身
(헌관 이하 재위자 개 부복 숙사소경 평신)
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엎드려 조상의 명복과 숙원을 비시오.
- 執事 進合飯蓋 下匙著 復位 (집사 진합반개 하시저 복위)
좌우 집사는 뚜껑을 덮고 수저를 거둔 뒤 제자리에 가시오.
- 辭神 諸執事 皆降復位 (사신 제집사 개강복위)
집사는 잔을 조금 앞으로 당기고 내려가시오.

- 獻官以下 在位者 皆 俯伏再拜 平身 (헌관 이하 재위자 개 부복재배 평신)
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부복재배하고 서시오.
- 祝引 初獻官 詣焚祝 告禮畢 (축인 초헌관 예 분축 고례필)
축관은 헌관을 인도하여 축문을 태우고 예필을 고하시오.
- 執事 進撤饌 (집사 진철찬)
제집사는 철상하시오.”³⁸⁾

〈문정공 김육 선생, 총숙공 김좌명 선생, 문충공 김석주 선생 진설도(陳設圖)〉

문정공 김육 선생 종가 제례 진설법은 신위 두 분 앞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나란히 두 번 진설하여 지내오다 6·25전쟁 이후 합설하여 지내고 있다. 문정공 김육 선생 종가 진설법은 집안 어른들이 하던 대로 5열은 왼편부터 조율이시(棗栗梨柿), 4열은 좌포우醢(左脯右醢), 3열은 육소어(肉蔬魚) 3탕(湯), 2열은 좌면우병(左麵右餅) 가운데 육봉어(肉鳳魚) 3적(炙), 1열은 좌반우갱(左飯右羹)으로 진설한다. 제주는 집에서 담근 맑은 청주를 올린다.

〈그림 2〉 문정공 김육 선생 기제사 진설도(陳設圖)³⁹⁾



38)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5~51쪽

39)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52쪽

〈문정공 김육 선생 기제사 축문〉

“維 歲次 (干支) 九月 (干支)朔 初四日 (干支) 孝十四代孫 炳國 敢昭告于
유 세차 (간지) 구월 (간지)삭 초사일 (간지) 효십사대손 병국 감소고우
顯十四代祖考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贈
諡 文貞公 府君

현십사대조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증
시 문정공 부군

顯十四代祖妣 貞敬夫人 坡平尹氏

현십사대조비 정경부인 파평윤씨

歲序遷易 顯十四代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尚 饗

세서천역 현십사대조고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현 상 향

〈풀이〉

이제 ○○년 음력 9월 (간지)삭 초4일 (간지) 효14대손 병국이 삼가 아뢰옵니다.

14대조 할아버님!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 관상감사 세자사 증
시 문정공 부군

14대조 정경부인 파평 윤씨 할머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계절이 변했습니다.

14대조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왔습니다. 먼 옛일을 더듬어 느끼면서 크고 넓으신 은택을 잊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공손히 드리오니 흠향하소서.”⁴⁰⁾

문정공 김육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다음과 같이 전승되고 있다.⁴¹⁾

2016년 현재 청풍 김씨 문의공파 종회는 김유환 회장 주관 하에 종인과 함께 문중의 대소사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매년 문정공 불천위 제사 때가 오면 2일 전부터 관리소장 가족이 함께 사당 내부와 재실 주변
을 깨끗이 정리 정돈한다.

제수 구입과 장만은 청풍김씨 대종회관 박진화 관리소장 부부가 담당하여 종중에서 약 45만원
의 제수 경비를 제공하면 관리소장 부부가 구리시장에서 제수를 구입하여 제물을 장만한다. 관리
소장 부인이 문정공 불천위 제사에 참석하는 종중인의 수에 알맞게 제수를 준비하여 제물을 장만
한다.

“김육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원래 기일 한밤인 자시(子時)에 지냈지만 광복 후에는 전국에서
참여하는 관계로 종중회의에서 매년 음력 9월 4일 낮 12시에 지내기로 정했다. 또한 김좌명 선

40)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53쪽
41)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56~57쪽

생은 음력 3월 9일 낮 12시에, 김석주 선생은 음력 9월 20일 낮 12시에 지낸다.”⁴²⁾

문정공 불천위 제사의 초헌관은 문정공 종손이 맡아 왔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3개 소종중회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첨작은 초헌관이 올린다. 집례와 축관은 돌아가면서 정하여 맡는데 홀기는 한문으로 하고 있다.

문정공 불천위 제사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당에서 신주를 재실로 옮긴 후 제사가 끝나고 다시 사당으로 신주를 옮긴 후 초헌관부터 차례로 제주를 맞보고 바로 재실로 자리를 옮긴 후 참례자 전원이 음복을 한다. 음복례를 행하는 동안에 선조의 생애와 공덕을 기리면서 화목한 시간을 갖고, 때로는 중중회의를 열어 현안문제 등을 심의 결정한다.

문정공 불천위 제사의 참석인원은 각 지역에서 오는 중중인들로 대개 20명 내외이다.

4. 경기를 대표할 만한 불천위 제사의 전승 실태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권에 기록된 문충공 이원익 선생의 불천위 제사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특성이 있다.

문충공 이원익 선생의 불천위 기제사는 기일의 새벽에 사당에서 위패를 모시지 않고 영정을 모시고 영당제(影堂祭) 형식으로 지낸다.

기일(忌日)은 10월 24일인데 계절에 따라 음식 맛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백자와 유기, 목제기를 사용하고, 우물물을 떠서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또한 비가 오면 관감당(觀感堂)에서 영우를 향해 제물을 차려놓고 묘제를 대신했다고 한다.

보통제사에도 제물의 고임새는 관감당에서 준비해 새벽에 영우로 옮겨 진설하였다.

문충공 이원익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복잡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제사 절차는 생략하고 간소화 하였다.

매년 5월 광명시와 함께 한식날 헌다식(獻茶式)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문충공 이원익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기일 새벽에 영당제 형식으로 지내며, 우천시에는 관감당에서 영우를 향해 묘제 형식으로 지낸다. 또한 설차례와 추석차례, 묘제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불천위 제사를 기일에 영우에서 영당제 형식으로 지내고, 5월 한식에 광명시와 함께 영우에서 헌다식(獻茶式)을 개최하여 추모제 형식으로 불천위 제사를 현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전승하고 있다. 불천위 제사의 영당제 형식은 오늘날 제사의 신위에 영정사진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이원익 선생 종가의 종손부부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하여 중송

42) 경기학연구센터, 2015, 위의 책, 45쪽

부부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사시간을 조정하고, 절기를 고려하여 제수를 준비하고 제상을 장만하여 천기에 따라 제상을 차리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사문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인들이 제사문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전수하고 향유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행하였다.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4권에 기록된 문성공 이이 선생의 불천위 제사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특성이 있다.

원래 황해도 벽성군 고산면 석담리에서 문성공 이이 선생의 불천위 제사를 지냈으나 광복 후에 14대 종손 이재능이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문성공 이이 선생의 신주만을 모시고 와서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에 문성사를 짓고 불천위 제사를 모셨다.

그 당시에는 문중일가와 지방 유림들이 수백 명씩 참석하여 불천위 제사를 성대하게 지냈으나 이재능 종손이 작고한 뒤에 아들 이천용 종손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불천위 제사 참석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15년 현재는 이천용 종손 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아파트의 거실에서 병풍을 치고 제단을 설치하여 율곡 이이 선생 부부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16일 저녁 7시에 문중 인사와 사회저명 인사, 유림 대표들이 모여 불천위 제사를 지낸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율곡 이이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일 저녁 7시에 제향을 올린다. 율곡 선생 불천위 제사의 참석인원은 각 지역에서 오는 데 대개 60명 내외이다. 사당이 없지만 감실에 신주를 모시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거실에서 병풍을 치고 제단을 설치하여 불천위 제사를 올리는 것이 신주를 재실에 옮겨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제상의 신위를 단설로 진설하는 것이 특성화되어 있다.

종손 집에서 율곡 이이 선생 불천위에 대한 설차례, 추석차례, 한식헌다, 묘제 등을 지내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율곡 이이 선생을 배향하는 자운서원 등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알려져 있다. 특히 자운서원에서는 매년 9월에 파주문화원과 함께 율곡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율곡 문화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을 기반으로 공동체 성원들이 주도하는 축제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역사인물의 불천위 제례 기반의 문화자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2권에 기록된 문정공 김육 선생의 불천위 제사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특성이 있다.

제수 구입과 장만은 청풍김씨 대종회관 박진화 관리소장 부부가 담당하여 종중에서 약 45만원의 제수 경비를 제공하면 관리소장 부부가 불천위 제사에 참석하는 종중인의 수에 알맞게 제수를 준비하여 제물을 장만한다.

매년 문정공 불천위 제사 때가 오면 2일 전부터 관리소장 가족이 함께 사당 내부와 재실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한다.

문정공 김육 선생의 불천위 제사는 원래 기일의 자시(子時)에 지냈지만 광복 후에는 전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종중회의에서 매년 음력 9월 4일 낮 12시에 지내기로 정하여 제향을 올린다.

문정공 불천위 제사의 초헌관은 문정공 종손이 맡아 왔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3개 소종중회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첨작은 초헌관이 올린다. 집례와 축관은 돌아가면서 정하여 맡는데 홀기는 한문으로 하고 있다.

문정공 불천위 제사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당에서 신주를 재실로 옮긴 후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데, 옛날에는 제상의 신위를 단설로 진설하였으나 6.25 전쟁이후 문정공 불천위 제상의 신위를 합설로 진설하여 제향한다. 우리나라 3대 불천위 명문가를 대표하는 문정공 김육 선생 종가의 불천위 제상 진설법의 변화는 공동체 성원들의 제사문화에 영향력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Ⅲ. 불천위 제사의 법고(法古) 논의와 창신(創新)의 정향

제사를 왜 지내는가?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고(思考)에 따르면, 조상이 죽으면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공경하는 의식으로 자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제사를 중히 여김은 사람의 도리가 곧 인간의 예의와 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忠), 효(孝), 신(信)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규범과 관행으로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제사의식은 인(仁)사상을 하나의 고리(環)로 하여 이어지는 보본반시사상(報本反始思想)⁴³⁾에 기초하여 사물의 철리(哲理)와 인간 도리(道理)의 진수가 결합한 것이다. 이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인간의 길을 성(誠)·경(敬)으로 발현시키고, 도의성(道義性)에 따른 책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예치사회(禮治社會)를 지향하는 인간 교화정신(教化精神)이 깔려 있는 전통적 가치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⁴⁾

제사는 신령에게 희생을 바치며 기원을 하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말한다. “‘제(祭)’자는 갑골문에 피가 똑똑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문자이고 금문(金文)에는 땅 귀신 ‘기(示)’자를 덧붙여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회의문자로서 대체로 자연신이나 조상신에게 희

43) 자신이 태어난 근본이 되는 선조의 은혜에 보답함

44) 류춘규, 2009,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 - 경북지역 종가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7~218쪽)

생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그래서 하늘 땅 등의 힘을 빌어 국가의 안녕과 왕권의 위상을 나타내었고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자손의 번영과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하였다.”⁴⁵⁾

제사는 누가 주관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목적으로 지내는가에 따라 명칭과 호칭이 다를 수 있다. “『국조오례의』에서 천신(天神)에 지내는 제사를 사(祀), 지기(地祇)에게 지내는 제사를 제(祭), 인귀(人鬼)에게 지내는 제사를 향(享), 문선왕(文宣王)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를 석전(釋奠)이라고 분류하였듯이 대상에 따라 제사의 명칭을 달리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圓丘壇), 땅과 곡식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 농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先農壇), 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단(先蠶壇) 등의 단을 마련하여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반면에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宗廟), 공자를 모시는 문묘(文廟), 관우(關羽)를 모시는 관왕묘(關王廟), 그리고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 가묘(家廟) 등의 사당에서는 조상 및 성현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분류는 『국조오례의』, 『대한예전』 등으로 이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이를 통칭하여 제사라고 한다.”⁴⁶⁾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중국의 『소학』과 『주자가례』가 지배층의 실천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유교식 제사가 점차 보급되었다. 고려 공민왕 2년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제정한 제례규정에는 대부이상의 관원은 3대 봉사 6품 이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2대 봉사 7품 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들은 부모만을 봉사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예전」편에 사대부 이상은 4대 봉사 6품 이상은 3대 봉사 7품 이하는 2대 봉사 일반 서인은 부모만 제사지내도록 하였고, 『국조오례의』에는 사시제를 2품 이상은 사중월(四仲月) 2월·5월·8월·11월 상순에 6품 이상은 사중월 중순에 7품 이하는 사중월 하순에 모두 날을 택하여 거행하게 하였다.⁴⁷⁾ 조선 중기의 신의경과 김장생이 지은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조선 후기의 이재가 지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이 조선의 대표적인 예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종법질서가 정착된 이후로 제사는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되어 있고, 그 위의 조상들은 시제 때 모시게 되어 있으나 불천위에 봉해지면 영원히 기제(忌祭)를 지낼 수 있고, 차례와 절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주자가례』를 실천하려는 사림(士林)을 중심으로 4대 봉사를 하면서 점차 신분의 구별 없이 일반인들도 4대친 기제를 지내고 설과 추석 또는 중구 차례와 한식 또는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서 제향을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다.

유교의 조상 제사에는 고조부·증조부·조부·부(父)까지의 4대조를 위한 기제(忌祭)를 비롯하여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차례(茶禮)·묘제(墓祭)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불천위제사는 불천

45)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0쪽

46) 국립민속박물관, 2003, 위의 책, 10쪽

47) 국립민속박물관, 2003, 위의 책, 89쪽

위대제(不遷位大祭) 또는 불천위기사(不遷位忌祀)라고 한다. 불천위는 불천지위(不遷之位), 부조위(不祧位)라고도 한다. “조선전기에는 『경국대전』에 의거, 오직 공신에게 대해서만 불천위를 허락하였는데, 조선 중기에 이르러 사림이 지방 사회를 주도하면서 공신 이외에 충신, 절의(節義), 학행(學行) 등으로 뛰어난 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 유생들의 상소가 있으면 이를 허락하고 권장하는 형평이었다.”⁴⁸⁾ 4대조까지 선조를 봉사하는 일반적인 제향과 달리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학덕이 높으신 선조에 대해 친진(親盡=代盡)이 되어도 사당의 위패를 묘소에 조매(祧埋)하지 않고 영구히 제사 지내는 것을 불천위 제사라고 한다.

불천위는 국왕의 교서로 내려진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지방 사림에서 공의로 옹립한 향불천위(鄉不遷位)가 있다. 안동지역의 경우 불천위 과정에 따라 국가불천위, 유림불천위, 문중불천위로 구분하기도 한다.⁴⁹⁾ 불천위의 결정은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생존 시 업적이나 지위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상 숭배가 아닌 기념비적 내지 추도식의 성격을 갖는다. 국가불천위 제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제사인 만큼 국가에서는 봉사손으로 하여금 불천위 제사를 이어가도록 관직을 수여하는 등 특별한 우대를 하였다. 불천위 제사는 종손이 주관하지만, 참여자가 문중의 성원만이 아니라 지방의 유림이나 유지들이 참여한다. 불천위 제사는 지역사회와 공동체 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공동체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불천위는 종가(宗家)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안동 지역에서는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종가를 ‘불천위 종가’라고 별도로 칭함으로써 다른 종가와 가격(家格)을 차별화하기도 한다. 불천위제사는 부계 친족의 결속에도 기여하고 있다. ... 퇴계 이황(李滉)의 불천위제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후손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후손들은 불천위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적 근원을 재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서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공동체 성원 간에 단합과 동질감을 강화시켜주고)⁵⁰⁾ 공동체적 삶을 되돌아보기도 한다.”⁵¹⁾

조선후기 종법질서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친진(親盡=代盡), 즉 4대 봉사가 끝나면 제위전은 종가에 귀속되었으며 종손은 친진된 제위전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임의대로 처분하기도 하였다.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제위전은 백세토록 종손에게 주기로 되었는데, 퇴계(退溪) 선생이 자손대대로 제향을 올리는 불천위(不遷位)로 책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후기 종법질서가 정착되면서 종손이 임의대로 처분하던 형태에서 종손과 문중 구성원들이 논의하여 관리

48) 국립민속박물관, 2003, 위의 책, 133쪽

49) 김미영, 2004, 「안동의 종가와 불천위제사」, 『향토문화전자대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ando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dong&dataType=01&contents_id=GC02401989 (검색일 2016. 08. 15.)

50) (공동체 성원 간에 단합과 동질감을 강화시켜주고)는 발표자가 추록하였을 밝힌다.

51) 김미영, 「안동의 종가와 불천위제사」, 『향토문화전자대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ando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dong&dataType=01&contents_id=GC02401989 (검색일 2016. 08. 15.)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문중에서 그러한 관행이 순조롭게 정착되었지만, 적지 않은 문중에서는 제위전을 둘러싸고 종손과 지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불천위 증가는 선현의 생애와 업적은 물론 문중의 예법, 집성촌의 면모 등 지역성과 문화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을 위한 삶을 살았던 증가의 종손·종부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직장생활, 종교활동, 재산소유 등의 갈등 문제로 인하여 불천위 제사가 단절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봉건적인 제사문화의 관행이 위기를 자초하여 법고(法古)의 지속과 창신(創新)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문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법고(法古)에 대한 집단 지성의 수렴과 창신(創新)을 위한 대중 선택의 정향을 논의하기에 유비쿼터스 시스템(ubiquitous system)⁵²⁾의 디지털 스마트(SMART)⁵³⁾ 시대로 접어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이후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규범과 관행이 변모하고 사멸되는 상황에서 법고(法古)와 창신(創新)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1934년 11월 18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사회교화자료 제10집 의례준칙(20~50)에 의거, 기제는 조·고 2대에 한하여 봉사하도록 규정했으나 4대 봉사의 관행은 지속되었다. 조선총독부 사회교화 자료 제10집 <의례준칙(20~50)>이 발표된 후 1936년 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이범익(李範益)은 지방실정에 적합하고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는 <의례규범(儀禮軌範)>⁵⁴⁾을 간행하였다.

광복 후 1957년 국민재건운동본부의 <표준의례>와 1961년 보건사회부의 <표준의례>를 모태로 하여,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 준칙>이 시행되었다.⁵⁵⁾ 1973년 6월 1일에 <가정의례 준칙>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제10조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고자 하였다. 그 후 1998년 8월 31일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되면서 <가정의례 준칙>은 폐기되었다. 2008년 10월 14일 <건전가정의례준칙>이 개정되었고, 201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건전가정의례준칙>⁵⁶⁾ 제19조(제례의 구분)에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

52)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생활 속의 컴퓨팅 체제로서 서로 이질적인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을 연결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하나로 통합되고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공간혁명을 말한다.

53) SMART는 Specific: 구체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하며, Attainable: 달성 가능한 수준의, Realistic: 현실적인 목표를, Time based: 시간 제한을 두고 활동하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54) 충청남도, 1936, 부록 <의례규범>, 『충청진흥월보』 제22호

55) 도민재, 2014, 「가정의례준칙」, 『한국일생의례사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http://folkency.nfm.go.kr/life/dic_index.jsp?P_MENU=04&DIC_ID=7932&ref=T2&S_idx=11&P_INDEX=0&cur_page=1 (검색일 2016.08.15.)

5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1호 일부개정 2008. 03. 2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에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에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에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에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표 1〉

제례의 절차(제2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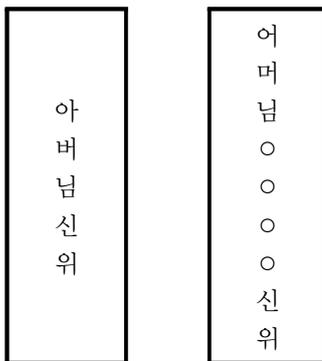
1. 일반절차

- 가. 신위 모시기: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茅沙)에 술을 붓고 참사자(參祀者)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再拜)한다.
- 나. 헌주: 술은 한 번 올린다.
- 다.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 라. 물림절: 참사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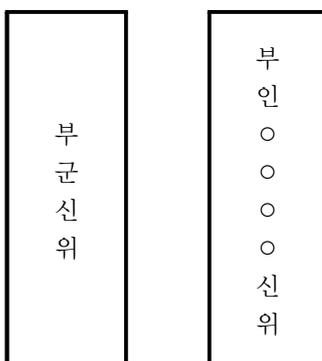
2.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紙榜)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부모의 경우



나. 배우자의 경우



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및 대통령령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2. 30.

다. 차례(합동제사)의 경우

	할 머 님		어 머 님
할	○	아	○
아	○	버	○
버	○	님	○
님	○	신	○
신	○	위	○
위	○		○
	신		신
	위		위

비고 : 지방의 ○○○○에는 본관(本貫)과 성씨를 적는다.

전통적인 불천위 제사의 법고(法古)는 『경국대전』, 『대전회통』, 『국조오례의』,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을 규범으로 가가예문에 따라 특성화된 전통을 그대로 준수하는 방법과 전통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전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불천위 제사의 창신(創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천위 제사의 창신은 관점에 따라 제향 정신은 유지하되 형식과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향정신을 확대하여 불천위 제사를 지역 공동체 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형식과 절차 등을 창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문중 중심의 불천위 제사의 경우에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집단 지성의 수렴과 대중들의 선택을 통해서 본질은 전통을 고수하고 실존은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제의 주요 콘텐츠로서 불천위 제사는 제향 정신은 확대하되, 지역 공동체 성원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 등을 집단 지성의 수렴과 대중들의 선택을 통해서 불천위 제사를 추모제나 기념제 등으로 창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IV.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과제와 공동체 문화 자원화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기제와 묘제를 중시하여 『주자가례』에 사시제(四時祭)· 초조제(初祖祭)· 선조제(先祖祭)· 네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를 포함한 6가지 제사가 명시되어 있지만, “『국조오례의』 및 『상례비요』 등에는 사시제, 기제, 묘제만을 주요 제사로 규정하였다.”⁵⁷⁾ 사시제는 봄·여름·가을·겨울에 한차례씩 4대 친고조·증조·조·고를 모시는 것으로 사당이나 재실, 또는 정침에서 지낸다. “왕실 조상의 경우는 맹월(孟月); 1월 4월 7월 10월에 길일을 택하여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사대부 및 서민의 경우는 중월(仲月); 2월 8월 11월에 길일을

57) 국립민속박물관, 2003, 앞의 책, 89쪽

택하여 사시제를 지냈다.”⁵⁸⁾ 사당에서의 사시제와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의 묘제가 절기상으로 겹치거나 묘제 관행이 성행하면서 사시제는 점차 축소되었고, 4대 조상을 중심으로 사당에서 기일제(忌日祭)를 지내고, 명절차례를 묘소에서 사명일(四名日)에 절사를 지내고,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10월에 묘제(歲一祀 또는 時祭)를 지낸다.⁵⁹⁾

불천위 제사의 기제와 묘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불천위의 사시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선조들과 함께 제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불천위는 종가의 사당 중에서 가장 상위인 서쪽 끝에 모시고 있으며, 일반 4대 조상과 같이 설, 추석 등의 사명절에 사당제를 지내고, 한식이나 시월에는 묘제를 지낸다. 집안에 따라서 한식에 사당에 헌다(獻茶)를 하기도 하고, 시월에 불천위 묘소에서 시제(時祭)를 지내기도 한다. 이를 공동체 성원들의 축제로 승화시켜 추모제나 기념제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자 불천위 제사의 전승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불천위 제사의 공동체 문화 자원화는 기제로부터, 묘제, 사시제 등의 법고창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식과 시월의 시제는 공동체 성원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기에 형식과 절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을 봄과 가을의 좋은 절후에 추모제나 기념제를 야외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천위 제사의 제향 정신, 불천위 과정의 다양성, 불천위 제사의 보편성, 가가예문의 독창성, 현대인들의 수용성 등을 수용하고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감성문화와 기술체계를 투영한 불천위 제사의 형식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창조하여 이를 콘텐츠로 구성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공동체 성원들의 자산으로 축적하면서 공동체 성원들이 누구나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불천위 제사의 전승과제는 공동체 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한 실존 문제를 집단 지성의 수렴과 대중들의 선택을 통해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법고를 기반으로 원형 유지 또는 변형으로 전승하는 문제와 현대인들의 감성과 미래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불천위 추모제나 기념제를 창조하는 것이 전승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 불천위 제사의 공동체 문화 자원화 방안은 지역 공동체 성원 중심으로 그리고 문중 일가 친척들을 중심으로 불천위 제사의 형식과 절차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하고, 정보화하고, 콘텐츠를 활용하고 유통하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공동체 성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자원화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8) 국립민속박물관, 2003, 위의 책, 88쪽

59) 국립민속박물관, 2003, 위의 책, 89쪽

참고 문헌

- 강희정, 1999, 「불천위 제사집단의 인식변화와 제일(祭日)의 양력화」, 『제사와 문화』 (민속학연구소 논문집 9), 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99~327쪽
-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 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88~251쪽
- 김귀영, 김보람, 박모라, 2015, 「상주지역의 불천위제사 제수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5(5), 739~751쪽
- 김미영, 2004, 「안동의 종가와 불천위제사」, 『향토문화전자대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미영, 2006, 「조상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 - 안동지역 불천위제사의 제물과 진설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319~379쪽
- 김미영, 2007, 「조상제례의 변화와 정체성 지속에 관한 연구 - 안동지역 불천위 종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 271~301쪽
- 김미영, 2008,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비교민속학』 35, 서울: 비교민속학회, 509~540쪽
- 김영순, 1999, 「불천위 제사의 집사분정에 나타나는 종법체계와 연령의식」, 『제사와 문화』 (민속학연구소 논문집 9), 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43~298쪽
- 김영순, 2003, 「안동지역 불천위 제사의 규범과 종가의 관행적 제사」, 『실천민속학연구』 5, 323~358쪽
- 도민재, 2014, 「가정의례준칙」, 『한국일생의례사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류춘규, 2009,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 - 경북지역 종가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33쪽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제사와 문화』 (민속학연구소 논문집 9), 안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344쪽
- 안동민속박물관, 2001, 『안동의 제사』,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259~373쪽
- 이경아, 1981, 「제례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의 의미 분석 - 진성이씨 불천위제례의 경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1~42쪽
- 이연숙, 2011, 「양반마을의 문중의례와 종족의식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예안이씨의 사례」, 『사회와 역사』 75, 5~38쪽
- 이현진, 서혜숙, 송은숙, 이უნ화, 정혜정, 2016, 「호남지역 종가 불천위 제례 상차림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6~166쪽

주영하, 2011,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종가음식의 가치」,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2쪽

충청남도, 1936, 부록 <의례궤범>, 『충청진흥월보』 제22호

<웹사이트>

http://ando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dong&dataType=01&contents_id=GC02401989
(검색일 2016. 08. 15.)

http://folkency.nfm.go.kr/life/dic_index.jsp?P_MENU=04&DIC_ID=7932&ref=T2&S_idx=11&P_INDEX=0&cur_page=1 (검색일 2016. 08. 15.)



제사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 I. 세속화시대의 제사문화: '도리'[理]에서 '인정'[情]으로
- II. 제사의 의미와 기능
- III. 제사의 형식과 구조
- IV. 근현대 제사문화의 변용과 세속화 양상
- V. 맺음말: 신종추원(慎終追遠), 죽음을 기억하는 제사문화

제사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박종천*

I. 세속화시대의 제사문화: ‘도리’[理]에서 ‘인정’[情]으로

오늘날 제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지내자니 힘들고, 약식으로 간소화하거나 대놓고 외면하자니 마음에 걸리는 찝찝한 행사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기일(忌日)이나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이면 어김없이 친족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고 별초하며 성묘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전통적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제사의 의례적 원칙을 그대로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명절증후군’은 제사가 즐거운 한마당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스트레스 증상이 되어 버린 상황을 상징적으로 알려 준다. 돌아가신 조상과 다시 만나고 그것을 계기로 가족들이 모여서 혈육의 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길례(吉禮)’라고 불렀던 제사는 더 이상 길한 의례가 아니라 한갓 스트레스로 전락하고 있다.

현실적 어려움은 당위적 도리[理]보다는 현실적 인정[情]을 중시하는 세속화시대를 열었다. 근대적 병원의 혜택으로 인해 집안에서 죽음을 맞았던 상례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장소의 변화는 의절의 변화를 초래했다. 실제로 병원과 장례식장이 중심인 일반 사회에서 임종시 고복(梟復)을 비롯한 몇몇 의절은 전통적 방식의 실천이 힘들게 되었으며, 상조회사가 상례의 상당 부분을 대행하면서 상례문화도 상당히 많이 변용되었다. 제례에서도 역시 종손 혹은 장남이 있는 큰집이 아니라 호텔 제사, 콘도 제사, 제사방으로 장소가 변화하는 양상까지 등장했으며, 간단한 상차림의 형식적 간소화가 주도하는 한편, 별초와 제수 마련을 대행하는 전문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피자같은 서양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으며, 자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5~60대를 중심으로 ‘제사 안 받기 선언’까지 나타나고 있다.¹⁾ 제수는 더이상 정성껏 손수 마련하고 의례적으로 정결하게 구별해야 할 음식이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아니라 손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한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사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구세대와 과감한 변화를 원하는 신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제사의 유지를 위해서 제사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개항 이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유교적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유교적 제사문화는 국가의 주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 핵심은 제사 실행 횟수와 규모의 축소, 형식적 간소화, 제사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 대상과 주체의 성격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모두 유교적 경건성을 지켜 왔던 우주적 상징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근대적 시공간 속에 재편되는 현실의 상황에 따른 편의성의 증대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편의성 추구는 경건성을 상실한 의례의 세속화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²⁾ 형식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를 초래한다. 제사 음식이 상징하던 의미는 일상음식 혹은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마련이 편리해졌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의례를 통해 삶을 성화(聖化)시키던 경건성을 더 이상 담지 못하게 되었다. 편의성의 증대는 전통적으로 제사용 희생제물과 의식용 기구들을 다른 일상적 물품들과 성스럽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성생기(省牲器)의 의절을 생략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형식의 변화는 음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의 변화도 초래했다. 현대에는 전통적으로 제사에 앞서 3일에 걸쳐 준비하던 정결의식인 치재(致齋)와 산재(散齋)를 제대로 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제사에 앞서 이틀에 걸쳐 각종 외부의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일상에서 분리되어 제사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산재와 제사 하루 앞두고 제사에 집중하는 치재는 일종의 분리의 절(separation)인데, 오늘날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내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몇일간 휴가를 내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힘들다. 전통적인 제사문화는 사당과 무덤이 집 근처에 함께 있으면서 이주나 이동이 거의 없었던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이루어진 반면, 집성촌이 상당히 해체되고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이주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제사를 위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시제(四時祭) 대신 세일사(歲一祀)로 제사의 횟수를 줄이고, 음(陰)인 귀신에게 맞게 자시(子時)를 중심으로 드리던 제사를 여기저기 흩어진 친족들이 모이기 좋은 초저녁 무렵 또는 한낮에 드리기도 한다. 제삿날도 음력이 양력으로 대체되거나 시제나 묘제를 모이기 쉽게 일요일날 드리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³⁾

1) 제사문화의 극적 변화에 대한 언론 보도로는 『한경비즈니스』 제928호, 2013년 9월 9일. “제사 합치고 대행업체 활용” 참조.

2) 박종천,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7집(한국국학진흥원, 2010)의 맺음말 참조.

3) 자세한 논의로는 박종천, 앞 논문 참조.

이렇듯 오늘날 제사문화는 도리의 원칙에서 인정의 현실로 세속화의 흐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사문화를 구성하는 형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우주적 상징의 의미를 상실 혹은 거세시켰다. 도리에서 인정으로, 원칙에서 현실로 세속화된 제사문화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 해당하는 시간의 리듬, 공간의 구별, 인간의 성화의 측면에서 제사가 지닌 의미를 전반적으로 해체 혹은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제사문화의 약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던 정성[誠]과 경건성[敬]의 태도와 더불어, 제사를 함께 드리는 과정에서 친족간에 강화되는 혈연적 연대의식마저 함께 약화 혹은 해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제사의례에서 활성화된 정성과 경건성은 일상에 복귀했을 때 조상을 의식하는 정성스럽고 경건한 삶을 추동하면서 삶을 성화시키고 남에 대한 정성과 공경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친족간의 혈연적 연대의식은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인정에 치우친 현실적 편의성의 확대는 제사의 형식을 약화시키게 되면, 결국 사회에서 조상이나 신을 섬기는 정성과 공경으로 자신의 삶을 성화시키고 남을 섬기는 자세를 약화시키며 친족간 유대관계를 시민사회의 공적 연대의식과 공공성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제사에서 활성화되는 정성과 경건성 및 유대관계와 연대의식의 의미를 제사의 전통적 정신과 구조에서 찾아서 밝히고 제사문화의 다양한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제사문화의 전통적 의미를 살릴 의례적 경건성의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의 변화가 현실적 적합성과 더불어 의례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제사의 의미와 기능⁴⁾

1. 제사: 생과 사,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의례

살아있을 때는 세상에 태어난 생일을 주기적으로 기념하지만, 죽고 나면 해마다 죽은 날에故人(故人)을 추모한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기일(忌日)이나 명절 때면 어김없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제사를 지낸다. 종교에 따라 제사를 대체해서 추도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는 의례를 해마다 거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반복하는 것인가? 제사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

4) 2장은 박종천, 『예, 3천년 동양을 지배하다』(글항아리, 2011), 박종천, 「제사: 반복적으로 회상되는 죽음의 무게」,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엮음, 『죽음의 풍경을 그리다』(서울: 모시는사람들, 2015), 123~139쪽, 박종천, 『서울의 제사, 감사와 기원의 몸짓』(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1장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수정했음.

한 의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 자체를 기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연결된 죽은 조상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이 현재 살아있는 후손들의 삶과 연속되는 토대임을 끊임 없이 상기하는 의식이다. 죽음의 계기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생명은 끝나지만, 제사를 통해 후손들의 기억과 삶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문화적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죽음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기되고, 삶은 죽음에 대한 기억을 통해 의미있게 충전된다.

그런데 삶과 죽음은 과연 양립할 수 없이 단절적인 것인가?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삶으로 삶과 죽음을 연결짓는 방법이 바로 제사다. 제사는 죽음을 삶에 덧붙여서 피비우스의 띠로 연결한 문화적 형식이다. 상례(喪禮)가 죽음의 계기에서 삶을 마감하는 의례라면, 제사(祭祀)는 죽음을 다시 삶에 연결시키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자와 영원한 이별을 하는 상례는 죽음의 시점에 국한하여 일회적일 수밖에 없지만,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죽은 자를 다시 만나는 제사는 매년 특정한 날에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면 매년 고인(故人)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에 드리는 기제(忌祭)를 말하는데, 기제 외에도 4계절의 절기가 바뀔 때마다 드리는 시제(時祭), 명절(名節)마다 드리는 절사(節祀) 등을 포함하면 해마다 주기적으로 고인을 기리는 날은 더 늘어난다.

제사는 자연적 변화의 리듬이나 특정한 역사적 계기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등 일회적인 다른 일생의례들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렇다면 왜 제사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성인식인 관례, 남자와 여자에서 남편과 아내로 거듭나는 혼례, 산 자에서 죽은 자로 위상이 바뀌는 상례는 근본적으로 일회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사는 죽은 조상이나 피붙이를 다시 만나서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하나의 가족임을 재확인하고 가족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의례이다. 다른 일생의례들이 통과의례(rites of passage)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제사는 통합의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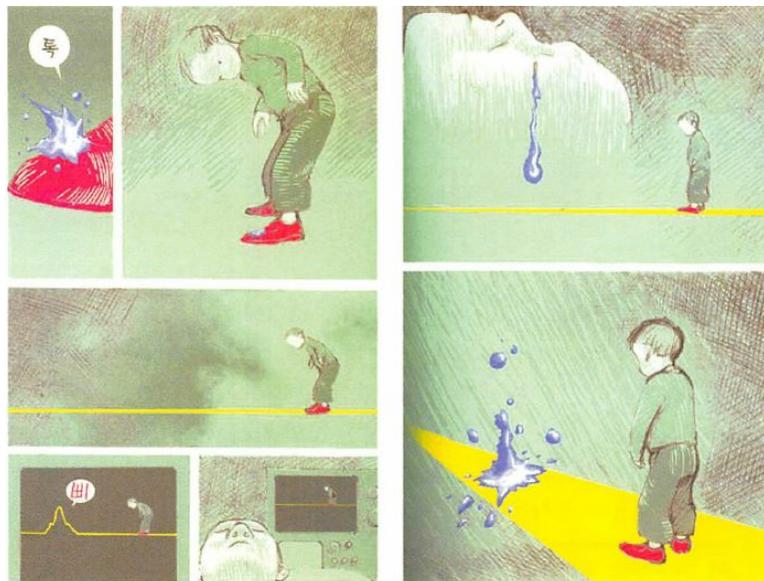
제사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강화되는 것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혈연적 유대감이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조상과 나와 후손은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기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같은 피붙이라는 유대감 속에서 하나가 된다. 제사는 죽은 자에 대한 추억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우리는 그렇게 조상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접붙인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후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음미될 것이다. 가족이란 피비우스의 띠로 묶인 제사 공동체인 것이다.

2. 가족: 유전되고 계승되는 생명나무 공동체

소설가 이청준과 만화가 박홍용은 앞 세대의 죽음이 뒷 세대의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상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청준은 소설 <축제>에서 앞 세대가 시들어 죽어가는 과정이

뒷 세대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결실임을 아름답게 묘사했으며, 박흥용은 단편 <삐이이>에서 노인의 죽음이 아이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했다. 특히 박흥용 작가의 <삐이이>는 생을 마감하는 할아버지의 파란 색 눈물을 생을 앞으로 한창 살아갈 아이의 빨간 색 신발과 시각적으로 대조하여 죽음과 삶을 대비하는 한편, 임종하는 할아버지의 심장박동이 멈추는 소리와 아이가 신은 삐삐신발이 청각적으로 오버랩시켰다. 그리고 그 심장박동선과 눈물이 아이의 발걸음 앞에 놓이게 된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어린이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문학적 표현과 예술적 묘사에 공감할 것이다. 제사는 이러한 표현과 묘사가 가능했던 공감대, 곧 자손들의 삶이 조상들의 죽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자각을 생생하게 일깨운다.

〈그림 1〉 박흥용, 「삐이이이」, 『계간만화』 2004년 가을호, 100~101



후손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회상되는 조상의 죽음이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생명은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삶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효(孝)는 결코 도덕적 의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조상에서 나를 거쳐 후손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전승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죽음은 한 개체의 소멸로 끝나지 않는다. 후손의 삶에 덧붙여져서 영원히 지속되는 의례적 삶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존재는 영원할 수 있다. 제사를 통해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기되고, 후손들의 삶의 뿌리로 영속되기 때문이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망각되지 않는 불후(不朽)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지내 줄 자손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한 것이다.

제사는 앞 세대의 죽음과 뒷 세대의 삶을 의례적으로 연결시키는 나무에 견줄 수 있다. 앞 세대의 죽음은 뒷 세대의 삶을 위한 뿌리가 되고, 뒷 세대의 삶은 앞 세대의 죽음을 거름 삼아 피어나는 꽃이나 열매와 같다. 현재의 내 삶이 조상의 죽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라면, 미래의 내 죽음은 후손의 삶을 꽃피울 새로운 뿌리가 될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뿌리-줄기-가지-꽃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무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인생은 꽃으로 태어나서 열매를 맺고 가지와 줄기로 살다가 뿌리로 끝맺는 생명의 과정을 거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 생명을 잇고, 내가 죽으면 자식이 그 생명을 계승할 것이다. 우리네 삶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생명나무의 유전(遺傳)인 것이다.

우리의 삶에 접목된 조상의 죽음은 삶을 새로운 의미로 충전한다. 제사를 통해 접목된 죽은 조상은 우리 삶의 사회적 토대이자 한계가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인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로 대우받게 된다. 우리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언제나 인륜(人倫)이란 이름의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한 언행은 나 개인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조상이나 후손들에게 사랑과 긍지의 날개가 되기도 하고, 수치와 오욕의 굴레가 되기도 한다. 애국지사의 후손은 가난해도 명예롭게 죽은 조상 덕분에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매국노의 자손은 죽은 조상 때문에 두고두고 명예를 맨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조상과 후손을 의식한 삶은 자연스럽게 성실하고 경건할 수밖에 없다. 결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다.

3. 보본반시(報本反始): 뿌리에 대한 기억에서 삶의 갱신으로

생명나무의 유전에서 조상은 후손의 뿌리다. 뿌리로부터 길어올린 물과 영양분이 잎사귀와 열매를 생생하게 만드는 것처럼, 조상에 대한 기억은 삶을 새롭게 만드는 갱신의 에너지가 된다. 뿌리에 대한 기억인 제사는 삶을 갱신시키는 경건한 의식이다. 제사는 삶의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의례적 몸짓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되새김으로써 삶의 의미를 갱신하는 것이다. 삶이 비릇된 근원적 시초로 되돌아가서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일굴 수 있는 가능성을 충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다.

『예기(禮記)』에서는 그것을 ‘보본반시(報本反始)’라고 했다. 삶이 비릇된 근본에 대한 보답과 시초에 대한 기억이 삶을 새롭게 갱신하는 토대라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다. 『예기(禮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예리는 것은 그것이 생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

예리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옛 것을 닦아서 그 시초를 잊지 않는 것이다.(『예기(禮記)』 「예기(禮器)」)

군자는 옛날로 돌아가서 시초를 반복해서 그것이 생겨난 근원을 잊지 않는다.(『예기禮記』「제의祭義」)

『예기』의 표현처럼, 제사는 바로 삶이 비롯된 시초 혹은 근원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처음 시작된 뿌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의례가 바로 제사다. 『예기』는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문화적 전통이 비롯된 근원을 잊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의례를 제사로 설명했다.

모든 문화는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마저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의례가 바로 제사인 것이다. 예컨대,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이 되면 기제忌祭를 드리는 것은 매년 제사를 통해 이 몸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감사드리고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재인식하여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는 삶을 경건하게 다잡는 계기가 된다. 제사를 통해서 시초 혹은 근원을 되새김으로써 삶은 경건하게 갱신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뿌리 혹은 근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순자』는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 근본이 있으며, 그러한 근본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바로 예禮라고 말한다.

예에는 세 가지 근본이 있다. 천지天地는 생명의 근본이고, 선조는 인류의 근본이며, 임금과 스승은 질서의 근본이다. … 그러므로 예는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섬기며 선조를 받들고 임금과 스승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순자荀子』「예론禮論」)

제사는 우리의 삶과 문화에 근본적 토대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천지天地는 우주적 차원에서 생명의 근본이 되고, 선조先祖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류의 근본이 되며, 임금과 스승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질서의 근본이 된다. 천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자연환경을 제공해 주고, 부모는 사람을 낳고 길러준 은혜가 있으며, 임금 혹은 국가는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공동체적 울타리가 되어 주고, 스승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근본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주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환구단圜丘壇, 가묘家廟, 종묘宗廟와 문묘文廟 등의 제사 공간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제사는 우주, 가족, 사회와 문화 등의 근본을 되새기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만물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간은 조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선조를 상제에게 배향하는 까닭이다. 교제郊祭는 크게 근본에 보답하고 시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예기』「교특생」)

이렇듯 제사는 삶의 뿌리를 기억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보본반시(報本反始)’를 토대로 한다. 유교전통에서 교제(郊祭)의 제천의례를 드리고 선조를 배향하는 것은 만물과 인간의 뿌리인 상제와 조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비롯된 거룩한 근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한편, 삶이 그러한 근본에 대한 적절한 보답이어야 함을 일깨워준다. 제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은 거룩한 뿌리가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된다. 뿌리를 망각하는 삶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지만, 뿌리를 기억하는 삶은 거룩한 것으로 승화된다. 삶의 의미와 좌표를 잃어버렸을 때 일상은 조난당한 난파선처럼 갈팡질팡하게 된다. 문화는 개별적인 삶이 좌초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의미와 좌표를 설정해 주는 이상적인 모범을 제공한다.

전통시대의 삶은 개인의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 되는 조상과 함께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가례(家禮)』에 따라 사당을 지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항상 사당에 고했는데, 이에 따라 늘 조상과 후손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제사는 조상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삶을 반성하는 시간을 제공했고, 사당은 자신의 뿌리가 되는 조상을 의식하고 자신도 후손의 뿌리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만들었다. 제사를 통해 뿌리를 기억하고 그 뿌리로부터 자신을 거쳐 후손에게 이어지는 생명의 전승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의식과 각성은 삶 자체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만들었다.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에 대한 보답은 경건한 삶의 실천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보본반시’의 정신은 유교적 제사는 물론, 다른 종교의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문묘(文廟)에서 공자(孔子)를 비롯한 여러 선현(先賢)을 제사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준 은덕을 상기하듯이, 사찰의 예불은 번뇌(煩惱)망상에 빠져 헤매는 중생을 위한 해탈의 길을 알려준 부처(佛)님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며, 기독교의 주일예배는 예수(耶穌)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되새기는 것이다. 제사와 예불과 예배는 공자(孔子)님의 인(仁), 부처(佛)님의 자비, 예수(耶穌)님의 사랑을 일깨워서 그것을 뿌리 삼아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만든다. 뿌리를 기억하는 삶은 뿌리를 닦은 삶을 통해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보본반시의 정신이다.

제사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특별한 시간을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뿌리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고 그러한 기억을 통해 삶을 갱신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삶에 거룩한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록 현실의 삶이 비루해도 그 뿌리에 대한 기억을 상기함으로써 다시금 이상적인 삶의 시원적 모델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대에는 집안의 가장 깊고 높은 위치에 사당을 짓고 거기에 조상을 상징하는 신주를 모셨는데, 선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살아계신 부모(父母)님께 문안(問安)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기일(忌日)이나 명절,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계절마다 그곳을 찾아 제철 음식이나 과일(果物)로 예를 차렸으며, 바깥에 외출하거나 귀가했을 때, 집안의 대소(大小)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사당에 고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그리하여 사당은 삶 속에서 후손의 삶의 뿌리로서 돌아가신 조상을 의식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네 생활이 다시 후손들의 삶의 뿌리가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게 된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제사는 이러한 각성을 통해 뿌리에 대한 기억이 경건한 삶의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매개하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당당하기 위해 부단히 성찰하고 노력하는 의식적 삶을 활성화시키고, 뿌리에 대한 기억은 삶의 갱신을 가져온다.

4. 공덕(功德): 기억될 만한 가치의 창출과 제사의 자격

그런데 제사에서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내용은 무엇인가? 제사는 뿌리에 대한 주기적인 기억이다. 따라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만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을 공덕(功德)이라고 한다. 공덕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거나 향상시키는 모든 가치를 가리킨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鄭道傳(1342~1398)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제사를 통해 기억하고 보답할 만한 가치로 공과(功)와 덕(德)을 들었다. 사람들의 삶에 공과 덕이 있으면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릇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백성에게 공덕(功德)이 있어서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산천의 신(神)을 제사하는 것은 그들이 구름과 비를 일으켜서 오곡을 무르익게 하여 백성의 식량을 넉넉하게 해 주기 때문이요, 옛날의 성현(聖賢)들을 제사하는 것은 그들이 때를 만나서 도(道)를 행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구제하고, 법을 세우고 교훈을 내려 주어서 후세에 밝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사전에 올려서 정기적인 제사를 지내야 한다. 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은 아침이요 예(禮)가 아니며, 음란하여 복(福)이 없으니, 마땅히 금해야 하는 대상이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인간의 삶을 넉넉하게 만든 공과 올바르게 이끄는 덕을 지닌 존재라면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공덕이 있는 존재들과 그들의 공덕을 정기적인 제사를 통해 문화의 뿌리로 기억하고 국가의 문화적 토대로 삼아 삶을 풍요롭고 올바르게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정당한 제사를 통해 공덕의 문화적 가치가 주기적으로 상기되고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것을 복(福)으로 보았으며,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기복적 주술은 잘못된 제사[淫祀]로 보아 배제시키려고 했다.

공덕을 문화적 가치라고 본다면, 제사의 대상인 신(神)은 일종의 문화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농사와 양잠은 음식과 의복을 만드는 중요한 민생사업이었다. 선농제와 선잠제는 각각 선농단(先農壇)과 선잠단(先蠶壇)에서 선농씨(先農氏)와 서릉씨(西陵氏)의 딸 누조(嫗祖)를 농사와 양잠

의 시조로 삼아 제사 지내고, 국왕과 왕비가 직접 적전籍田을 갈고 누에를 쳤다. 농사와 양잠의 문화영웅이 이룩한 공덕을 제사를 통해 기리는 한편, 국왕과 왕비가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써 음식문화와 의복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되도록 한 것이다. 선농단의 제사에 모여든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설령탕을 먹으면서 농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다시금 되새겼을 것이다.

이렇듯 제사는 삶의 뿌리를 기억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이며, 제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기되는 공덕의 문화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계승된다. 제사는 보본반시의 목적과 의미를 통해 공덕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적 토대인 것이다.

한편, 공덕은 기억할 만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보답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제사에서 사용되는 축문(祝文)과 제문(祭文)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은 선친(先親)을 위한 제사를 모시면서 지은 축문에서 늦가을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선친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는 감정을 진솔하게 토로한 바 있다.

지금 늦가을 만물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때에 마침 아버님의 생신을 당하고 보니, 계절의 변천에 느낌이 일어, 아버님을 간절히 추모합니다. 그 은혜 갚고자 해도 하늘처럼 너무 커서 끝이 없으니, 감히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삼가 세사(歲事)를 올립니다.(송준길의 『동춘당집(同春堂集)』 권16, 「아버지를 제사하는 축문[禴祭祝文]」)

물론 이 축문은 늦가을에 선친에게 드리는 예제(禴祭)로서 『가례(家禮)』의 시간적 리듬에 따라 작성된 전형적인 축문이다. 그러나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덕에 대한 감사는 생명의 출발에 대한 감사로서 의미가 크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를 짓거나 시조를 쓸 때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네”로 시작되는 『시경(詩經)』 구절을 패리디할 만큼 도저히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어버이의 은덕을 기렸다. 제사를 통해 부모님의 은덕을 상기하면서 그 은덕으로부터 비롯된 삶이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것임을 새삼 의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사는 죽은 분들의 공덕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그분들이 성취했던 공덕을 새롭게 재생산하는 계기가 된다. 공덕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새로운 가치를 낳는다. 예컨대, 기묘사화로 순교자가 된 조광조(趙光祖: 1482~1520)를 위해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이 지은 제문과 그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된 죽수서원(竹樹書院)에 대한 축문(祝文)을 보면, 조광조에 대한 제사에서 당시 유교지식인들이 반복적으로 되새긴 공덕은 순수하고 독실한 조광조의 학문과 순교자적 실천이었다.

연 월 일에 현령(縣令) 모(某)는 선정(先正) 조 문정공(趙文正公)에게 밝게 아뢰옵니다. 공은 타고난 자품이 두텁고 빼어나며 학문과 실천이 순수하고 독실하였습니다. 좋은 때를 만나 훌륭한

정치를 베풀어서 장차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불행히도 뜻만 품고 별세하시니, 지금까지 뜻있는 선비들은 흠모하면서 서글퍼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끝내 없어지지 않음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당을 세워 신이 계시게 하오니, 공의 명령께서는 강림하여 살펴 주소서. 삼가 아뢰옵니다. (기대승(奇大升)의 『고봉집(高峯集)』 권2, 「조문정공 제문[祭趙文正公文]」)

공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실천적 자세가 돈독하여 좋지 못한 때를 만나 수레바퀴살이 빠지고 옥이 물에 잠긴 상황이었으나, 은은한 빛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고 끼친 은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밝게 제사를 올리오니, 부디 나약한 자와 완악한 자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기대승, 『고봉집』 권2, 「죽수서원축문(竹樹書院祝文)」)

이러한 공덕은 후대의 사표가 되어 후세 선비들의 흠모와 양심을 지속적으로 각성시켰고, 그에 따라 제2, 제3의 조광조를 끊임없이 배출하도록 조율하는 토대가 되었다. 모범적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의례적 기억과 보답은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 제사는 우리가 닦아야 할 큰 바위 얼굴, 곧 삶의 모범을 배우고 익히는 장인 동시에, 공덕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다시금 새로운 공덕을 낳는 의례적 선순환의 통로였던 것이다.

Ⅲ. 제사의 형식과 구조⁵⁾

1. 제사의 형식과 특징: 경건한 의식과 절제된 몸짓

우리는 제사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되새기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것일까? 전자라면 제사는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미고 지극히 절제되고 정형화된 몸짓의 정적인 자세로 일관하게 마련이고, 후자라면 제사는 당연히 강렬한 음악이나 갖가지 퍼포먼스가 동반되는 열정적인 몸짓의 동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유교적 제사가 보본반시를 실현하기 위한 의례경건주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비유교적 제사는 기복양재를 추구하기 위한 의례열광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유교적 제사를 보면 대체로 차분하고 절제된 형식의 의절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용한 움직임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성을 표현하는 제물을 올리고 절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그저 도

5) 박종천, 『서울의 제사, 감사와 기원의 몸짓』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1장; 박종천, 박종천, 「유교적 상제례의 기독교적 수용 어떻게 할 것인가」, 손봉호 외,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의 기독교적 추모예식 연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1), 127~158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수정했음.

리를 다할 뿐이다. 지극히 정형화된 몸짓이 반복되기 때문에 경건한 분위기만 가득할 뿐 제사를 지내는 동안 아무도 흥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제사는 단조롭고 절제된 형식을 반복하는 것일까? 또 어떤 제사이든지 간에 왜 비슷비슷한 동작을 하는 것일까? 원래 예는 먹고 마시는 일상적 연회의 동작들을 본떠서 신을 공경하는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예의 기원은 음식에서 비롯되었다.”(『예기禮記』 「예운禮運」) 그리고 제사는 죽은 조상과의 의례적인 만남이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과의 영원한 이별을 표현하는 상례가 흉례(凶禮)인 것과는 달리, 죽음으로 단절되었던 고인과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길례(吉禮)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례적 만남은 즐거운 잔치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같은 이들은 제사가 잔치에서 형식을 모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유교의 제사는 형태상 일상생활의 행동양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경건하게 절제되고 정형화되었을 뿐, 잔치와 제사는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잔치의 일상적 형식과 제사의 비일상적 형식이 형태가 큰 차이가 없고, 제사의 대상이 되는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과는 달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활기찬 생동감보다 경건한 고요함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옛날에 제사의 예는 본래 연향(燕饗)의 의식을 모방한 것이다. 살아있을 때는 연향으로 기쁨을 드리고, 죽으면 제사로 공경을 바치니, 그 뜻은 마찬가지다.(정약용, 『제례고정(禮考定)』, 「제찬고(祭饌考)」)

제사는 형식적으로 연회를 모방했지만, 다른 모든 예들은 제사의 형식을 본받는다. 제사에서 신을 만나고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의절의 형태와 과정은 다른 예에도 확장되어 적용된다. 오르고 내리는 승강(升降)의 몸짓, 절하고 읊하는 배읍(拜揖)의 몸짓, 겸손하게 사양(辭讓)하는 언행, 나서고 물러나는 진퇴(進退)의 과정과 절차인 의절(儀節)에서 제사는 상례나 흉례 등 다른 예들과 비슷하다.

길례(吉禮)가 오례(五禮) 중에서 으뜸이고, 흉(凶)·빈(賓)·군(軍)·가(嘉)에 모두 예의 이름을 빌어 흉례·빈례·군례·가례라 하는 것은 그 오르고 내리며 절하고 읊하며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가 제례와 같기 때문입니다.(정약용,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이여홍에게 답하는 편지(李汝弘)」)

제사의 의절이 다른 다양한 예에도 적용된다면 제사의 구체적 의절을 통해 각성된 경건성이 다른 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의례들은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제사 때와 비슷한 심리적 상태를 낳게 된다. 몸 가는 대로 마음 간다는 말이 있듯

이, 제사의 절제된 동작들은 다른 의례의 절차에도 적용되어 삶 전체를 경건하게 만든다.

이에 비해 기복양재를 추구하는 비유교적 제사들은 대체로 열광적인 양상을 선보인다. 종교전문가인 샤먼들이 엑스타시ecstasy에 빠져 작두를 탄다거나 특이한 복장과 도구를 사용하는 등 의례의 비밀상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시끄러운 음악과 기괴하기까지 한 여러 가지 비정형적 퍼포먼스가 난무하며, 심지어 기존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각종 현상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외방의 민속은 예교禮敎를 익히지 못해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날에 신神을 즐겁게 한다는 명분으로 무격巫覡을 불러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며 밤낮으로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있는데, 점점 물들어서 풍속을 이루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은 것 같다.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조짐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서울과 지방에서 엄히 금지하도록 하라. (『성종실록』 권99, 성종9년 12월 신축일)

이런 현상은 이미 전통시대부터 지식인들의 합리적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신을 달래고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이 자유분방한 열광적 의례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유교적 제사가 일상적인 연회의 의절을 제사의 구체적인 의절에 수용하여 성聖과 속俗, 일상과 비밀상의 구별이 크지 않은 반면, 비유교적 제사에 해당하는 열광적 의례들은 일상과 비밀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열광적 몸짓을 통해 기존 풍속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현상을 낳았다. 이에 따라 조용히 가라앉는 유교적 제사와는 달리, 열광적 흥분이 장을 가득 메우게 된다.

몸과 마음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몸짓이 비슷하면 그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유사하게 되기 마련이다. 조용한 방에서 부드러운 클래식을 들으면서 가만히 명상에 잠길 때는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고요해지고, 요란한 사운드의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격렬하게 춤출 때는 마음도 흥분으로 고조되기 마련이다. 몸 가는 데 마음 가는 법이다. 따라서 경건한 태도로 임하는 유교적 제사에는 차분하고 절제된 의례적 형식이 나타나고, 흥분을 자아내는 비유교적 제사에는 열광적이고 자유분방한 몸짓이 드러나게 된다.

2. 제사의 의례적 효과: 경건한 재계와 무의식적 내면화

제사는 경건한 심신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를 둔다. 제사에 앞서 심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재계(齋戒)를 하고, 제물로 드릴 희생과 음식 및 제사용 그릇과 도구들을 갖추어서 배치하는 진설(陳設)을 합니다. 중요하고 큰 제사를 모실 때에는 ‘산재(散齋) 7일, 치재(致齋) 3일’이라 하여 7일동안 밖으로 몸가짐을 가다듬고 다시 3일 동안 안으로 조상에 대해 마음을 집중한다. 이것

이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는 재계의 과정이다. 더불어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 제사 하루 전에 제사에 쓸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잘 닦으며 좋은 품질의 제수를 마련한다.

제사를 위한 경건한 재계와 정성스런 준비는 제사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서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갱신하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들은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역설했으며, 그렇지 못하고 제사에 늦는다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사에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 17세기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선비였던 계암 김령(1577~1641)은 근40년 가까이 기록한 일기인 『계암일록』을 보면, 기제사는 늘 비통하고 슬픈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등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마음이 마치 상투적인 표현인 양 습관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병으로 고열, 오한, 통증, 호흡곤란 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철저히 재계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슬픔과 그리움 등이 어울린 경건한 마음자세는 실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성과 경건한 자세를 견지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성과 경건한 자세는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서 무의식까지도 스며들었던 것 같다. 얼마나 정성을 쏟고 의식을 집중했는지, 김령은 『계암일록』에서 모두 일곱 번의 꿈을 기록했다는데, 그 대상이 모두 선친(先親)이었으며, 그것도 과거시험 발표나 제사 전후였다. 실제로 그는 제사를 올리기에 앞서 재계하는 과정이나 제사를 지내는 날에 선친의 꿈을 꾸었다. 심지어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친의 꿈을 꾸기도 했고, 제사 직후에도 선친과 조용히 담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사를 통한 효의 실천이 심신의 의식화를 넘어서서 무의식까지 침투했던 것이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뚜렷하기가 마치 평상시와 같았다. 내가 선군(先君)의 품 안에서 놀다가 깨어났으니 감회가 어떠했겠는가? 날이 썰 무렵에 시사(時祀)를 지냈다. (『계암일록』 1605년 8월 22일)

제사를 앞두고 선친에 대한 꿈을 꿀 만큼 제사의 경건성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다. 재계를 통해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마치 조상신이 실재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낸다”고 한 『논어』의 설명이 현실화된 것처럼, 경건한 제사는 죽은 이와 의 경건한 만남을 생생하게 재현할 만한 수행적 효과가 있다. 꿈으로 나타날 만큼 내면화된 경건성은 현실의 삶도 경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봉제사’(奉祭祀)의 경건성은 일상에서도 경건하게 손님을 대하는 ‘접빈객’(接賓客)의 조화로 확장되기 마련이다. 길레라고 불리기도 하는 제사의 길한 작용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구현된다.

3. 제사의 구조와 절차: 정성과 강복의 의례적 교환

제사는 신과 인간의 만남이다. 초월과 일상의 의례적 만남 속에서 인간은 제물을 통해 정성을 바치고 신은 그 정성을 흠향하고 복을 내려준다. 제사는 인간의 정성과 신의 강복降福이 교환되는 의례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려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없으면 제사는 허례허식虛禮虛飾으로 전락해 버리고, 인간이 정성껏 준비하더라도 제사를 받는 신이 흠향하지 않고 강복하지 않으면 제사는 쓸데없는 헛짓이 되고 만다. 한쪽에서 정성을 보이면 다른 한쪽에서 그 정성에 대해 적절한 보답을 하면서 서로 제대로 주거니받거니 할 때 제사는 의미있는 의례적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으로 완성된다.

제사의 구조가 인간의 정성과 신의 강복이 교환되는 과정이라면, 그러한 교환의 구체적인 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가? 제사의 절차는 통과의례(rites of passage)의 3단계에 따라 분리, 전이, 재통합의 단계를 거친다. 무속의 굿이 신을 불러와서 즐겁게 한 뒤 보내는 청신請神, 오신娛神, 송신送神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제사도 일상에서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사를 준비하는 분리(separation)의 준비과정, 제사를 통해 신에게 정성과 제물을 바치는 전이(transition)의 본과정, 신의 복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재통합(incorporation)의 마무리과정을 거친다.

제사의 3단계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⁶⁾

(1) 준비과정: 분리단계

재계齋戒 - 설위設位 - 진설陳設 - 성생省牲 - 척기滌器 - 구찬具饌

(2) 본과정: 전이단계

영신迎神: 봉주奉主 - 참신參神 - 강신降神 - 분향焚香

진찬進饌: 헌폐獻幣

헌작獻爵: 삼헌三獻, 독축讀祝

흠향歆饗: 유식侑食, 합문闔門

강복降福: 계문啓門, 하사嘏辭

음복飲福: 수조受胙

송신送神: 사신辭神

6) 유교제사의 구조와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특히 『주자가례』와 금장태, 『귀신과 제사 - 유교의 종교적 세계-』,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 (한국학술정보, 2001) 등을 참조하여 각 의절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3) 마무리과정 : 재통합단계

납주納主 - 철조撤俎 - 망료望燎, 예매瘞埋 - 분준分餽

먼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일상생활로부터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심신을 가다듬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준비과정에서는 제사의 대상인 신에 대해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재개齋戒와 더불어 신에게 드릴 제물로 희생과 음식을 갖추고 제사용 그릇과 도구들을 배치하는 진설陳設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일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시간과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리과정에 해당한다.

먼저, 재계는 ‘산재散齋7일, 치재致齋3일’(『예기』 「제통」) 혹은 ‘7일 계戒, 3일 제齋’(『예기』 「방기」)라고 하여 7일동안 밖으로 몸가짐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친 후 3일 동안 내면적으로 제사대상이 되는 조상에 대해 마음을 집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교회력에 따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인故人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에 제사드리는 기제忌祭와는 달리, 각 계절의 중월(2, 5, 8, 11)에 지내는 사시제四時祭는 길한 날을 점치는 것으로부터 의례가 시작된다. 제사 하루 전에는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용 기물을 진설한다. 진설은 그 해 수확된 것 중 가장 좋은 품질의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곡식과 채소, 날짐승과 길짐승 및 물고기 등을 종류별로 골고루 준비하고, 구운 것과 삶은 것과 날 것, 붉은 색과 흰 색과 푸른 색 등 조리법과 색깔과 맛 등에 따라 각각 대표적인 것을 올리되, 제상에 배열할 때에는 색깔별 배치[紅東白西], 길짐승과 물고기의 구분[魚東肉西],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 방향 설정[東頭西尾] 등 음양에 따라 우주론적 표상을 반영하여 상징적으로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배치한다. 이는 기독교에서 예배를 위한 예물 준비나 성찬식을 위해 포도주, 떡, 잔과 쟁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견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사에 사용할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닦고 갖추게 된다.

본 과정은 크게 5단계 혹은 7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제사주체인 제관(주인, 주부 등)과 제사대상인 신(조상 귀신)이 서로 주고받는 의례적 과정으로서, 삶의 근원을 만나 삶이 성화되는 전이과정에 해당한다. 의례의 전 과정은 제사주체인 제관이 신에게 고하는 축문祝文이나 신이 제관에게 복을 내리는 하사嘏辭가 교환되고, 제관이 신에게 예물, 음식, 술을 올리는 진찬進饌과 헌작獻爵(초헌初獻은 주인, 아헌亞獻은 주부, 종헌終獻은 참여자 중 연장자 혹은 주인의 맏아들이 행한다), 신이 제물과 정성을 받아들이도록 권하고 문을 닫고 기다리는 흠향歆饗 등 제사주체가 제사대상에게 정성과 제물을 올리는 과정과 신이 인간이 올린 정성과 제물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복을 내리는 강복降福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이 과정에서 집례자執禮者인 축관祝官이 홀기笏記(제사절차를 지시하는 내용이 적힌 기록)에 따라 제사절차를 이끌어간다. 본 과정

은 그리스도교에서 주례자인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 신자 개개인이 예배주체로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 예물과 기도 및 찬양을 올리고 신의 말씀을 들으며 축복을 받는 예배의 본 과정과 유사하다.

본과정의 처음 단계에는 신을 맞는 영신의 과정이 있는데 사당에서 신주를 뵈는 참신 의절 뒤에(사당이 없고 신주가 없어서 지방으로 치르는 간략한 형식에서는 강신을 먼저 한다) 하늘로 분향하여 조상의 신혼神魂을 부르는 강신 의절과 모사茅沙에 강신주降神酒를 부어 체백體魄을 부르는데, 하늘과 땅으로 흩어졌던 신혼과 체백이 자손의 정성어린 기운에 감응하여 잠시 합쳐져서 귀신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모셔진 귀신은 실재하지 않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사한다. 사실 주자朱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귀신론은 본래 유신론이라기보다는 무신론 혹은 이신론(Deism)에 가까운데, 이 점은 조선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예컨대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의 경우에는 귀신의 실체성보다는 인간의 정성에 따라 기氣가 움직인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에서는 귀신이 실재한다고 여겨서 제사한다기보다는 귀신을 대하는 인간의 정성을 더 중요시했으며, 기복적인 목적은 철저히 거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사의 마무리과정으로서 신주와 제물을 거두어들이는 납주納主와 철조撤俎, 제사시 사용했던 물건들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망료望燎와 예매瘞埋 및 음식을 나누는 분준分飪 등의 절차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재통합 단계를 하게 된다.

〈표 1〉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제사 절차

종류	절차	분리(준비)	본과정(전이)				마무리과정 (재통합)
			영신(迎神)	봉헌 및 기원	흠향	음복 (飲福)	
사시제	齋戒 · 設位 · 陳設	奉主 · 參神 · 降神	進饌 · 初獻 · 亞獻 · 終獻	侑食 · 闔門 · 啓門	受胙	辭神	納主 · 徹 · 餽
기제	齋戒 · 設位 · 陳設 · 變服	奉主 · 參神 · 降神	進饌 · 初獻(哭) · 亞獻 · 終獻	侑食 · 闔門 · 啓門		辭神	納主 · 徹

이러한 제사의 절차와 시기 및 기간 등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예컨대, [표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시제의 경우에는 변복變服이 없으나 기제忌祭에는 변복이 있으며, 사시제는 음복의 수조례受胙禮가 있지만 기제에는 수조례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정성과 신의 강복이 교환되는 구조와 3단계 과정을 거치는 점은 동일하다. 제사는 인간이 경건한 자세로 정성을 갖고 신과 만나 복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갱신하는 의례인 것이다.

4. 유교적 의례화와 효경(孝敬)의 사회적 실현⁷⁾

제사는 일상의 삶을 거룩한 의례로 변화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조선전기까지도 압도적으로 많은 방식은 유교식의 제(祭)가 아니라 무속식의 위호(衛護)나 불교식의 재(齋)였다. 추모하는 몸짓의 주체는 가장이 아니라 무당이나 승려였고, 그러한 의식의 대상은 가묘의 신주가 아니라 신당(神堂)의 신상(神像)이나 사찰 혹은 영당(影堂)의 영정(影幀)이었다. 위호와 재는 추모의식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의절도 경건하고 절제된 몸짓의 제사와는 많이 달리 요란한 타악기를 동원하는 것처럼 종교적 열정을 발산하거나 부처님 전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형식의 의절이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라 집안의 가묘에서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혼(魂)과 대응하는 신주를 모시고 별도의 성직자의 중재를 거치지 않은 채 적장자가 직접 의례의 주체인 주인(主人)가 되어 경건하고 절제된 몸짓으로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는 기존의 추모의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별화된 몸짓으로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교적 의례화’를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제사를 비롯해서 유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은 다양한 몸짓의 실천은 기존의 추모방식이 조상들을 통한 기복적 욕망이나 극락왕생의 피안적 소망을 종교적 열정을 구현하는 장소, 기구, 의절 등을 통해 표출한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유교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런 관점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율곡의 『격몽요결』과 『제의초』는 조선사회의 유교화를 위한 유교적 의례화의 문화적 전략을 정초한 것이다.

율곡은 『가례』의 문화적 기획에 따라 사당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의례의 문화적 확산을 도모했다. 의례화를 통해 의례공간인 사당은 생활공간인 집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몸짓을 의례화시키는 문화적 초점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신당이나 사찰처럼 별도의 성역이 아니라 일상 공간 내에 자리잡은 의례화 공간이 창출된다. 『제의초』에 잘 나타나듯이, 사당에는 조상의 신주가 있으므로, 출입할 때나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당에 참례 혹은 고사하는 의례화 방식은 의식적으로 조상과 연계된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의례적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를 새로운 의례적 공동체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된다. 모든 사물은 제 자리(place)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있게 되는데, 사당은 그 중심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은 사당과 조상을 의식한 삶이 된다. 일상적 공간 안에 배치된 사당과 거기에 모신 조상이 후손들의 일상적인 삶을 성화시키는 의례적 중심이 된 것이다.

또한 죽은 조상의 기일과 명절은 물론 달의 운행에 따른 삭망(朔望)의 참례(參禮)와 해의 운행

7) 이 부분은 박종천, 「일상의 성화(聖化)를 위한 유교적 의례화: 율곡 이이의 예학적 구상」, 『유학연구』 31(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4)에서 일부를 전재했음.

에 따른 사시제(四時祭)의 정기적 실행은 캘린더를 기반으로 인간적 시간 리듬과 자연적 시간 리듬을 의례적으로 반복하고 조율함으로써 유교적 이념을 자연스럽게 체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의례는 시공간적으로 통제된 환경의 창출을 표상하는 의례적 당위와 일상적 현실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으로서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성스러움을 창출하므로, 가례의 실천은 효경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이념의 주기적/반복적 재생산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렇듯 유교적 의례화를 통해 설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차별화된 몸짓은 일상적 인간의 삶을 유교적 가치로 성화시킨다. 이 성화된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효도와 공경이다. 효도와 공경을 통해서 부모 혹은 조상은 일상적 삶을 성화시키는 의례적 초점으로 기능한다. 『격몽요결』 「사친장」에 잘 나타나듯이, 부모는 효도와 공경의 대상으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의식적 대상이다. 자기 몸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 없다는 의식은 바로 개인의 일상이 부모를 거쳐 조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늘로 이어지는 가족공동체 혹은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효경의 산물이 되도록 하여 바람직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한다.

사람들 집안에서 부자간에 대부분 사랑이 공경보다 지나치니, 반드시 옛 습관을 통렬히 씻어 버려 존경을 극진히 하여야 한다.⁸⁾

그러나 바람직한 습관의 형성은 가만히 있어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습관에 의해 혼숙된 관성의 힘 때문에 새로운 습관의 형성은 언제나 어렵다. 율곡은 이상적인 가족과 사회를 만드는 첫 단추를 습관적 관성의 힘을 의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연습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사회의 모판이 되는 집안 내에서 부자관계는 사랑이란 이름의 끈끈한 혈연적 유대의식으로 인해 형성된 온갖 습관들이 온전한 가족 질서 형성에 장애가 된다.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가족을 결속시키는 사랑만 있는 집안을 상상해 보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 아닌 사람들 몫을 합법적으로 빼앗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닥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끈끈한 가족애를 눈먼 사랑이 되지 않도록 견제할 만한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 율곡은 사랑의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공경을 주목했다. 심리적 공감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랑과는 달리, 공경은 권위를 중심으로 한 심리적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전자가 차이를 없애는 것이라면, 후자는 차이를 확보하는 것이다. 모든 공동체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기 마련인데, 가정에서는 사랑과

8) 『擊蒙要訣』, 「事親章」. “人家父子間, 多是愛逾於敬, 必須痛洗舊習, 極其尊敬.”

공경이 가족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습관의 관성을 극복하는 심리적 자원이 된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친친(親親)과 존존(尊尊)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자를 수평적 친소의 유대관계와 수직적 존비의 위계질서라는 인간관계의 두 가지 양상을 종합으로 묶어냄으로써 심리적 자원을 사회구조로 투사하였다.

일상생활 하는 사이와 잠깐 동안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은 뒤에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저 몸가짐을 삼가지 않으며 말을 함에 법도가 없어 장난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모두 부모를 잊어버린 것이다.⁹⁾

물론 사랑과 공경은 특정한 상황에서 상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양자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지속가능한 균형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율곡은 성실한 정성으로 부단한 의식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사랑과 공경의 균형을 이룬 효도는 일상생활에서 잠시의 망각이 개입하는 순간 무력화될 수 있다. 의미 없는 장난으로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과 공경을 불러일으키는 부모라는 심리적 대상은 ‘망각’되어 사랑과 공경의 균형을 통해 효도가 사회화될 수 있는 의식적 삶을 추동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신중한 몸짓이 쌓여갈수록 내면적으로 사랑과 공경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습관을 체득하게 되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체화된 효도는 공경의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구현된다.

매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서 부모의 침소로 나아가 기운을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더운지 추운지와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쭙고, 날이 어두워지면 침소에 나아가 이부자리를 정해 드리고,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펴보며, 낮 동안 받들어 모실 적에는 항상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용모를 공손히 하여 응대하기를 공경히 하고, 좌우로 나아가 봉양하여 그 정성을 극진히 하며, 나가고 들어올 적에는 반드시 절하고 하직하며, 절하고 뵈어야 한다.¹⁰⁾

따라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사랑과 공경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기질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유교적 실천은 의식이 실천을 추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이 습관을 통해 의식의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

9) 『擊蒙要訣』, 「事親章」. “日用之間, 一毫之頃, 不忘父母, 然後乃名爲孝, 彼持身不謹, 出言無章, 嬉戲度日者, 皆是忘父母者也.”

10) 『擊蒙要訣』, 「事親章」. “每日未明而起, 櫛衣帶, 就父母寢所, 下氣怡聲, 問寒安否, 昏則詣寢所, 定其褥席, 察其溫涼, 日間侍奉, 常愉色婉容, 應對恭敬, 左右就養, 極盡其誠, 出入必拜辭拜謁.”

고, 의식의 일정한 패턴이 사회적으로 구현되면서 문화를 바꾸어 예속(禮俗)이란 이름의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하게 된다. 나아가 이렇게 정착된 사회적 관습은 다시 개인의 의식에 일정한 기준이 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인정을 올바른 실천으로 구현하도록 유도하는 제방이 된다.¹¹⁾ 요컨대 율곡이 기획한 예교화 전략은 개인의 일상적 몸짓에서 일어난 습관의 변화가 사회문화의 에토스를 바꾸는 거대한 가치/질서 창출의 유교적 의례화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이 생명을 받을 적에 성명과 혈육은 모두 아버지가 남겨 주신 것이다. 숨을 쉬어 호흡함에 기맥이 서로 통하니, 이 몸은 나의 사유물이 아니요, 바로 부모께서 남겨 주신 기운이다. ... 어찌 감히 스스로 자기 몸을 사유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항상 이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저절로 부모를 향한 정성이 생길 것이다.¹²⁾

율곡의 유교적 의례화 전략은 효경을 가족과 국가에 문화적으로 확대하는 실천적 구상이다. 『성학집요』는 수기(修己), 정가(正家), 위정(爲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정가(正家)」편의 핵심이 바로 효경(孝敬)이다. 집안을 바르게 하는 도리는 은혜와 의리를 두텁게 하고 효도와 공경을 핵심으로 삼는다. 가족내 부모에 대한 효와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경을 매개로 삼아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는 인륜의 질서가 총체적으로 정립된다. 『격몽요결』은 사친(事親), 상제(喪制), 제례(祭禮) 편에서 이 효경을 성실의 문화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수기의 문화적 가능성으로 설정하여 생존-사망-사후에 효도하는 의례적 방식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문화적 실천의 자산으로 삼아 가족과 사회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효경을 중심으로 개인수양과 사회윤리와 정치질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상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효도의 실천에서 율곡은 예법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진실한 정성을 더 강조했다. 이 부분은 기호학과 예학의 큰 기둥인 구봉 송익필과 차이가 난다. 율곡은 16세 5월부터 18세 가을까지 모친상을 당해 시묘(侍墓)했다. 당시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1년만에 시묘를 끝내야 했으나 율곡은 슬픔으로 인한 심상(心喪)을 더 실행했다. 여묘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잘 드러낸다. 상례의 차원에서 여묘의 풍습은 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가례의 실천의 핵심인 반혼(返魂)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율곡은 진실한 정성을 표현하는 의례적 방식을 더 중시했다. 반혼은 유교식 상례에서는 무덤에 체백(體魄)을 묻고 장사를 지내고 나서 신혼(神魂)이 깃드는 신주(神主)를 무덤에서 집안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의절인데, 율곡은 이렇듯 중대한 의절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의절을 통해 '예의 뿌리가 되는 인

11) 주석 7) 참조.

12) 『擊蒙要訣』, 「事親章」. “人子之受生, 性命血肉皆親所遺. 喘息呼吸, 氣脈相通, 此身非我私物, 及父母之遺氣也. … 豈敢自有其身以不盡孝於父母乎? 人能恒存此心, 則自有向親之誠矣.”

정이 온전하게 구현되는가' 하는 점을 더욱 주목했다. 예는 인정의 온전한 실천 형식이기 때문에, 율곡은 속마음이 따르지 않는데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회적 관습이나 유행을 흉내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요즘 예법을 아는 집안들은 대부분 장사 지낸 뒤에 반혼한다.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느라고 마침내 여묘하는 풍속을 버리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생활한다. 예(禮)의 덕이 크게 무너졌으니, 몹시 한심스럽다. 무릇 아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랐는가를 스스로 헤아려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여묘하는 것이 옳다.¹³⁾

예교의 세련된 문화적 관습을 유행을 좇아 남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온전한 문화적 실천 주체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형식이 담고 있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 예컨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예교의 문화적 형식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시묘살이를 버리고 과감하게 반혼이라는 세련된 문화적 형식을 좇더라도, 그것이 우월한 문화에 대한 유행의 추종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기만적 몸짓일 경우에는, 슬픔이라는 인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기본 정신은 사라지고 형해화된 문화적 형식만 지키는 문화적 소외현상이 일어난다. 민간의 실체론적 귀신담을 부정하고 성리학의 비실체론인 귀신관과 음양론적인 혼백론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슬픔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성리학의 의례적 형식이었던 반혼은 도리어 슬픔을 잊어버리는 역설적 현상을 만들 수 있다.¹⁴⁾ 이 때문에 율곡은 형식이 정신을 배반하는 '문화적 소외현상'을 경계했다.

이런 문화적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성실한 정성이다. 율곡이 '교기질'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성실한 정성의 지속적 구현이 결국 개인적 차원에서는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화적 관습의 혁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거대한 관점에서 이상의 실현을 추진하면 도리어 그것이 부담이 되므로, 율곡은 현실적 상황에 맞는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그는 예치적 실천의 최대한을 강제하기보다는 예교적 실천의 최소한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습관의 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문화적 공감대의 공유와 그것에 근거한 문화적 혁신을 추진했던 것이다.

예법이 대개 이와 같거니와, 만일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울음에 어찌 일정한 수가 있겠

13) 『擊蒙要訣』, 「喪制章」. “今之識禮之家多於葬後返魂, 此固正禮. 但時人效, 遂廢廬墓之俗, 返魂之後, 各還其家, 與妻子同處, 禮坊大壞, 甚可寒心. 凡喪親者自度一一從禮, 無毫分虧欠, 則當依禮返魂. 如或未然, 則當依舊俗廬墓, 可也.”

14) 박종천, 「조선시대 유교적 귀신론의 전개」, 『귀신·이물·요괴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4장 참조.

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넉넉한 것이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 하니, 상사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¹⁵⁾

그러나 슬픔이나 공경 등의 정서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시한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가변적인 인정을 현실적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율곡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를 위해서 항상 현실의 문화적 좌표를 이상의 청사진에 비추어 보는 부단한 반성이 필요했다. 예컨대, 부모상을 치르면서 상황에 따라 거친 밥과 물만 마시는 단계, 채소와 과일을 먹는 단계 등이 합리적 고려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율곡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인정을 마구 표현한다거나 예법의 원리에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몸을 상해서 3년 내내 죽만 먹다가 결국 쓰러져 죽거나 몸을 심하게 상하는 문화적 행태를 모두 경계했다.

만일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 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법을 지나치더라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힘써 억지로 하여 예법을 지나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니, 의당 절실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¹⁶⁾

효도와 정성이 넘치면 예법보다 지나쳐도 괜찮으며 효성이 모자란 상황에서 예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는 기만적 행동이라고 경계하는 대목은 실심과 성실에 입각하여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철저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제사에서도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신분에 맞게 예를 실행할 것을 주장한 것 역시 성실과 실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릇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을 주로 할 뿐이다. 가난하면 가산의 유무를 저울질하고 아프면 근력을 헤아려서 행하되, 재물과 힘이 미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예의(禮儀)대로 해야 마땅하다.¹⁷⁾

정성을 다하는 형식이라면 건강 상황이나 경제적 형편이나 정치적 신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례』는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강행되어야 할 보편적인 규범서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변용될 수 있는 합리적 매뉴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신이 살아난다면, 형식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이다.

15) 『擊蒙要訣』, 「喪制章」. “禮文大概如此, 若孝子情至, 則哭泣豈有定數哉? 凡喪,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喪事不過盡其哀敬而已.”

16) 『擊蒙要訣』, 「喪制章」. “若是誠孝出人, 無一毫勉強之意, 則雖過禮, 猶或可也. 若誠孝未至, 而勉強踰禮,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

17) 『擊蒙要訣』, 「祭禮章」. “凡祭主於盡愛敬之誠而已, 貧則稱家之有無; 疾則量筋力而行之, 財力可及者, 自當如儀.”

그렇다면 예교의 형식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유교적 의례에는 일상적 행동을 의례화하는 의례적 초점이 존재한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 대응하는 시간, 공간, 인간의 삼간(三間)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성실과 실심의 의례학은 어디까지나 가묘와 신주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의례공간을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부각시키는 유교적 의례화와 맞물려 예교화를 이룩하게 된다. 율곡은 렌즈의 초점처럼 의례화된 실천을 자아내는 중심으로서 의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묘제(墓祭)와 기제(忌祭)를 세속(世俗)이 운행(輪行)하는데, 예가 아니다. 묘제는 비록 운행하더라도 모두 무덤에서 제사하니, 그래도 괜찮다. 기제는 신주에 제사하지 않고 지방에 제사하는데, 이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 비록 운행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제찬(祭饌)을 갖추어 가묘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¹⁸⁾

이에 따라 율곡은 해마다, 계절마다, 달마다, 특정 주기마다 이루어지는 의례적 시간 중심의 설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적합성을 역설했다. 또한 부계와 모계의 위상을 고르게 인정하는 양측적 친족질서를 넘어서서 부계 적장자 중심의 종법질서로 변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의례에 참여하는 주체의 적절성을 올바른 의례적 실천의 조건으로 판단했다. 그리하여 적장자가 아닌 차자나 딸, 외손자, 사위 등도 제사를 모시는 제사유행은 종법질서의 정립에 크게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비록 제사유행으로 인해 의례 참여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허용하더라도 기제사나 사시제는 반드시 무덤과 지방이 아니라 가묘와 신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의례의 주체보다 의례의 대상과 장소가 지닌 상징성을 더 중시하는 면모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율곡의 기획 속에서 온전한 유교적 의례화는 시간, 공간, 인간의 의례적 초점작용을 잘 보여준다.

제사의례의 실천은 예나 지금이나 의리의 원칙과 인정의 현실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예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오늘날 현실적 형편에 맞게 제사 의례의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상례시 시묘살이가 본래 예가 아니지만 효도의 이름으로 허용되고 칭송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실천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조선시대 제례처럼 매일 출입시 가묘(家廟)에 고하거나 매 계절마다 사시제(四時祭)를 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힘들다.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오는 가묘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농경사회였던 과거와 현대사회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8) 『擊蒙要訣』, 「祭禮章」. “墓祭·忌祭, 世俗輪行, 非禮也. 墓祭則雖輪行, 皆祭于墓上, 猶之可也. 忌祭, 不祭于神主, 而乃祭于紙榜, 此甚未安. 雖不免輪行, 須具祭饌, 行于家廟, 庶乎可矣.”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조율할 때 율곡의 자세는 일정한 참고가 된다. 실제로 율곡은 ‘지금 여기’라는 현실적 상황에 따라 반혼(返魂)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묘살이를 현실적으로 허용한다거나 『가례』에 3월 상순에 거행하도록 규정된 묘제를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 등 4번에 걸쳐 시행되었던 당시의 시속에 따라 4번 행하되 2번은 정식 묘제로, 2번은 간략하게 해서 시제(時祭)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율했다.¹⁹⁾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례의 시간과 공간을 중시하여 자연스럽게 묘제의 습관이 정신과 형식이 일치하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절충하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날 제사의 시간, 공간, 인간의 몸짓을 조율할 때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러한 제사의 정신과 제사가 빚어내는 기능과 효과가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사의 형식과 방법을 유연하게 조율하려고 했던 율곡 이이나 서민의 사정에 맞추어 서인 가례를 기획했던 성호 이익 등의 사례는 이를 위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IV. 근현대 제사문화의 변용과 세속화 양상²⁰⁾

1. <의례준칙>: 제사의 근대적 세속화

1934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인문교화방면의 민풍 혁신’의 기치 아래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일생의례를 대폭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의례준칙儀禮準則>을 반포하였다. 일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인 가례家禮를 간소화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선의 의례 ... 일회의 혼례와 장식葬式을 거행키 위하여 무리한 차금借金까지 하여 수遂히 경가傾家파산에 이르는 자도 있음”을 명분 삼아 경제적 논리로 전통적 가례의 규모 축소를 합리화했다.

당시 총독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는 ‘인습의 속박을 벗고 구폐舊弊를 배제하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번문육례繁文縟禮한 가례의 형식으로 인하여 본래적 정신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는 한편, ‘민중의 소실’과 ‘지방의 진흥과 국력의 신장을 저해하는 일’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의례의 간소화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을 내세우긴 했으나, 실상은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일제는 1912년 <묘지, 화

19) 『栗谷全書』, 卷11, 「祭儀鈔」, <墓祭儀>. 시제와 묘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정승모,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대 歲時風俗의 變化」, 『역사민속학』 13(역사민속학회, 2001) 참조.

20) 이 부분은 박종천,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7집(한국국학진흥원, 2010) 및 박종천, 『서울의 제사, 감사와 기원의 몸짓』 등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장장, 매장 및 화장 단속규칙〉 24조를 발표함으로써 매장보다 화장을, 개인 묘지나 문중의 선산보다는 공동묘지를 확산시키려 한 것은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한 대표적인 조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의례준칙〉은 제례의 범위를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로 축소했다. 기제의 대상은 조선 후기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던 〈주자가례〉의 4대봉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한정했으며, 묘제는 한식寒食, 추석秋夕, 중양重陽 또는 적당한 시기에 행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실제로 당시 1년에 수십회에 이르던 제사를 차츰 설날과 추석 2회로 축소시키는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해방후 〈가정의례준칙〉에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었다.

〈의례준칙〉은 제전祭奠의 공물供物도 간략하게 정비했다. 기제에는 밥, 국, 술, 과일, 식혜, 포脯, 나물, 장醬을 배열하고, 묘제에는 술, 과일, 포, 떡, 나물을 쓴다고 정리하는 한편, 형편에 의해 기제에는 밥, 국, 술, 나물, 묘제에는 술, 과일에 그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여 간소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의례준칙〉은 신주 대신 지방 또는 사진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유교식 제사의 상징물을 편의적으로 간소화하거나 구체적인 이미지를 지닌 영정 사진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의례준칙〉은 서울을 중심으로 차츰 조선 전역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의례준칙〉에 친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호응함으로써 의례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이광수李光洙(1892~1950)는 ‘의례 준칙의 일본화’와 ‘생활 방식의 일본화’를 외치면서 전통 제례의 근대적 변화를 환영했고, 1937년에 고향경高鳳京(1909~2000)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부인문제연구회는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책〉에 맞추어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의 기본양식〉을 제정했다. 이 단체는 전시 상황을 맞아 검소한 생활과 간소화된 의례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삼아 전체주의적 국가의례와 의례의 간소화와 생활의 개선을 추진했는데, 황거요배와 국기계양 등의 전체주의적 국가의례, 국 한 그릇 찬 하나의 식사 간소화, 총독부의 〈의례준칙〉 준수, 혼상례의 간소화, 누습타파, 근로보국정신의 양양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듯 조선의 남녀 지식인들이 앞다투어 의례의 간소화와 생활방식의 일본화를 외치면서 일제 군국주의의 전체주의적 의례 통제는 제례문화의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제했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의례준칙〉의 기본 방향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가정의례준칙〉 등으로 계승되어 현대 한국의 제례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방 후에도 전통 제례의 규모를 제한하고 의식절차를 간소화하는 일제시대 의례통제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다. 국가적 간섭은 하향식 규제로 나타났다. 전통적 제사는 타파해야 할 구습舊習으로 규정되었고,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일소하고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되었다. 일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종교적 의례 혹은 문화적 관습의 영역에

속하던 제례 영역에 제도적 규제와 통제를 통해 간섭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의 의미를 탈각시킨 채 형식과 절차를 편의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제사의 세속화를 가속화했다. 제례에 대한 국가적 간섭은 단순히 형식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제사의 형식에 담긴 지닌 의미의 축소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국민표준의례>, 전통 제례 간소화의 현대적 규제

1961년 9월 19일 재건국민운동본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국민표준의례>를 발표했다.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제정한 <국민표준의례>는 보건사회부를 통해 공포되었으며, <국민표준의례>의 전문과 자세한 설명은 『표준의례해설』이라는 책자를 통해 소개되었다. 1961년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표준의례'를 보건사회부가 공포했고 1967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1960년대 관혼상제의 간소화를 통해 생활 기풍을 일신한다는 명목 아래 발표된 <국민표준의례>는 전통적 의례를 상당히 축소하고 통제했다. 3년상을 치루기 위한 각종 의절들을 폐지했고 장례도 3일장으로 규제했다. 또한 상례에서 호곡號哭과 혼백魂帛을 폐지하고 사진을 사용했듯이, 제례에서는 신주神主를 폐지하고 사진으로 대체했으며, 기제사는 2대로 제한했으며, 계절에 따라 올리는 제사는 설과 추석 2번으로 제한했다.

<국민표준의례>는 전체적으로 일제시대의 <의례준칙>의 기초 위에 있었다. 기제사의 규모를 4대봉사를 2대봉사로 축소한 점은 <의례준칙>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명절 제사를 설과 추석으로 한정된 것은 <의례준칙>에서 한식, 추석, 중앙절 및 적당한 시기에 드린다고 규정했던 묘제墓祭의 시기를 더욱 축소한 것이다. 또한 신주를 사진을 대체한 것은 신주를 지방紙榜 또는 사진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한 <의례준칙>보다 훨씬 제한적인 방식이다.

<국민표준의례>에서 제례의 규모와 시기를 축소한 것은 번잡한 의례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제적 낭비를 막으려는 조치였으며, 신주를 사진으로 대체하려 한 것은 사진의 확산에 따라 나무로 만든 신주보다 훨씬 생생한 사진으로 돌아가신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대하려는 현대적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제례가 지닌 심층적 의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제시대의 <의례준칙>을 좇아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생활에 맞는 의례적 표준의 제정을 위해 편의적으로 축소되고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 관공서를 중심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으나 실제 실행은 일부에 국한되는 한계를 보였다.

3. 야간통행금지제도와 제사시간의 변화

제사의 세속화는 제사시간의 변화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개항 이후 양력이 도입되면서 제사를 드리는 날짜와 시간의 변화가 생겼다. 기일忌日 자정 즈음 시작하던 기제사가 정부의 야간통행금지와 도시생활의 현대적 리듬에 맞춰 초저녁으로 옮겨졌고, 음력에 드리던 각종 제사를 양력에 맞춰 드리거나 심지어 모이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주말 낮에 드리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기제사는 본래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忌日 첫 새벽 닭이 울기 전에 행한다. 대체로 자정을 지나 날이 바뀌는 대로 곧바로 시작하는데, 조선시대 왕실제사의 경우에는 축시丑時 1각刻(현재의 새벽 1시 15분)에 제사가 시작되었다. 제사 지내기 전날인 입제일入祭日에는 제사지내는 데 필요한 각종 제사용 기구를 살피고 제사 음식인 제찬祭饌을 준비하며, 제사를 드리고 마치는 파제일罷祭日인 기일에는 친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야간통행금지가 제도화되면서 전통적인 제사시간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초저녁으로 변하게 되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1945년 9월 8일부터 미美 군정軍政에 의해 서울과 인천에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야간통행금지령이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9월 29일에는 미군 점령지역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하면서 다시 밤 10시부터 아침 4시로 시간이 조정되었다. 이후 시간의 단축과 연장을 반복하면서 지속되었다가, 1982년 1월 5일에 안보상 필요한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 때문에 초저녁으로 바뀐 제사시간의 변화는 <가정의례준칙>에도 기일에 해진 뒤 초저녁에 기제사를 드리도록 반영되었다. 전통적인 기제사는 입제일에 경건하게 정성껏 제사를 준비하여 기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부터 제사를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야간통행금지로 인해 입제일의 경건한 준비가 생략되어 버렸고 기일의 첫 시간이라는 의례적 상징성까지 안보적 이유와 생활상의 편의로 인해 없어지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생활상의 편의를 지키기 위해 야간통행금지 해제 이후에도 계속 초저녁 제사시간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4. 제사공간의 현대적 변화와 제사방식의 다양화

제사의 세속화는 제사의 장소에서도 나타났다. 일제시대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현대식 주거환경으로 인해 가묘家廟를 갖춘 전통적인 가옥구조와 집성촌集姓村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공간도 가묘의 신주를 대청으로 모셔와서 지내는 방식에서 아파트의 방안이나 마루에서 지방紙榜이나 영정 사진을 두고 지내는 형식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점차 확산되었다. 도시화와 현대적 가옥구조에 따른 제사 공간의 변화는 제사방식의 간소화

와 더불어 제례의 상징물의 변화를 수반했다.

가묘의 소멸에 따른 제사공간의 변화는 현대의 다종교상황과 맞물리면서 불교식 제례, 추모미사, 추모예배 등 종교별로 특화된 제사방식의 등장과 연결되었다. 그에 따라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이나 가정에서 승려, 신부, 목사 등 성직자들이 집례하는 다양한 제사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4·19민주묘지 등처럼 국가에서 만든 국립추모시설에는 현충일이나 4·19기념일 등에 집단적으로 참배하는 새로운 제사방식이 등장했다. 예컨대,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1956년 6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6일 오전 10시에 동작동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재경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보훈가족, 시민·학생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하여 분향의 전통식 방법과 헌화의 서구식 방식을 결합한 추념식 순서에 따라 현대식 제사를 드린다. 식순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모공연,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폐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대적 추모식은 현대 한국의 다종교 상황을 배려한 새로운 제사 형태로 주목할 만하다.

5. 20세기 후반 근대화를 위한 <가정의례준칙>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제정한 <국민표준의례>는 1961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9호)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749호)을 거쳐, 1969년 3월 5일 대통령고시 제15호로 발포된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전문 71조로 구성된 <가정의례준칙>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에 따라 과시적이고 소비적인 의례문화를 억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풍토를 만들기 위해 권고적 규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1973년 5월 17일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보건사회부령 제411호)을 통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71조를 24조로 기존 의식과 절차를 더욱 단순화하면서 허례허식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었는데, 3일장을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켰다. 권고 규정에서 법적 규제로 바뀌어 국가적 간섭은 국가적 통제로 강화되었던 것이다.

<가정의례준칙>을 추진한 박정희대통령은 “중국을 모방한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가정의례를 넘어서서 민족적 얼을 담은 자주적이고 “산업화시대에 맞춘 현대적 방안”을 표명했지만(<조선일보> 1968. 10. 8. 기사 참조), 전통적 제사문화를 허례허식으로 규정하여 일소하고 의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제시대의 <의례준칙>의 연장선에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잡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固陋와 낭비가 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무릇 의례란 한편으로는 조상 이래의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활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발전하지 않는 한 우리 생활은 불편과 번거로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통이나 전래의 방법이란 마땅히 보전되고 전승되어야 할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나 그것은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관혼상제만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그 정신이 귀중한 것이지, 음복飲福이나 다과茶菓가 많고 적고 하는 절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국 근대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활의 합리화·근대화가 이룩되지 않는 한 이 과업 수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 아래 일상생활에서조차 남의 이목과 체면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랫동안 허례허식에 얽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의의 정신과 형식이 부합되는 생활의 근대화를 국민 각자가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제정의 목적은 1969년 3월 5일에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하여〉(관보 제 5188호)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문에 잘 나타나 있다. 〈가정의례준칙〉은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번잡한 전통의례의 고루와 낭비를 시정하고 허례허식의 일소하여 합리적인 의례생활을 추진한 것이다. 근대적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번잡한 형식에 돈이 많이 소모되는 전통의례를 ‘허례허식虛禮虛飾’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식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생활의 합리화’가 ‘의례문화의 근대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실제로 의례문화의 근대적 합리화는 조상공경의 정신만을 중시하고 형식적인 절차는 경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형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경건한 정신과 자세마저도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의례의 형식이 정신과 자세를 규정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가정의례준칙〉은 비록 현대화와 합리화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진행되었으나, 전통적 제례가 지닌 상징적 함의와 문화적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편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불러들였다. 또한 국가가 가정의례에 간섭해서 경제를 위해 문화를 강제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타율적인 정책적 강요였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호응보다는 소극적인 저항 내지 수동적인 순응을 초래했다. 예컨대, 성균관에서는 100일상으로 축소된 상례기간을 1년상으로 바꾸고 2대봉사 규정을 4대봉사로 복원시켜 줄 것과 성묘 때 간소한 주과포酒果脯를 용인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 규정의 완화를 청원했으며, 지식인들은 가정의례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생활간섭이자 교도기능과 강제기능을 혼동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조선일보〉 1968년 12월 5일 기사)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지못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에 따라 의례문화의 현대적 변화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정의례준칙〉은 제례 분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례를 기일에 드리는 기제忌祭와 명절에 지내는 절사節祀, 1월 1일 아침에 드리는 연시제年始祭 등으로 구분했다. 기제는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며 양위兩位를 합설設한다. 절사는 직계조상을 합설하여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연시제는 부모와 조부모 2대를 합설하여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낸다. 제수祭需는 평상시의 반상음식으로 한다. 지방紙榜은 사진으로 대신하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의 서식을 한글로 하며, 축문의 서식은 한글로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례의 변화는 각종 제사의 통폐합과 의절의 간소화, 제사대상의 합설, 제사 시간의 편의성 제고, 서식의 한글 사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대화가 이루어진 현대적 생활에 맞게 의례의 통폐합과 의절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의례적 시간과 의례적 공간의 변화가 제시된 것이다.

정부에서 공적으로 제시한 이러한 의례개혁안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전통 제례를 현대화한다는 데에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지만, 현실적 편의성의 지나친 강조에 따라 의례적 경건성을 약화시켰으며, 의례의 간소화와 급격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전통적 제례의 현대적 세속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파생시켰다.

6. 21세기 자율적 의례문화를 준비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은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허례허식 행위시 2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자, 1999년 8월 31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8일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년 5월 1일 일부개정)을 거쳐, 1999년 8월 31일에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신규 제정되었으며, 2008년 10월 14일에 다시 전면 개정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이 20세기 후반을 가정의례에 대한 표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통제해 온 것이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가정의례의 권고 규정이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의례준칙〉보다 항목이 훨씬 더 간소화되었다. 제례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정의례준칙〉과 대동소이하다. 제사의 종류는 기제사와 명절 차례로 압축되었는데, 제사의 대상은 2대봉사로 규정되었으며, 성묘는 제수 없이 간소하게 한다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권고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정의례준칙〉과 달리, 민간의 자율적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다종교상황을 고려하여 제3조 종교의식의 특례에 따라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명시했다. 따라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법적 규제를 강행했던 〈가정의례준칙〉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적 제사문화 정착을 존중하는 방향

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정리된 제례의 절차는 제주祭主가 분향焚香한 후 모사茅沙에 술을 붓고 참사자參祀者가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再拜하는 신위 모시기, 술을 한 번 올리는 헌주獻酒, 축문을 읽은 뒤 묵념하는 축문 읽기, 참사자들이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하는 물림절 등으로 나뉜다.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하며,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한다.

7. 다종교사회의 제례문화 다변화

조선 후기 천주교의 유입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병존하는 다종교사회로 진입해 왔으며, 유교적 제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제사방식이 전개되었다.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천주교와 개신교의 분포가 높는데, 이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안에서 약식으로라도 제사를 지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사 대신 교단에서 마련한 예식서에 따라 추모미사 혹은 추모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개신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우상숭배로 생각해서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이 드리는 미사나 예배는 조상신에 대한 의례가 아니라 조상을 추모하면서 하느님께 드리는 의례라는 점에서 유교적 제례와는 차이가 있다. 불교의 경우에도 불보살의 가피에 의지해서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재齋의 형식을 가미하여 불보살과 조상 영가를 이중으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종교적 제사 형식을 갖추었다.

일생의례로서의 제례의 다변화는 근대화와 더불어 전개되는 다종교 상황 가운데 제례는 방식, 공간, 상징, 대상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근현대 제사의 양상이 조선시대 유교적 제사와 달리 조선시대 이전의 제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별로 제례의 주체는 종교전문가에서 가족으로부터 바뀌었다가 다시 종교전문가의 참여로 변하고 있고, 제례 공간도 종교시설에서 가묘를 거쳐 다시 집안과 종교시설로 변하고 있으며, 제례 상징물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초상화 영정에서 구체적 이미지가 없는 신주로 바뀌었다가 다시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정 사진으로 변하고 있다.

〈제례의 시대적 변화〉

시대 양상	선사-고려시대	고려말-조선시대	일제시대-대한민국
제례방식	희생제의→조상굿, 기신제→기제사/묘제	기신제→사시제/기제사/묘제	기제사/묘제→제사/불교제례/추모 예배 등
제례공간	고인돌 → 사찰, 위호(신당), 무덤	위호(신당)/사찰→가묘/무덤	가묘/무덤→집안/무덤, 사찰/교회/성당
제례주체	종교전문가→가족	가족→장자	장자→가족
			종교전문가(승려, 목사 등)
제례상징	영정/초상화→신주	신주/위패/지방	신주→지방→사진
제례대상	조상신(부처님)	조상신	조상신
			하느님, 부처님

(1)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 유교식 제사의 수용과 변형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신주를 소각하며 제사를 거부했으나, 근대에 와서는 교황청의 지침에 따라 제사를 ‘종교적 공경’이 아니라 ‘민간적 예식’으로 분류함으로써 제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전통적 제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취사선택을 통해 변용시켰다. 그리하여 사진이나 위패의 설치, 분향, 제상 차림, 절하기 등 제사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반합飯餽, 고복梟復, 합문閣門 등 조상의 혼령이 상제례 때 직접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 의식들을 금지했다.

2012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승인한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을 보면, 유교식 재계와 진설처럼 집 안팎을 청소하고 목욕 재계한 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고백성사로 마음 준비를 하고 차례상을 준비한 뒤 벽에는 십자가상을 걸고 그 밑에 선조의 사진을 준비한다. 제사는 성당에서 아침미사를 참여한 뒤 실시하며, 시작 예식(시작 안내, 성호경聖號經, 시작성가, 시작기도), 말씀 예절(성경 봉독, 가장의 말씀), 추모 예절(분향과 배례, 위령 기도), 마침 예식(마침성가, 음식 나눔) 등으로 가정 제례 예식을 진행한다.

이러한 구성은 천주교의 미사와 유교적 제사가 절충된 방식이다. 다만 그 절충의 양상은 하느님과 조상을 모두 의례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의식의 절차가 하느님에 대한 의식과 조상에 대한 의식이 차례로 병렬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개신교 추모예배/추도식: 유교식 제사의 거부와 대체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이 유교식 제사의 수용과 변형을 추구하는 반면, 개신교의 추도식 혹은 추모예배는 배타적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철저하게 유교식 제사를 대체하는 형태를 지녔다. 추모예배 혹은 추도식은 특히 우상숭배라는 혐의를 지우기 위해 철저히 예배의 형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인의 약력보고사와 추모사와 묵념 등이 고인을 추모하는 의절로서 추가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조상신은 의식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추도식 혹은 추모예배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묵도, 신앙고백, 찬송, 기도, 성경봉독, 설교, 기도, 고인의 약력보고, 추모사, 찬송, 축도, 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신교는 공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제사를 금하고 있지만, 개별 교인이나 교회 차원에서 전통적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젊은이들과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사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경동교회의 추모예배처럼 향을 피우고 절하는 의식을 허용하는 경우도 일부에서는 생기고 있다. 경동교회는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로 해석되어 금지된 절하기를 ‘성도의 교통’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전통적 제사의 형식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개신교는 비록 조상제사에 대한 전면적 거부의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의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세계 개신교 전통에 없었던 추모예배 혹은 추도식을 만들어서 유교적 제사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제사를 하지 않지만, 그 중 상당수 교인들은 교단이 정한 추모예배 혹은 추도식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 교인들은 개별적 차원에서 <가정의례준칙>에 준하는 전통적 제사를 지내고 있다.

(3) 불교식 가정제사: 전통적 기신재의 현대적 재구성

현대의 불교식 가정제사의 표준양식으로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연구실에서 편찬한 『불교 상제례 안내』(2011)가 주목할 만하다. 불교는 유교중심의 전통적 제사에 불교적 재齋 양식, 특히 시식施食을 접목하여 새로운 현대적 가정제사를 제시하여 권장하고 있는데, 그 핵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제사는 부모님 1대, 명절제사는 2대까지 제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상황에 따라 봉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윗대 조상들의 제사는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에 사찰에서 합동천도재를 지내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는 핵가족 중심의 현대적 추세를 반영하되, 불교 특유의 우란분재를 조상제사에 접목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교적 제사가 종법에 근거하여 장손 중심으로 계승된 것과는 달리, 불교식 제사는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제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윤회봉사도 권장하고

있다. 제사시간은 가족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일 저녁으로 잡는다.

불교식 제사는 제사상의 준비와 의식의 진행에서도 전통적 제사와 차별화된다. 영가를 모시는 영단에 병풍을 펼치고, 병풍 중앙에 탑다라니를 걸어둔 채 그 앞에 제사상을 설치하는데, 제사상에는 영정 사진과 위패(“佛子-법명-이름-영가”로 쓴다)를 놓고, 염송을 위한 한글 의식문을 만들어 의식을 진행한다. 상은 간소하게 차리되, 계율에 따라 육류와 생선을 제외하고, 술 대신 차를 올리며, 향·초·꽃·차·과실·밥의 육법공양물을 진설한다. 또한 강신할 때에는 술을 사용하지 않고 청혼 의식문을 염송한다.

한편, 불교식 가정제사의 절차는 영가 모시기, 제수 권하기, 불법 전하기, 축원 올리기, 편지 올리기, 영가 보내기, 제수 나누기의 7단계로 구성된다. 영가 모시기는 삼보三寶를 불러 모시면서 합장반배하여 가피를 구하는 거불擧佛, 의식문을 염송하여 영가를 청하는 청혼請魂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수 권하기는 영가에게 차와 음식을 올리는 헌다獻茶에 이어 공양을 권하면서 염송하는 헌식獻食이 이어지고, 불법 전하기는 법문을 영가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어서 극락왕생의 축원을 올리고, 영가에게 편지 올린 다음, 영가를 떠나보내는 봉송奉送의 3배를 올린 뒤 상을 물리고 유주무주 고향을 위해 헌식을 하고 나서 위패를 태운다. 마지막으로 음복을 하며 조상과 교감하며 불보살의 가르침을 나눈다.

이러한 불교식 가정제사는 불교식 기신재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식 가정제사는 전통 제사와는 달리, 조상영가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위해 삼보의 가피를 청하고 영가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한편, 의식 절차와 제사상의 준비에서도 불교적 계율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종교적 특색을 잘 드러낸 현대적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종교전통마다 각기 고유의 교리에 맞는 제사방식들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에는 전통적인 유교적 제사방식이 간소화된 형식을 사용하거나 종교별로 차별화된 제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유교적 조상제사의 근간인 효孝를 다양한 종교문화와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제사방식을 창출함으로써 독특한 한국적 의례문화를 일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다종교상황에 걸맞게 다양한 제사방식은 제사문화가 유교적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적 종교문화로 확장되고 변용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신종추원(愼終追遠), 죽음을 기억하는 제사문화

죽음과 삶은 늘 교차하며 반복된다. 누구나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게 마련이다. 삶은 단 한번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단 한번뿐인 삶을 살면서도 영원을 꿈꾼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상상은 극락이나 천국 혹은 윤회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상상과는 다른 방식의 영원 추구

가 가능하다. 바로 제사다. 제사는 개별적인 죽음을 가족 공동체의 생명전승의 한 매듭으로 승화시킨다. 죽은 이의 삶과 죽음은 후손들이 정성껏 드리는 경건한 제사 속에서 불후의 기억으로 상기되고 재생된다. 그리하여 삶은 지속된다. 제사는 바로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추구하는 염원을 현실화시키는 의례인 것이다.

제사의 계기를 맞아 우리는 비로소 삶의 뿌리를 상기하고 되새기게 되고,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와 가지이며, 후손들을 통해 좋은 꽃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한 깨달음이 죽음을 기억하는 제사문화를 만든 원동력이다. 『논어』에서는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삼가고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신종추원(慎終追遠)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동양의 선인들이 인간다운 삶의 마감과 그 죽음을 의미있게 상기하는 상례와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상례와 제례를 인간다운 문화의 핵심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전통 시대의 사당처럼 죽음을 주기적으로 기억할 만한 공간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1934년 일제에 의해 제정되어 강행된 『의례준칙』 이래로 제사를 지내는 시간, 공간, 형식은 모두 편의적으로 간략하게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정성과 경건성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말았다. 제사와 제사대상은 더 이상 반복적으로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그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불편한 무언가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상기함으로써 삶의 근본에 대한 성찰을 도모하는 제사의 본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필요하다. 망각된 삶의 근원에 대한 상기가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다. 제사는 세파에 휩쓸린 채 잊혀지는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각성을 추동할 수 있다. 좁게는 생명전승으로 이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넓게는 인류와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가 있으면 안되는 문화적 가치와 그것을 실현했던 사람들의 전승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러한 가치를 현실 속에서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사는 죽어서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분들과 의례적으로 만남으로써 산 자들의 슬프고 그리운 마음을 위로하고 죽은 분들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인 동시에,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삶의 근본에 대해 성찰하고 의미있는 가치로 삶을 새롭게 충전하는 계기이다. 돌아가신 조상의 삶과 죽음을 주기적으로 음미하는 제사는 후손들에게 전해 줄 내 삶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예비하는 의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상과의 의례적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경건하게 일구어나갈 때, 제사는 조상과 나 그리고 후손까지 연결하는 진정한 ‘길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제사는 그 준비와 실천 과정에서 각성되고 활성화되는 정성과 경건성 및 연대의식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인격완성과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조상 신을 섬기는 의식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수양하며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는 제사의례가 일상생활을 성화시키는 통로가 되며, 친족간 유대관계는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가정 뿐만 아니라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하는 제사는 인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 문화영웅들을 기리는 과정에서 과거에 성현들이 수행했던 공덕을 오늘날 다시 재현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구현의 모판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면, 제사는 인류가 정말 기억하고 지속해야 할 가치에 대한 연대와 전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의례적 기제로서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 기억하고 후세에 전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성찰이다.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우리는 순간과 망각의 늪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영원과 기억의 하늘에서 빛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물음은 제사의 형식보다는 제사를 통해 구현되는 가치로 우리 삶을 되짚어 보는 것일 듯하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의 죽음 뒤에도 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참고 문헌

- 금장태, 「귀신과 제사 -유교의 종교적 세계-」, 『유교사상의 문제들』, 한국학술정보, 2003.
- 박종천,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 박종천, 『예, 3천년 동양을 지배하다』, 글항아리, 2011.
- 박종천, 『서울의 제사, 감사와 기원의 몸짓』,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박종천, 「일상의 성화(聖化)를 위한 유교적 의례화: 율곡 이이의 예학적 구상」, 『유학연구』 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4.
- 박종천, 「조선시대 유교적 귀신론의 전개」, 『귀신·이물·요괴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 박종천, 『죽음의 풍경을 그리다』, 모시는사람들, 2015.
- 손봉호 외, 「유교적 상제례의 기독교적 수용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의 기독교적 추모 예식 연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1.
- 『주자가례』
- 한경비즈니스, 「제사 합치고 대행업체 활용」, 『한경비즈니스』 928, 2013년 9월 9일.
-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제사: 반복적으로 회상되는 죽음의 무게」,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여성의 입장에서 본 제사

윤 유 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 III. 제사문화와 여성참여 특징
- IV. 여성들이 전승하는 제사문화의 경험과 지식
- V. 맺는 말

여성의 입장에서 본 조상 제사

윤유석*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결혼을 하고 시집에 가면서 제사상을 처음 차려봤다. 결혼 전에는 둘째 아들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제사상을 차리거나 제사음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도 기제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설날과 추석날에만 지방에 내려가 차례상을 차리는 정도이다. 그마저 시어머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시면 돕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필자가 ‘여성의 시각에서 조상 제사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이 기회에 내가 주체가 되어 제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사 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접하지 못한 내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고사했다고 한다. 전문가나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다뤄달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이 기회에 한 번 ‘여자로서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막상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집필을 고사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해 달라는 지침은 있었지만, ‘제사’라는 문제를 부담없이 이야기하기엔 너무도 복잡하고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을 기피할 수만은 없었던 이유는 시부모님과 친가 부모님이 나이를 들어 갈수록 본인 스스로 제사에 대한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 시대의 여성들에게 제사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전승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짧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여성의 인식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사를 참여한 단순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후기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불만과 불편

* 문화콘텐츠학 박사/한국의국어대학교 강사

함이 드러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글의 목적이 ‘여성들이 제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이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Ⅱ.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1.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종가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 30년 동안 제사를 지내온 60대 여성의 이야기이다. 시할 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고조부까지 3대 제사를 드렸다.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된 후에는 증조부와 조부모 2대만 제사를 드렸다. 시조모 별세 후에도 증조부의 제사를 계속 드리다가 몇 년을 남편에게 말해 증조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조부모와 시부모 4번만 드린다.

처음에 시집 와서는 시부모님이 시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다. 시어머님과 함께 살 때는 안동 양반의 종갓집답게 떡도 5가지 종류를 모두 준비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제사를 완전히 넘겨받아 혼자 준비를 하면서부터 떡은 한 가지 종류만 하고 나물은 아예 하지 않았다. 직장 생활을 병행 했던 이 여성에게 제사 준비에서 정작 힘든 것은 음식 준비가 아니었다. 제사가 있는 달은 한 달 전부터 신경을 쓸 것이 많았다. 사회생활에서의 일정 조정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큰 집에 오는 손님들을 맞기 위해 집안 정리와 청소를 해야 했고 제사 당일에는 접대하고 정리하고, 또 접대하고 정리하고를 몇 번이고 반복한 후에야 끝이 났다.

남편은 ‘제사는 축제다’라고 말한다. 친인척이 모이고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제사를 축제처럼 지내자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고 설득이다. 하지만 자신이 안주인이 되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정리해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제사는 결코 축제일 수 없다. 내 몸과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다. 수 십 년째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내 조상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

두 아들이 있지만 큰 아들에게는 종가의 맏아들임을 최대한 나중에 밝히라고 일러두었다. 남편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여성은 며느리에게 제사문화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자식세대가 제사문화를 지키든, 추도식으로 바꾸든 그것은 자식들은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내가 죽으면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고 말한다. 정 아쉬우면 3년 정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싫다는 것이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종가집의 맏며느리로 반평생을 살아온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말도 ‘제사는

필요없다’이다. 누구를 위한 제사이고, 무엇을 위한 제사인지 세월이 지날수록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¹⁾

2. 당신 조상 제사에 왜 내가 휴가를 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댁의 제사를 챙겨야하는 30, 40대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남겨진 글들을 보면 남편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내서 제사를 챙겨야하는 여성들의 고충과 고민의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예로 결혼 5년 차인 한 여성은 결혼 후 처음 8개월간 주말부부였다. 1년 반 정도 시댁생활을 하면서 시댁의 문화를 익혔다. 그 중에서 이 여성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단연 ‘제사’였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부모는 조상님에게 새 식구를 인사시켜야한다며 신랑의 외가쪽 제사까지 거의 모든 제사에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하게 했다.

시댁의 제사 풍습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다. 일단 밤 12시가 되어야 메(밥)를 짓는다. 12시가 되면 가장 큰 어른이 “메 지어라”라고 하시면 제상을 차린다. 그리고 제문도 낭독하고 제주들이 돌아가면서 잔을 치고, 조상님께 식사를 권하는 유식 의식도 한다. 유식 때는 한 5~7분 정도 옆드린 채 기다린다.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정리하다 보면 새벽 2시,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가 된다.

결혼 초에는 제사가 있는 날 휴가를 쓰지 않아도 됐다. 숙모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숙모들은 빠졌고 그 많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휴가를 써야만 했다. 그렇게 시골에서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제사에서 제일 힘든 것은 음식 준비가 아니었다. 자정에 시작해 새벽에 끝나는 절차가 직장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이 여성을 힘들게 했다.

이른 시간에 모시는 집도, 가족들 모이기 편하라고 주말에 모시기도 하고, 제사를 합치는 경우도 많지만, 시댁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절차와 형식에 맞추어 제를 모셔야 조상님이 알아주고,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시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집안 제사에 휴가내지 않아도 되고... 출근해서 좋겠다.”고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자리에 누운 여자는 ‘정성은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몸이 이렇게 고돼서야 정성을 쏟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신랑은 출근을 하고 자신은 휴가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내 조상도 아닌데’라는 생각마저 든다.²⁾

1) 강난사, 2016. 8. 2. 전화 인터뷰.

3. 딸이라서 엄마아빠에게 미안해요

우리 조부세대까지만 해도 무자(無子)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 통할 정도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고 제사가 끊기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딸을 낳은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산아제한정책으로 두 자녀 출산이 장려되면서 아들이 없이 무남독녀이거나 딸 둘 만인 경우도 많아졌다.

이 딸들이 지금 장년이 되고 며느리가 되었다. 딸에서 며느리가 되면서 조부세대처럼 형제자매가 많았을 때는 출가외인인 딸이 친가 제사를 챙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하지만 한 자녀, 두 자녀가 보편화되면서 딸이 챙기지 못하면 누구도 그 집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혼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 포털 사이트에 “시할머니제사 vs 아빠 제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랬다. 시부모와 함께 젊은 부부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할머니의 제사와 처음 맞는 친아빠의 기제사가 겹치게 되었다. 남자는 당연히 시조모 제사에 와야 한다는 것이고 여자는 당연히 처가 장인제사에 신랑이 가야한다고 응수한다. 보지도 못한 시할머니 제사를 본인이 왜 가냐는 것이다. 드라마를 시청하던 남편은 “그럼 각자 가면 되겠네.”라고 웃어 넘겼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좋게 타이르듯 말씀하신다. “저런 경우는 없어야하겠지만, 만일 생긴다면 출가외인이니 시집제사에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친가에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을 것 아니냐.”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여자는 시집갔으니 그 집에 가야지.”

글은 올린 여성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들, 딸 키우실 때 똑같이 돈 들여서 똑같이 공부시키고 똑같이 사랑주면서 딸도 그렇게 키웠는데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여자는 출가외인, 그 집에만 충성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저런 상황이라면 쿨하게 각자가면 안될까요..? 그럼 서로 제사 지내서 좋잖아요. 딸이라서 엄마아빠한테 이렇게 미안할 수가 없네요....”라고 긴 여운과 함께 글을 마쳤다.

밑에 달린 댓글에는 본인도 같은 상황이라 공감한다는 글이 많았다. 그리고 딸자식도 같은 자식이고 딸 입장에서는 보지도 못한 시할머니보다 자기를 낳고 기른 아버지제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이었다. 이 상황이 ‘과도기의 마지막 며느리’이고 1970년대인 우리의 다음 세대, 즉 2000년대 세대에는 일부 가문이나 유교 집안을 제외하고 제사문화가 끊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³⁾

2) 오마이뉴스, “당신 조상 제사에 왜 내가 휴가를 내? 여자의 희생으로 치르는 제사문화, 즐겁지 않아요”, 2010. 01. 19. 기사 참조.

3) 재테크포털 미니가계부(<http://bbs.moneta.co.kr>), 시할머니제사 vs 아빠제사, 2010. 12. 11. 게시물 참조.

Ⅲ. 제사문화와 여성 참여 특징

1. 세대 차이와 문화 단절

오늘날 제사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세대 차이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30, 40대인 1960~70년대의 우리세대를 기준으로 1940년대를 부모세대, 1910년대를 조부모세대, 2000년대를 다음세대하고 했을 때, 각 세대가 체감하는 제사문화의 경험과 전승 의지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부모세대는 제사문화를 수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조부모세대로부터 제사문화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집을 와 줄곧 제사를 드려온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을 며느리로서, 부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1960~70년대 세대는 제사문화의 과도기를 겪은 세대이다.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제사를 계속 지내온 집안도 있지만,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는 집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종손이나 장손인 경우와 지손인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사문화가 조선 시대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이 되고 종손, 장손이 된 40대의 남자와 여자들은 제대로 된 제사문화를 접하지 못했거나 문화적으로 보고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장손이나 며느리가 된 지금, 부모세대와 결혼관이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달라진 데다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 조선시대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제사문화가 오히려 낯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제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다 해내는 것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안쓰러움을 느낀다. 동시에 그 일이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느끼게 된다. 제사와 관련된 여성들의 많은 글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왜 저렇게 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즉 제사 준비와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제사의 형식과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사는 죽은 자의 혼백을 다시 불러내 음식을 대접해 먹게 하고 이로써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 나에게로까지 전해진 생명력을 확인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종교적 의식이고 의례이다. 제사에서 조상은 신의 지위를 가진 존재이고 그 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면서 갖는 마음가짐, 즉 정성이다. 조상을 생각하는 정성이 있다면 물 한 잔을 올리고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 제사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알고 참여해야 하는데,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진설하고 절을 하는가와 같은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사문화를 제대로 전승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세대 중에는 제사문화를 전통대로 전승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나 때까지만 할 테니 너희 대부터는 너희 소신껏 우릴 기념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부모세대가 제사문화를 잊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차치하고라도 부모세대가 자식들에게 제사문화를 어떻게 물려주어야 하는지 신중히 물어야할 시점이다.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의 경우는 다른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안주인으로서 시어머니나 친엄마가 며느리나 딸에게 제사문화를 어떻게 물려주어야 하는지, 물려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참여

대부분의 여성이 제사를 본인의 일로 진지하게 접하는 시기는 결혼 한 이후부터이다. 여자는 시부모나 남편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참여한다. 제사 음식은 물론, 제사 일시, 횃수, 절차, 참석자 등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시댁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은 그저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전통이란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서 가치 있는 것으로서 보존되고 전승되어 온 사회적 유산이다. 다시 말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통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전승된 것의 외면적 형식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존재에 의문을 느끼거나 배제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의심되거나 부정되는 인습이 되어 버린다.

제사문화에서 여성은 제사음식을 마련하고 손님을 접대 하는 부분에서 안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외면적 형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전승받게 된다. 하지만 그 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만을 강요받기 때문에 제사, 특히 시댁의 제사를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입장에서 전승 받게 되면서 제사문화를 전통이 아닌 인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시댁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이 희생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는 그 집 조상을 모시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서구화, 개인주의화 되면서 여성들은 시댁이긴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내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이유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부모와 시댁의 조상의 제사가 겹칠 때는 이런 생각이 더욱 두드러진다.

여성들이 다음 세대, 즉 그들의 딸이나 며느리에게 제사문화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거나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부부나 조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안주인의 입장에

서 ‘내가 왜 이 제사를 드려야하고, 이 제사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재해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통에 담겨 있는 가치는 그것이 아무리 오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갖는 현재의 문제의식에 관계되는 가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 현대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공유하고 공감하게 될 때 여성들도 수동적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제사문화의 안주인 역할을 이어가지 않을까?

3. 가부장적인 불평등 문화

제사문화는 장자나 종손 등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가 끊기고 제사가 끊기지 않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남자의 성비가 높아지는 출생성비의 왜곡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출생성비의 상승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강하게 남아 있는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던 가계 전승의 의미가 약화되고 양성평등사상이 확대되면서 남아선호사상도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이 1991년에는 40.5%였으나 2006년에는 10.3%로 줄어들었다. 2012년 조사에는 미혼남성의 66.9%, 미혼여성의 70.2%가 딸 아들 구별 없이 희망자녀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자녀수를 딸 아들 구별하여 정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자녀의 성별 희망자녀수를 물어본 결과, 평균 아들 1.07~1.08명, 딸 1.09~1.22명으로 딸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아선호사상은 거의 없어졌으며 오히려 여아를 선호하는 미혼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⁴⁾

이러한 변화는 사회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리나 지위가 과거의 그것과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을 따르며 섬겨야만 했다. 이러한 사상은 여성과 관련된 옛 고사성어에 잘 나타나 있다. 거안제미(擧案齊眉) 남편의 밥상을 눈썹에 맞추어 높이 들고 들어가야 하고, 출가외인(出嫁外人) 시집간 딸은 가족이 아니라 남과 같으며, 칠거지악(七去之惡)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있었으며, 삼종지도(三從之道) 태어나서는 부모, 시집가서는 남편, 남편이 죽어서는 자식의 뜻을 따라야 하며, 일부종사(一夫從事) 평생 한 남편만을 섬겨야하고, 여필종부(女必從夫)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야 했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12, 344쪽.

이러한 의식은 제사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제사문화와 명절문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족 문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절만 두고 보더라도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명절 증후군은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증상을 겪는 것이다. 장시간의 귀향 과정, 가사노동 등의 신체적 피로, 성 차별적 대우, 시댁과 친정의 차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는 산업화 이후 전통적 가족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의 개인주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피로, 우울,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 명절증후군을 겪는 대상은 대부분 주부였지만, 최근에는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어머니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⁵⁾

명절이나 제사 때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가장 많이 힘들다. 최소한 제사 삼일 전에는 장보기와 다듬기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틀 전에는 전부침, 나물무침, 생선요리 등 음식 조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당일에는 국, 탕, 밥을 준비해야한다. 의례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한 후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 등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명절의 경우 일가친척의 방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차림과 설거지, 정리가 손님이 안 올 때까지 반복된다.

최근에는 남자들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남자는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식과 정리, 청소 등의 집안일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남성들이 도와주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 그것이 여자와 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혹은 호의와 배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육체적 노동에서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이다. 대표적인 것이 명절이나 제사에 시가에만 있고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출가외인이라는 의식 때문인지 며느리가 친정에 가기를 꺼리는 것이다. 명절의 경우 신정은 친정, 구정은 시댁처럼 구분이 해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친정제사에 남편이 같이 가지 않거나 보내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딸, 즉 여자는 자신의 조상, 심지어 부모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제사를 챙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여성이 제주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장인장모의 제사를 맡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자료인 이문건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문건은 유배지에서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증조부모 외에도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기일에 제사를 지냈다. 그 중에서 부모와 처부모의 제사는 해마다 거행했고 그 외는 16세기 일반적인 사대부가처럼 다른 형제자매들과 분할하여 윤회방식으로 돌아가며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⁶⁾

5) 매일경제, 매경닷컴 참조.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처부모의 제사를 챙기고 딸도 윤회방식으로 조상제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남성 중심, 장자 중심의 제사문화는 조선 후기 들어 직계가족 제도가 강화되고 재산상속이 장자로 집중되면서 부터이다. 제사문화의 전통과 역사 속에는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례들이 있다. 제사문화를 앞 세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물려받기 보다 제사문화의 본질을 전통 속에서 찾아내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비혼과 만혼, 국제결혼 등으로 가족의 형성에서부터 형태, 구성, 구성원간의 역할과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통사회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위와 지위도 달라지고 있다. 전통사회의 제사문화가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해 현대의 가족문화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IV. 여성들이 전승하는 제사문화의 경험과 지식

제사에 대한 여성의 입장과 시각을 조사하면서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생각과 자세를 몇 가지 알 수 있었다. 첫째 시댁의 제사를 ‘남의 조상 제사’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둘째 ‘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이해나 공감 없이,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비자발적인 주변인의 자세였다는 점이다.

모든 문화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제사가 우리들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아야하고, 우리들의 애정과 애착, 관심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야한다. 어떤 문화를 소중히 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정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제사문화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시각과 입장을 좁혀갈 수 있을까?

1.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1960년대의 가정의례준칙과 21세를 목전에 둔 1999년의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국가가 나서서 가정의례를 지키는 규칙과 기준을 법적으로 정한 사례이다. 제정의 목적은 의식절차(儀式節次)를

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조선시대 유배문화, 유배지에서도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게시글 참조.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振作)하는 것이었다. 이후 제사 간소화와 현대화의 문제가 제사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후 제사 음식, 절차, 횃수 등 형식은 물론 제사를 지내는 주체, 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본격화되었다.

2011년 9월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상 제사,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 조상 제사의 현대화 모델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조상 제사는 왜 지내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였다. 토론회는 제사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제사는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사 현대화의 주요 쟁점은 첫째, 제사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야 한다는 것, 둘째, 아들딸 구분 없이 모든 자녀가 돌아가며 모시는 ‘자녀 윤회봉사’와 딸이 친정제사를 물려받는 ‘외손봉사’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셋째, 지방과 축문의 한글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차와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 넷째, 획일적인 형식화가 아닌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⁷⁾

이후 제사 간소화와 제사 형식의 변화는 더욱 공론화 되어 언론에서도 바뀌어가는 제사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한 언론에서 퇴계 이황 가문인 진성 이씨 대종손 이세준 씨의 인터뷰 기사를 다룬 바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제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으로 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됩니다. 다른 건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급진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앞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제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손들에게 조금씩 제사 형식을 바꾸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⁸⁾ 라고 말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문신인 퇴계 이황의 후손들도 조상 제사의 형식을 바꿔가고 있음을 밝혔다.

제사의 간소화와 현대화는 제사에 대한 여성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여성도 제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제사 간소화는 일 년에 6~10회가 되는 제사의 횃수를 2~3회로 줄이거나 술을 세 번 올리는 삼헌을 한 번만 올리는 단헌으로 하고 축문을 생략하는 방식 등이다.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이미 가정의례준칙에서 2대로 제한하였지만 최근에는 1대의 부모제사만 드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집안이나 혈통을 의식하는 조상까지는 아니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핵가족, 다문화가정, 무남독녀 가정과 같은 다양화된 가족 형태에 맞게 여성은 물론 외국인이나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사의 주체를 확대시키는 등 우리 시대에 맞는 제사문화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다. 제사문화를 우리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에 앞서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7) 경상일보, “차례 방식, 절차 간소화 누구나 쉽게 조상 모시게 해야”, 2011. 9. 9. 기사 참조.

8) 매경이코노미, “달라지는 제사문화, 제사는 지금 변신 중”, 2012. 10. 11. 기사 참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 목적의 타당성이 먼저 공유되어야 한다.

조선 시대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제사는 당연시 되었다.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면에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유교적 삶의 근본을 만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상과 후손 사이의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자각하는 종교적 의례였다. 가족종교적 차원에서 제사는 생명의 기원이 혈연적 전승으로 계승되는 됴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가족을 ‘효의 종교성 위에 세워진 제사공동체’로 여겨졌다.⁹⁾

또한 제사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서 후손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상은 현재 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원이다. 따라서 조상제사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사라졌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신을 대하는 것이었고, 제사는 신이 된 조상을 만남으로써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단절’과 ‘다름’이 아니라 ‘동일성’과 ‘감응’의 일치점을 찾는 의례행위로 여겼다. 때문에 제사는 조상과 후손이 연속성을 확인하고 지금 나의 삶의 근원이 조상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자리였다.¹⁰⁾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 있는 나와 연관된, 나를 위한 의례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다. 여성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남편 조상의 혈연적 전승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남편, 자식이 하나가 되어 그 생명의 기원을 만나는 의례를 행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인(仁)과 예(禮)인데, 예는 일상생활에서 인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일컫는다.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예기(禮記)』에는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는 예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며, 예에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제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제사는 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¹⁾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가 없는 것이고 예가 없으면 인을 행할 수 없고 인간의 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이러한 인식을 조선시대 사람들 전반이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림이 아닌 이상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의 형식만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입장에서 제사문화가 현대화, 즉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인식이 먼저 공감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죽은 조상, 그것도 남편의 조상에게 제사를 올

9) 신광철·장동민, 「초기 한국기독교의 제례 및 상장례 담론에 대한 종교학적 재평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010, 65~66쪽.

10) 위의 책, 66쪽.

11) 배요한, 유교의 조상 제사관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45(4), 2013, 407~408쪽.

리는 것이 지금 나와 내 자식, 남편이 살아가는데 연관이 있다는 가치연관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시댁의 제사는 계속해서 ‘남의 조상’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사고를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계관과 종교관으로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도 주관적이고 주체적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지식 전달

제사와 관련된 여성들의 글을 검색하고 조사하면서 필자가 느낀 점은 제사에 대한 세대간 단절과 성별간 이해와 소통의 부재, 기록의 부재이다. 여성의 경우 제사에 대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이 많았다. 남성의 입장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성의 입장에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름도 알 수 있었다. 남성이 제사의 의미와 절차, 형식 등을 이야기하는 반면 여성들은 제사 준비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 기록의 부재는 여성들이 현재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남성들의 글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전달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글은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결과 중심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후기에 머무른다. 여기에는 제사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 때문도 있겠지만 그 지식을 전승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안주인으로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전달의 부재는 제사문화의 전승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통문화의 전승은 전통지식의 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통지식은 특정한 사람 혹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즉, 전통을 토대로 산업적, 과학적, 생태적, 문화적, 예술적 분야에서 지식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기술 또는 창조물에 내재하는 지식체계이다.¹²⁾ 다시 말해 전통지식은 인간의 활동과 창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과 지식이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전통문화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에 따르면 전통지식은 크게 생업기술, 생활기술, 창조적 기술로 구분된다. 창조적 기술은 다시 문화적 창조기술과 제도적 창조기술로 나뉘는데, 제도적 창조기술에 관혼상제, 가족제도 등이 포함된다.¹³⁾ 그런데 지금까지 제사문화에 대한 지식은 남성 중

12) 안윤수, 「전통지식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농촌개발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3, 490~528쪽.

13)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안은 WIPO(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자)의 전통지식 국제지식재산권 논의와 DB 정리의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작성된 분류안이다. 전통지식자원이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배타적 권리는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으로 전달되어 온 경향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고 동양문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들의 창조적 기술이다. 제사를 지내는 형식과 절차, 방법에는 유교사상, 효 사상과 관련된 정신적인 상징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관념과 실재의 조화와 융합이 나타나는 의례 문화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지식체계와 기술은 대대로 전승되면서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고 진화해 왔다. 제사는 ‘음식을 조상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례에서 사람이나 동물을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여성은 그러한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된다.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다. 집안마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예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인 지역의 가가례는 제사 상차림의 경우 조율이시, 조율시이, 흥동백서 등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사의 절차에서는 잔을 올릴 때 젓가락을 시접(匙楪)에 세 번 굴리는 전저(奠箸)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예서(禮書)』에서 정한 횃수보다 절하는 횃수가 많기도 하고, 아헌 때 계반삽시(啓飯插匙)를 행하는 등의 가가례가 있다.¹⁴⁾

단적으로 경기도에는 타지역민도 이주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31개 시군의 가가례도 각기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토착민이나 이주민의 현재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느냐를 떠나 아직까지 행해지고 있는 무형문화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지식과 기술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제사에 관한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을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제사문화를 남기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들의 지식을 모을 수 있을까?

첫째, ‘며느리와 딸들이 말하는 우리 집 제사 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현재 경기도 여성들의 제사 참여 방식과 인식을 파악하고 여성들이 좀 더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제사에 참여할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가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 제사’의 의미와 방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여성들의 구술 채록을 통한 경기도 제사문화의 현황과 전승’을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세대별, 종교별, 지역별, 상황별로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인식, 지식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경기도 제사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승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는

국제특허분류 체계와 유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특허문헌의 선행기술 검색과 검증에 편리하고 국제정보교환 체계에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2009, 17쪽.

14) 디지털용인문화대전(<http://yongin.grandculture.net>), 가가례 검색 결과 참조.

것이다. 집안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성들은 어떻게 제사문화에 참여하거나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여성들에 의한 제사문화의 역사와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에 ‘여성들의 제사문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다. 현재 30, 40대 여성들의 제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블로그나 카페, 고민방이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주로 오고간다. 개인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글부터 의견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글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제사문화를 물려받고 이어가야 할 30, 40대들이 알아야 할 제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한편,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제사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의견, 지식과 기술을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고 나눔으로써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제사문화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제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V. 맺는말

전통은 그 세대에 맞게 재생산되고 전승된다. 본래 제사는 효 사상의 실천이라는 도덕적 기능과 가족구성원, 친족구성원들이 함께 모이고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가족통합적, 사회통합적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현대사회 들어서는 제사와 이와 관련된 재산상속문제 때문에 이혼과 파혼을 하고 형제자매, 친인척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이어져 왔다. 변화를 통해 제사의 순기능을 이어받고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통시대에는 여성들에게 가문의 대와 제사의 명맥을 이어줄 것을 요구했다. 근대의 신여성들에게는 현모양처가 되어 지아비를 잘 보필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길 요구했다. 지금은 여성들에게 집보다 밖으로 나와 사회생활을 하라고 요구한다.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나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만 하기보다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남녀가 공유하길 원한다. 일하는 엄마, 살림하는 아빠, 육아하는 아빠에 대한 인식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사회에서도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들을 어떻게 사회로 다시 불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일하는 엄마, 살림하는 아빠, 육아하는 아빠에 대한 인식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사회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아들을 낳는 것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했다. 하드웨어적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던 근대에는 남성들이 근면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소프트웨어적 산업발전으로 여성의 노동력도 필요해진 오늘날에는 양성평등사상을 토대로

남녀가 모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분담하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제사문화를 필요로 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제사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질서의 측면에서도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사문화는 차세대를 위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는 사회를 위해,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향유해가는 문화의 주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사문화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제사는 여성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해 줄 수 있어야한다. 제사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성 스스로가 찾지 않으면 여성에게 제사는 자신을 희생하고 죽여가며 억지로 수행해야 할 노동으로만 인식될 것이다. 여성들이 제사의 의미와 본질적 가치를 공유, 공감하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고 그 지식을 체계화 시켜갈 때 제사문화는 차세대로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경상일보, “차례 방식, 절차 간소화 누구나 쉽게 조상 모시게 해야”, 2011. 9. 9. 기사 참조.
- 농촌진흥청,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2009.
- 디지털용인문화대전(<http://yongin.grandculture.net>), 가가례 검색 결과 참조.
- 매경이코노미, “달라지는 제사문화, 제사는 지금 변신 중”, 2012. 10. 11. 기사 참조.
- 매일경제, 매경닷컴 참조.
- 배요한, 「유교의 조상 제사관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45(4), 2013.
- 신광철·장동민, 「초기 한국기독교의 제례 및 상장례 담론에 대한 종교학적 재평가」,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 안윤수, 「전통지식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농촌개발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3.
- 오마이뉴스, “당신 조상 제사에 왜 내가 휴가를 내? 여자의 희생으로 치르는 제사문화, 즐겁지 않아요”, 2010. 01. 19. 기사 참조.
- 재테크포털 미니가계부(<http://bbs.moneta.co.kr>), 시할머니제사 vs 아빠제사, 2010. 12. 11. 게시글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012.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조선시대 유배문화, 유배지에서도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게시글 참조.

‘한국 제사문화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발행일 2016년 8월 29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우) 16488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031-231-7200
<http://www.ggcf.kr/>

제작·인쇄 포애드
Tel. 031-384-0058

ISBN 978-89-999-0055-6

